京畿道博物館

年報

제 2 호

경기도박물관도서실
007497

경기도박물관
1998년

京畿道博物館

年報

제 2 호

경기도박물관

1998년

이제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개관된지 어언 3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박물관에서는 개관 제2주년을 맞이하여 조선후기 실학의 꽃을 피웠던 경기도를 중심으로, 그 꿈을 펼쳐보고 앞으로 21세기의 정신적 지표를 제시하는 「근대를 향한 꿈」이란 제하의 특별전 개최를 비롯하여, 국가 사적인 양주 회암사지와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그리고 사회교육을 위한 박물관대학과 초·중등 문화학교 운영등 실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더우기 외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강한 박물관 전문가 연수는 우리 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지껏 시행치 못했던 알찬 워크숍을 전혀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크게 성원과 감명을 준 보람된 성과였음을 확신합니다.

또 대망의 「京畿民俗誌」의 개관편을 시작으로 「京畿文化遺蹟地圖」 등 많은 성과물을 발간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학술적 업적을 쌓아가고 있음을 만족하며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각오로 더욱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의 여러 곳에서 떠내려가는 소중한 것들을 손도 대기전에 잃고 말 것입니다. 사라져 가는 경기도의 역사자료들을 수집하여 공개하고 연구하여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비록 그간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란 국가의 대세에 뼈 아픈 시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묵묵히 노력하여 반드시 새천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약하며 그간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드리며 두 번째 「年報」의 간행사로 가늠합니다.

199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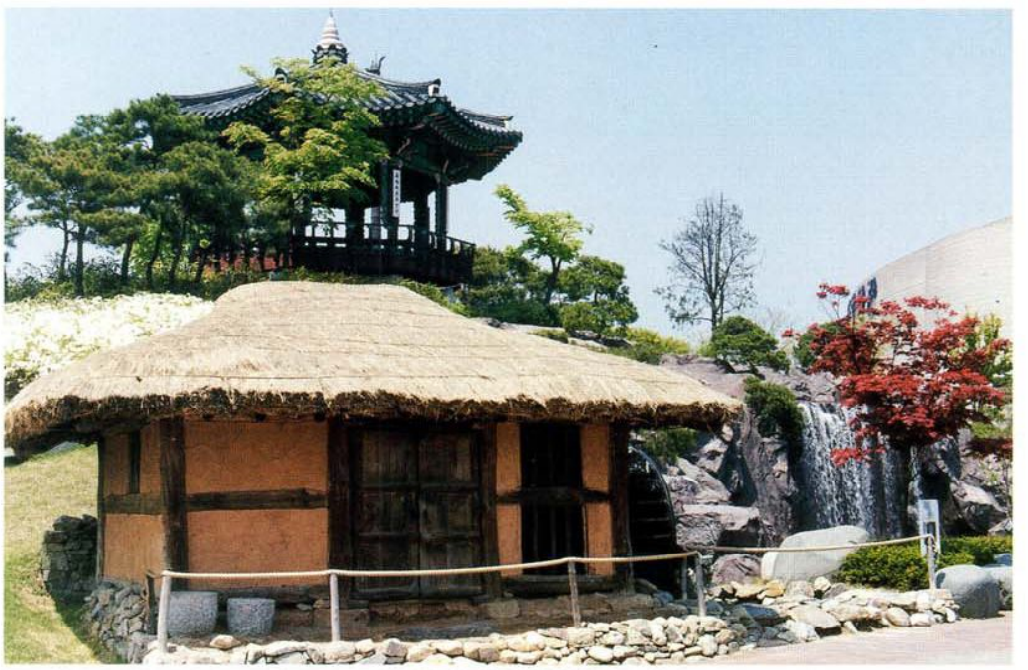
경기도박물관장 강경훈



경기도박물관 전경



야외전시장 (음고정)



야외전시장 (물레방아)



지역문화탐방 I "근대를 향한 꿈" 장경호 관장 전시유물 설명 (98. 7. 21)



초청 주요 인사 관람

京畿道博物館
車軌



학술세미나 "문예부흥과 화성" ('98. 2. 27)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대상 (곡란초등학교 신실이)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 ('98. 6. 10)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자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기념 전통민속공연 "봉산탈춤" (98. 5. 11)



경기도박물관 개관 2주년기념 공연 "발탈" (98. 6. 20)



제3기 박물관대학 ('98. 4. 1)



제4기 박물관대학 ('98. 9. 30)



초 · 중학생 겨울문화학교 (98. 1. 13)



초 · 중학교 겨울문화학교 수강생 전시장 관람

목 차

□ **간행사** / 경기도박물관장 장경호

□ **화 보** / 경기도박물관 전경 및 사업활동과 학술조사

Ⅰ. 연구노트 및 자료소개

1. 경기남부지역의 백제산성 Ⅰ (백종오) 21
   - 안성천·아산만 일대를 중심으로 -
   1) 머리말 21
   2) 주변환경 23
   3) 안성천·아산만 일대 백제산성 25
   4) 백제산성의 분포와 특징 42
   5) 맺음말 50

2. 봉업사지 출토 청동발의 분석 (김선덕, 박학수, 김웅신, 이경선, 백종오) 67
   1) 머리말 67
   2) 청동발의 조성 67
   3) 청동발의 미세조직 68
   4) 마무리 69

3. 고양시 원흥리 출토 청자기와에 대하여 (김영미) 74

4. 조선후기 용인 기곡면 경주김씨 준호구에 대하여 (김성환) 83
   1) 머리말 83
   2) 경주김씨의 가계 84
   3) 자료의 분석 86
   4) 맺음말 96

5. 벼루에 대한 小考 (장세훈) 107
1) 들어가는 말 107
2) 벼루의 역사 107
3) 좋은벼루의 조건 109
4) 米芾의 硯史 110
5) 벼루사용에 대하여 115
6) 나오는 말 116

Ⅱ. 사업내용

1. 전 시 121
1) 상설전시 121
2) 특별전시 122

2. 연구조사 및 학술활동 125
1) 학술세미나 125
(1) 지역문화탐방Ⅰ《문예부흥과 화성》 125
2) 특별강연회 129
(1) 명사초청강연회Ⅰ《진경시대의 미술》 129
(2) 명사초청강연회Ⅱ《우리의 땅문화》 130
(3) 특별강연회 "사진가 이지누의 민통선기행" 131
3) 워크샵 132
(1) 박물관 전문직 입문 -초보 박물관 직장인을 위한 워크샵- 132
4) 학술·조사활동 134
(1)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134
(2) 여주 고달사지 시굴조사 138
(3)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을 위한 현지조사 139
(4) 평택 관방유적 정밀지표조사 141
(5) 평택 문화유적 지표조사 143
(6) 고양 벽제관지 발굴조사 145
(7) 평택 지제동 유적 매장문화재 예비 지표조사 148

(8) 포천 영평천 유역 지표조사 ····· 149
(9) 포천 성동리 유적 긴급발굴조사 ····· 150

3. 소장품 관리 ····· 154
1) 소장품 현황 ····· 154
(1) 등록유물 ····· 154
(2) 지정문화재 현황 ····· 155
2) '98 신수유물 ····· 155
(1) 기증유물 ····· 155
(2) 구입유물 ····· 157
(3) 위탁유물 ····· 157
3) 소장품 등록 관리 ····· 158
4) 보존관리 ····· 158
(1) 개요 ····· 158
(2) '98년도 주요추진업무 ····· 159

4. 행사 및 사회교육 ····· 166
1) 공연 · 행사 ····· 166
(1)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기념 전통 민속공연 -봉산탈춤- ····· 166
(2) 경기도박물관 개관 2주년기념 공연 -발탈- ····· 166
(3) '98 기획전 "근대를 향한 꿈" 기념공연극 -한중록- ····· 167
2) 사회교육 ····· 167
(1) 문화영화 상영 ····· 167
(2) 제3기 박물관대학 ····· 168
(3) 제4기 박물관대학 ····· 169
(4) 초 · 중학생 겨울문화학교 ····· 170
(5) 초등학생 여름문화학교 ····· 172
(6)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 172
(7) 문화유적답사 ····· 179
(8) 박물관 연수제도(Internship) 운영 ····· 180
(9) 박물관 회원제도 운영 ····· 181

5. 출판 보급 ····· 182
1) 도록 · 연보 ····· 182
(1) 「근대를 향한 꿈」 특별전시지역 문화탐방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 182
(2) 연보(창간호) ····· 182
(3) 박물관이야기 ····· 183
2) 학술총서 ····· 183
(1) 경기민속지Ⅰ -개관편- ····· 183
(2) 조영복의 연행일록 ····· 184
(3) 경기도불적자료집 ····· 184
3) 학술조사보고서 ····· 184
(1)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 184
(2)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 시굴조사보고서 ····· 185
4) 발표문 ····· 185
(1) 학술세미나《문예부흥과 화성-근대화의 여명-》 ····· 185
(2) 명사초청 강연회 -진경시대의 미술- ····· 185
(3) 명사초청 강연회 -우리의 땅 문화- ····· 186
5) 사회교육 교재 ····· 186
(1) 박물관 전문직 입문 ····· 186
-초보 박물관 직장인을 위한 워크샵-
(2) 초등학생 여름문화학교 ····· 186
(3) 초등학생 겨울문화학교 ····· 186
(4) 제3기 박물관대학 -한국선사문화의 경기도- ····· 187
(5) 제4기 박물관대학 -한국의 전통회화- ····· 187

6. 대외협력 ····· 188
1) 소장품 대여 ····· 188
2) 시설 대여 ····· 189

7. 위원회 활동 ····· 190
1) 운영자문위원회 ····· 190
2) 유물감정위원회 ····· 191

8. 박물관 동정 193
1) 시 상 193
2) 학예직 동정 - 연구간행 194

Ⅲ. 조직과 운영

1. 기구 및 정·현원 199
1) 기 구 199
2) 정·현원 199

2. 직원 인명부 및 역대 직원명단 200
1) 직원 인명부 200
2) 역대 직원 명단 202

3. 예 산 203

4. 시설유지관리 203

5. 도서실 현황 204

6. 관람객 현황 205

Ⅳ. 부 록

1. 일 지 211

2. 법 규 224
1)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224
2) 경기도직제규칙중 개정규칙 229

I. 연구노트 및 자료소개

1. 경기남부지역의 백제산성
-안성천, 아산만 일대를 중심으로-

2. 봉업사지 출토 청동발의 분석

3. 고양시 원흥리 출토 청자 기와에 대하여

4. 조선후기 용인 기곡면 경주김씨
준호구에 대하여

5. 벼루에 대한 소고

京畿南部地域의 百濟山城 I

-安城川·牙山灣一帶를 중심으로-

백 종 오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차 례

Ⅰ. 머리말
Ⅱ. 周邊環境
Ⅲ. 安城川·牙山灣一帶 百濟山城
Ⅳ. 百濟山城의 分布와 特徵
Ⅴ. 맺음말

Ⅰ. 머리말

安城川·牙山灣 一帶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百濟와 토착세력인 馬韓과의 관련속에서 爭覇의 現場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지역은 伯濟國, 目支國, 熊川 문제 등 百濟初期史와 관련하여 긴밀히 다루어져야 마땅하지만, 문헌의 영세성과 고고학 자료의 미비로 추론만 거듭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중 熊川[1]의 비정문제는 백제초기 세력판도와 마한과의 역학관계 파악에 중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백제의 國家形成과 成長의 일면을 밝혀줄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백제초기의 세력범위는 북으로 예성강, 동으로 춘천 및 경기도 동계, 서로는 서해안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남으로 熊川의 限界를 설정하는 데는 安城川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2], 公州 부근의 錦江으로 보는 견해[3]와 이것을

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13년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같은 책 溫祚王 24년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民 吾割東北一百里之地 安之 其待王不爲 不厚……王慙壤其柵"
2)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1976, 479쪽.
天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3, 1976, 117~132쪽.

절충한 견해[4]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안성천·아산만 일대는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안성천 유역과 아산만 일대의 三國時代 前期[5] 遺蹟으로는 매장문화재의 신고로 알려진 安城 內長里遺蹟[6]과 仁智洞遺蹟[7]이 있다. 내장리유적에서는 마제석검과 무문토기편·타날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고, 飛鳳山 서쪽기슭에서도 고분출토 부장품으로 보이는 철부와 타날문토기편이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다. 仁智洞遺蹟에서는 동제마형대구와 토기호가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天安 淸堂洞遺蹟과 安城平野를 중심으로 하는 同一文化圈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글에서는 안성천·아산만 일대에 대한 百濟遺蹟의 考古學的 調査成果를 정리·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범위는 京畿南部地域 중 安城川과 牙山灣一帶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추후 안성·평택·화성군과 그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코자 한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려진 백제초기사의 윤곽이 어느정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崔夢龍,「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百濟史의 理解』, 1991, 79~97쪽.
崔夢龍·權五榮,「考古學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千寬宇先生 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83~120쪽.

3) 申采浩,『丹齋申采浩全集』上, 1987, 129~130쪽.
李道學,『百濟集權國家形成過程 硏究』, 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1, 170~172쪽.

4) 朴燦圭,『百濟의 馬韓征服過程 硏究』, 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95, 100~105쪽.

5) 이 글에서는 철기시대를 기원전 300~1년까지를 鐵器時代 前期(初期鐵器時代), 기원후 1~300년까지를 鐵器時代 後期 즉, 三國時代 前期(原三國時代, 三韓時代)로 구분하는 최몽룡교수의 시기구분법을 따랐다.
최몽룡,「철기문화」,『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97.

6) 국립중앙박물관,「安城川 牙山灣一帶 先史遺蹟 地表調査」,『淸堂洞Ⅱ』, 1995, 280~284쪽.

7) 徐五善,「天安 淸堂洞 및 安城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2,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0, 68~84쪽.
안성 인지동 출토유물은 短頸壺의 燒成度가 陶質化되어있고 시문된 平行打捺文이 太線化되었으며 銅製馬形帶鉤도 淸堂洞遺蹟 출토유물보다 粗質化되었다는 점에서 청당동유적의 Ⅲ기에 해당하는 서기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Ⅱ. 周邊環境

1. 自然環境

安城川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보개면 일대에서 발원하여 평택을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길이 76㎞, 유역면적 1,722㎢ 정도이다. 하구 근처는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가장 큰 곳 중의 하나로 대조시 평균조차 8.5m에 달한다. 유역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에 관입한 화강편마암으로 반상결정편마암·흑운모편마암·각섬화강암이 대부분이다. 주요 지류는 振威川·笠場川·漢川·靑龍川·烏山川·道垈川·黃口只川 등이다. 안성천의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河成堆積平野로는 안성평야와 평택평야가 대표적이다. 이들 평야는 대부분 충적토로 이루어진 평야이며, 예로부터 토질이 비옥하여 김포평야와 함께 京畿米의 주산지를 이루고 있다. 한편 태백산맥에서 시작하여 경기도와 충청도 경계를 지나는 차령산맥이 오랜세월 침식되어 낮아져 침식평탄면을 이루고 있는데 안성평야와 평택평야 역시 안성천 진위천이 퇴적한 충적평야와 그 주변의 침식평야로 구성된다.

하구인 牙山灣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당진군과의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형성된 灣이다. 만구는 북서쪽으로 열려 있으며 폭은 약 2.2km, 만입은 약 40km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곳으로 평균 6.1m, 최대 9.6m의 조차를 나타낸다. 또 조류의 유속이 빨라 저조시 내만의 대부분이 육지화되어 넓은 간석지를 형성한다. 만내로 유입하는 하천으로는 안성천·곡교천·삽교천·당진천 등이 있다. 아산만 방조제가 들어서기전까지는 하구로부터 16.5㎞ 떨어진 평택군 팽성면 신호리까지 조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방조제를 牙山防潮堤라 부르며, 방조제가 완공된 뒤 많은 간석지가 간척되어 농경지가 확대되었다[8].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대백과사전』, 1991, 참조.

2. 考古學的 環境

安城川·牙山灣 一帶의 安城·平澤市에 대한 考古學的 調査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다. 근래들어 공단조성·도로건설·택지개발 등 대규모 國土開發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문화유적에 대한 사전 地表調査와 發掘調査가 救濟調査의 성격으로 실시되었다. 그나마, 安城地域에서는 해방이후 단 한차례의 救濟 發掘調査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安城川 流域에서는 일찍이 고환경의 변화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土炭花粉分析[9]이 평택에서 이루어졌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의 내기리·희곡리유적[10]과 홍원리유적[11]에서 화분분석, 수종분석, 규조분석 등 古環境調査와 舊石器文化의 존재를 알려주는 제4기 갱신세층과 구석기를 확인하였다. 또한 추운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쐐기 모양의 토양 구조를 가진 4기 갱신세 층이 평택시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玄華里遺蹟[12]에서는 구석기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백제시대 토기요지·토광묘를 발굴하였으며, 芝制洞遺蹟[13]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시굴조사되었다[14]. 遠

9) 오지영, 「平澤地域 土炭의 花粉分析」, 『植物學會誌』 14-3, 韓國植物學會, 1971.
오지영, 「平澤地域 土炭의 花粉分析」, 『韓國考古學報』 1, 韓國考古學會, 1976.

10) 이융조·하문식, 「평택 내기리·희곡리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1995.

11) 한창균 外, 「구석기유적조사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 1995.

12)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硏究所, 『平澤 玄華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95 ; 『平澤 玄華里 遺蹟』, 1996.

13) 경기도박물관에서는 1998년도 평택 문화유적 조사의 일환으로 고덕면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던 중, 국토관리청의 평택-이동간 국도 개설공사로 인하여 절개된 능선부경사면에 주거지 일부와 청동기시대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지역은 도로개설로 구릉의 대부분이 절단되어 암반층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며, 유적은 해발 6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마제석촉·방추차편과 구순각목문토기·공열문토기·점토대토기 등 청동기시대 전반에 걸치는 다량의 무문토기류가 채집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북동사면의 고속도로 개설구간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고 있으며, 지제동 건너말과 방축리 등지에서 무문토기편과 마제석검·석부·석촉·석도 등의 매장문화재가 신고된 적이 있다. 이로 미루어 지제동일대는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경기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14) 世宗大學校 博物館, 『安仲-平澤 區間 高速道路工事豫定地域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97

井里遺蹟[15]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 전기에 걸친 유물이 출토되어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켜 주었다. 이 유적은 해안가에 입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들어 실시한 平澤 文化遺蹟 地表調査[16]에서는 석정리·운정리·용성리 등 7개 지점에서 舊石器가 채집되었으며 백봉리·옥길리·기산리·안화리등 12개 지점에서 靑銅器時代 遺物과 遺蹟을 새로이 발견하였다. 그리고 關防遺蹟으로 문헌기록에 나오는 무봉산성·견산리산성·자미산성 등 12개소와 봉남리산성·용성리 강길마을성 등 6개소를 추가로 확인한 것은 이 지역의 고대문화상 복원을 한층 구체화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보다 많은 유적과 유물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Ⅲ. 安城川·牙山灣一帶 百濟山城

이번 조사대상인 百濟山城은 安城川 流域의 飛鳳山城에서 牙山灣 入口의 武城山城까지 모두 8個所 遺蹟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유적은 모두 안성천과 아산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들로 百濟時代에 축조된 것이 확실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비봉산성·무양산성·자미산성 등은 삼국시대 산성으로 막연히 분류되었으나 재조사를 통하여 百濟때 初築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백봉리산성·기산리산성·진사리산성 등 4個所를 새로히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유물은 채집되나 지형이 변경되어 산성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유적은 遺物散布地로 분류하였다.(도면1)

『安仲－平澤 區間 高速道路工事豫定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1998.

15) 아주대학교 박물관·서울대학교, 「평택 원정리 패총 발굴조사 개요」, 지도위원회회의 자료,1996 ;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조사 개보」, 『科技考古硏究』 2, 1997.
신석기시대유적으로는 평택 원정리유적과 지제동유적이 있다. 원정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야외노지가 발굴되었으며 유물로는 금강식토기의 구연부를 가진 즐문토기편들과 석착·석도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지제동유적에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즐문토기편만 출토되었다.

16) 京畿道博物館,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9.

1) 飛鳳山城 (도면2)

가. 位置 : 安城市 安城邑 明倫洞・寶蓋面 加士里 境界 飛鳳山 (NJ52-9-27-092)[17]

나. 現況 : 『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大東地志』에는 '飛鳳古城'이라 칭하면서 둘레는 2里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비봉산성은 조선시대에 이미 폐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의하면 "邑內面・寶蓋面・國有邑의 東北方 四~五町의 小山위에 있는 土石築의 城址로서 2段으로 區劃 周圍 凡七百間"이라 하였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차령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지나고 있으며 산맥의 봉우리마다 瑞雲山城・慰禮山城・聖居山城・黑城山城 등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남쪽으로 접하여 안성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그 주변으로 안성평야가 펼쳐져 있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구릉지대와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산성은 飛鳳山(해발 186m)의 6~9부 능선을 중심으로 축조하였다. 테뫼식과 포곡식이 결합된 複合式 山城으로 내성・중성・외성의 三重構造를 하고 있다. 內城과 中城은 테뫼식이고 外城은 포곡식을 하고 있다. 內城은 남쪽 봉우리 주위를 土築하였으며 둘레는 714m 정도이다. 中城은 비봉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石築되었으며 둘레는 694m 정도이다. 정상부의 평탄면에서 "本皮"銘 기와가 채집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판단된다. 外城은 비봉산 동사면의 加士里 方面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평면은 서쪽으로 넓게 벌어진 부채꼴모양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성내의 가용면적을 서벽과 능선부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둘레는 1,656m 정도이고 土築하였다. 가사리방면의 土壘 破壞部를 통하여 단면을 살펴보면 토루 중심부는 版築하였으며 내외 기저부에 石列을 둔 형태를 하고 있다. 정상부 근처에는 '將軍巖'이라 새겨진 바위가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옛날 장수가 앉아서 패인 흔적이 생겼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안성평야를 건너 천안・아산지역, 서쪽으로 당진・평택지역의 시계가 양호하여 주변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17) 도엽번호・행정구역・해발높이・지형명칭 등은 기본도인 1/5,000 지형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다. 採集遺物

도면 9-①,(사진 1-①)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이 조금 섞여있다. 동체부에서 안으로 약간 내만하여 오르다가 밖으로 약 15도 정도 외반하여 바라지고 있다. 두께 0.7㎝

도면 9-②,(사진 1-②)는 회색을 띠는 동체부편으로 소성도는 연질이다. 내면에는 눌린 자국이 보이며 외면에는 세로줄이 약하게 남아있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두께 0.9㎝

도면 9-③,(사진 1-③)은 내면과 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이며,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어있다. 두께 0.5㎝

2) 舞陽山城 (도면3)

가. 位置 : 安城市 陽城面 芳新里 고령산(NJ52-9-26-087)

나. 現況 :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陽城面·孔道面·元谷面 一部 國有 一部民有 陽城의 西方 凡半里溪를 둘러싼 2段의 土城으로서 無限城이라 稱함 周圍 凡六百間"이라하였다. 『文化遺蹟總攬』에는 安城郡 陽城面 芳新里 산 42소재의 雲水庵을 保護하기 위하여 쌓은 城이라 하며 無陽이라는 사람이 쌓았다 하여 無陽城이라 전해지고 있는데, 年代는 未詳이고 土城의 길이는 약 460m로 추정되나 현재·길이120m, 높이 2m, 너비1m가 殘存한다"고 하였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대이산(해발 232m)·고성산(해발 298.1m) 등의 산지가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안성천과 안성평야가 펼쳐져 있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평택평야와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고령산과 대이산의 남동쪽 계곡아래에는 城下里라는 자연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산성은 고령산(해발 208.8m)을 둘러싼 테뫼식과 포곡식이 결합한 複合式 山城으로 舞陽城·無限城이라고도 한다. 內城은 테뫼식으로 石築하였으며 평면은 타원형을 하고 있다. 둘레는 440m이다. 施設物은 남문지·북문지와 북장대지, 북치성, 건물지 5개소, 우물지 등이 있다. 성벽은 북문지 동측 외벽과 서망대지 부근의 성벽잔

존구간에서 面石의 축조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外城은 동쪽 계곡부를 포함하는 포곡식의 형태를 하고있다. 둘레는 850m 정도이며 土築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은 북벽부에 잘 남아 있는데 성벽은 능선부를 이용하여 夾築하였으며 안쪽으로는 평탄대지를 조성하여 회곽도로 이용하였다. 北東回折部 하단에 반월형 둔덕과 외황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雉城이 시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다른 시설물이나 성벽의 현황은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파악할 수 있을것이다. 성내에는 雲水庵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조선 영조26년(1750) 船若明이라는 사람이 절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 절은 흥선대원군이 중건하고 '雲水庵'이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유적은 동북쪽으로 古城山城, 동쪽으로 飛鳳山城, 남쪽으로 胎肥山城·蛇山城, 서쪽으로 芝制洞山城과 平澤平野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다. 採集遺物

도면 10-①,(사진 1-④)은 밝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다. 동체부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와 안쪽으로 약간 외반하다가 밖으로 바라지고 있으며, 내면에는 한번의 홈을 이루고 올라가 구연부단을 이루고 있다, 외면은 승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0.8cm, 추정입지름 26cm

도면 10-②,(사진 1-⑤)는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형태는 경부에서 안으로 살짝 내만하다가 밖으로 약 50도 각도로 바라지고 한번의 홈을 두고 구연부단을 이룬다. 외면은 승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0.7cm

도면 10-③,(사진 1-⑥)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경부편이다. 경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약간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0.7cm

도면 10-④,(사진 1-⑦)는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운모와 석영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8cm

도면 10-⑤,(사진 1-⑧)는 밝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굵고 가는 석영과 운모가 다수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 전체와 외면의 절반 가량에 그을음 자국이 있다. 두께 0.8cm

도면 10-⑥,(사진 1-⑨)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편이다. 외면에는 0.3cm 간격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0.7cm

도면 10-⑦,(사진 1-⑩)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0.7cm

도면 10-⑧,(사진1-⑪)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0.6cm

도면 10-⑨,(사진 1-⑫)는 외면은 밝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그 위에 횡으로 문지른 자국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 두께 0.8cm

도면 10-⑩,(사진 1-⑬)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는 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6cm

도면 10-⑪,(사진 1-⑭)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되며,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1.2cm

도면 10-⑫,(사진 1-⑮)는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유두상 꼭지편이다. 바탕흙은 굵고 가는 석영이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는 손누름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1.7cm

도면 10-⑬,(사진 1-⑯)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시루바닥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원공의 지름은 1.6cm이다. 최대두께 0.6cm

3) 珍沙里山城 (도면4)

가. 位置 : 安城市 孔道面 珍沙里 퇴미산(NJ52-13-05-006 · 007)

나. 現況 : 산성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톨게이트 서쪽의 퇴미산(해발 57.4m)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은 완만한 구릉지대가 이어지고 이외 주변지역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동쪽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며 남동쪽 아래에는 '퇴미골'이라는 자연마

을이 있다. 퇴미산의 8부능선에 축조된 테뫼식 土城이다. 성벽은 해발 50m의 등고선을 따라 夾築式으로 土壘를 조성하였다. 둘레는 300m 정도이다. 평면은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성내 남편으로는 民墓가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북편으로 치우쳐 將臺址로 추정되는 最高地點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산성은 쌍룡자동차 집하장 건설시 퇴미산 전체를 削平하여 산성의 흔적이 완전히 破壞된 狀態이다. 유물은 쌍룡자동차 집하장의 북쪽 경계 철책선에서 북향하여 흘러내리는 능선에서 채집되고 있다.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는 능선에는 인공조림이 되어 있으며 조림시 굴토한 곳에서 유물이 다량으로 흘러나와 있다. 유물은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심발형토기류 등이다.

다. 採集遺物

도면 11-①,(사진 2-①)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승석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0.7cm

도면 11-②,(사진 2-②)는 밝은 회청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승석문이 중복타날되었다. 두께 0.7cm

도면 11-③,(사진 2-③)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었다. 외면은 승석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0.6cm

도면 11-④,(사진 2-④)는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외면은 승석문을 시문하였다. 두께 0.6cm

도면 11-⑤,(사진 2-⑤)는 밝은 회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굵은 석영이 군데군데 보인다. 외면은 유사승석문으로 승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돌렸다. 두께 0.6cm

도면 11-⑥,(사진 2-⑥)은 내・외면은 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주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었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0.6cm

도면 11-⑦,(사진 2-⑦)은 내・외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옅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지 못하며 속심은 소성시의 균열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승문과 교차승문이 함께 보이고 있으며 타날한 후에 문지른 흔적도 관찰된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이고 있다. 두께 0.9cm

도면 11-⑧,(사진 2-⑧)은 밝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석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외면에는 0.2cm간격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1.2cm

도면 11-⑨,(사진 2-⑨)는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0.1~0.2cm간격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두께 1.1cm

도면 11-⑩,(사진 2-⑩)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0.1cm간격의 격자문이 중복타날되어 있다. 두께 1.6cm

도면 11-⑪,(사진 2-⑪)은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조금 포함되었다. 외면은 0.3cm간격의 격자문이 깊게 타날되어 있다. 두께 0.9cm

도면 11-⑫,(사진 2-⑫)는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운모와 석영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0.7cm

도면 11-⑬,(사진 2-⑬)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0.2~0.3cm간격으로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분은 중복되어 타날된 곳도 보인다. 두께 0.7cm

도면 11-⑭,(사진 2-⑭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서도 소성시 균열로 석영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다. 문양은 0.1cm간격으로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1.4cm

도면 11-⑮,(사진 2-⑮)는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구연의 선단부에서 밖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깎으며 마무리 하였으며 구연부의 전체적인 외반각도는 15도 정도이다. 두께 0.7cm

도면 11-⑯,(사진 2-⑯)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많이 섞여있다. 윗쪽으로 완만하게 외반하다가 선단부 0.8cm앞에서 밖으로 약 80도 정도 각도로 바라지고 있다. 두께 0.5cm

도면 11-⑰,(사진 2-⑰)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발형토기 저부편이다. 잔존형태는 저부와 동체부 일부이다. 바탕흙은 굵고 가는 석영이 조금 포함된 점토질이다. 내면에는 슬립 흔적과 곡물 자국이 남아있다. 저부에서 기벽으로 올라가는 각도는

약 15도 정도이며 접합방식은 저부위에 기벽을 올린 형태이다. 저면은 편평하다.

저부 두께 0.8cm, 동체부 두께 0.8cm, 저부 지름 9.8cm

4) 芝制洞山城 (도면5)

가. 位置 : 平澤市 芝制洞 작은말과 망현마을 사이(NJ52-9-26-093)

나. 現況 : 유적은 지제동 망현마을 남쪽 봉우리(해발56.1m)에 위치하는 테뫼식의 土築山城이다. 둘레는 220m정도이며 평면은 동서로 긴 타원형을 하고 있다. 북사면으로는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어 성벽의 파괴가 극심한 편이고 동·남사면에서만 일부 片築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서벽부는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동서14m, 남북22m의 平坦臺地가 조성되어 있다. 산성의 동쪽으로 접하여 東古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그 주위로 平澤平野가 펼쳐져 있다. 평야는 동·남쪽 방향으로 넓게 전개되어 있으며 남쪽으로의 시계도 양호한 편이다. 북·서쪽으로는 완만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류와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가 채집되고 있다.

다. 採集遺物

도면12-①,(사진 3-①)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대옹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섞여있다. 경부에서 구연부로 갈수록 두께가 완만하게 커지다가 밖으로 외반하는 부분에 이르러 두꺼워지고 있다. 외반각도는 거의 직각이며 바라진 구연부 중간부에서 한번 꺽여 완전한 직각을 이루고 있다. 두께 3.2cm

도면 12-②,(사진 3-②)는 연한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대옹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0.2cm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1.9cm

도면 12-③,(사진 3-③)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대옹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0.2-0.3cm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2.1cm

도면 12-④,(사진 3-④)는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대옹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0.2cm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2.0cm

도면 12-⑤,(사진 3-⑤)는 외면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이고 있다. 두께 1.1cm

도면 12-⑥,(사진 3-⑥)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0.1cm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1.3cm

도면 12-⑦,(사진 3-⑦)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외면은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1.1cm

도면 12-⑧,(사진 3-⑧)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매우 정선되어 있으나 운모가 약간 섞여있다. 외면은 0.2cm간격의 사격자문을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이 보이고 있다. 두께 1.0cm

도면 12-⑨,(사진 3-⑨)는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흙은 매우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0.1-0.2cm간격의 격자문을 중복타날하였으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이고 있다. 두께 0.9cm

도면 12-⑩,(사진 3-⑩)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이 조금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0.4cm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0.6cm

도면 12-⑪,(사진 3-⑪)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유사승석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4cm

5) 栢峰里山城 (도면6)

가. 位置 : 平澤市 靑北面 栢峰里 원백봉마을 육자봉(NJ52-9-25-090)

나. 現況 : 산성은 육자봉(해발 61.5m)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한 土築의 테뫼식 산성이다. 주변은 어연들·칠산들 등 광활한 평야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으며 남쪽으로 閑山川이 동에서 서로, 동쪽으로 辰威川이 북에서 남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다. 山城立地는 평택평야의 한가운데에 구릉지가 남북으로 뻗어있으며 말단부가 구부러진 형상을 하고 있다. 즉 전체 지형이 낚시바늘 모양으로 된 구릉의 끝부분에 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평면은 동서가 약간 긴 장타원형을 하고 있으며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형태를 하고 있다. 둘레는 약 220m이고 성벽 높이는 3~5m 내외로 북벽과 서벽이 다른 성벽보다 높게 쌓여 있다. 성벽은 片築式으로 축조하였으며 동북 모서리 부분에서만 외벽에 有段施設이 남아 있다. 동쪽은 振威川과 접한 관계로 급경사를 이루고 남동쪽에 치우쳐 남북방향의 가지능선이 뻗어 내려가고 있다.

동쪽으로는 車嶺山脈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내리고 있는데 그 위에 축조된 舞陽山城·瑞雲山城 등이 조망되고 있다. 남쪽으로는 安城川 건너 成歡平野와 稷山平野·蛇山城이 보이며, 서쪽으로는 五峰山을 지나 慈美山城·琵琶山城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禿山城이 가까이 보이며, 멀리는 光敎山과 寶蓋山城을 살펴볼 수 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류와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 등이 산포되어 있다.

다. 採集遺物

도면 13-①,(사진 4-①)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대옹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0.2cm 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은 정면한 흔적과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1.7cm

도면 13-②,(사진 4-②)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직구호 구연부와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격자문 위에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8cm

도면 13-③,(사진 4-③)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매우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0.1cm 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8cm

도면 13-④,(사진 4-④)는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0.1cm 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1cm

도면 13-⑤,(사진 4-⑤)는 내·외면이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으며 크고 작은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외면에는 0.2cm 간격의 사격자문을 타날 한 후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세로방향의 정면 흔적이 보인다. 두께 1.1cm

도면 13-⑥,(사진 4-⑥)은 내·외면이 회청색, 속심은 회백색인 연질의 경부편이

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는 편이다. 외면에는 유사승석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1.1cm

도면 13-⑦,(사진 4-⑦)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승석문이 비교적 깊게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정면의 흔적과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1.1cm

도면 14-①,(사진 4-⑧)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승석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0.9cm

도면 14-②,(사진 4-⑨)는 밝은 회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약간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0.3cm의 간격으로 격자문이 깊게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0.7cm

도면 14-③,(사진 4-⑩)은 내·외면이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편이며 소성시 균열로 작은 석영이 보인다. 외면에는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손누름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9cm

도면 14-④,(사진 4-⑪)는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유사승석문을 시문하였다. 두께 0.7cm

도면 14-⑤,(사진 4-⑫)는 내·외면이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백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유사승석문을 시문하였다. 두께 0.5cm

도면 14-⑥,(사진 4-⑬)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면에는 능형 압인문이 일정하게 찍혀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소성시 갈라진 틈으로 석영이 관찰되며 물레질자국도 보인다. 두께 1.1cm

도면 14-⑦,(사진 4-⑭)은 외면이 적갈색이고 속심은 연한 회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나 크고 작은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동체부에서 경부로 외반하여 오르다가 경부에서 직립하여 구연부에 이르러 직각으로 외반하고 있다. 외면은 0.1cm간격의 격자문을 조밀하게 타날하였다. 두께 0.7cm

도면 14-⑧,(사진 4-⑮)은 붉은색 기미의 황갈색을 띠는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장석과 가는 금운모·석영이 혼입된 점질성 사질토이다. 기면조정은 외면은 물손질, 내면은 목판긁기로 정면하였다. 두께 1.1cm

도면 14-⑨,(사진 4-⑯)는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파수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유사승석문을 시문하였다. 동체부 내면에는 빗질정면 흔적이 있다. 동체에 파수를 붙인 모양이며 파수의 끝은 소도구로 3/4 정도 그은 후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 파수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파수지름 3.3cm, 동체두께 1cm

6) 岐山里山城 (도면7)

가. 位置 : 平澤市 玄德面 岐山2里 수산마을 玉女峰(NJ52-13-04-027·028)

나. 現況 : 산성은 옥녀봉(테미봉, 해발 83m)의 8부 능선에 축조한 土築의 테뫼식 산성이며 평면형태는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이다. 입지는 道窯川 방향으로 돌출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천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동쪽의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성벽은 片築式으로 축조하였다. 둘레는 약 250m 정도이고 너비는 2~3m, 외벽 높이는 4~5m 내외이다. 성벽은 토루 위로 가시덤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정상부에는 산불감시초소가 들어서 있으며 남북길이 25m×동서길이 15~20m 내외의 타원형 平坦臺地가 조성되어 있다. 성안 진입로는 남쪽의 수산마을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사방이 소규모의 구릉과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남쪽으로 아산만 일대가 한눈에 조망된다. 동쪽으로 평야지대를 건너 덕목리성이 바라보인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류와 타날문토기류 등이 수습되고 있다.

다. 採集遺物

도면 15-①,(사진 5-①)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잔존형태는 동체부와 구연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경부는 곧게 오르다가 중간 지점에서 밖으로 살짝 외반하여, 구연부 끝에서 70도 각도로 꺾이며 바라지고 있다. 구연부 안쪽으로 정면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0.8cm, 추정입지름 13cm

도면 15-②,(사진 5-②)는 내·외면은 밝은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자주색을 띠는 경질의 직구호 구연부편이다. 잔존형태는 구연부와 경부 일부이며 바탕흙은 정선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되고, 경부에는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구연부는 직립구연의 형태이며 선단부를 2번에 걸쳐 얇게 깍기조정하였다. 두께 0.7cm, 추정입지름 26cm

도면 15-③,(사진 5-③)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사립이 다량으로 혼입되었으며, 소성시 균열이 관찰된다. 외면은 동체부와 경부의 연결부에 삼각형의 압인문이 일렬로 돌아가며, 그 아래로 사격자문이 0.1cm간격으로 타날되어 있다. 두께 0.9cm

도면 15-④,(사진 5-④)는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이며 외면에는 승석문을 깊게 타날하였다. 두께 0.9cm

도면 15-⑤,(사진 5-⑤)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매우 정선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이며, 외면에는 유사승석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0.8cm

도면 15-⑥,(사진 5-⑥)은 외면과 속심은 밝은 적갈색이며 내면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었고,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외면은 유사승석문을 시문하였다. 두께 0.7cm

도면 15-⑦,(사진 5-⑦)은 내·외면은 회청색이며, 속심은 회청색안에 자주색 띠가 보이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조밀하게 타날한 후 횡침선을 돌렸다. 두께 0.7cm

도면 15-⑧,(사진 5-⑧)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사립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 흔적이 보이며, 외면에는 사격자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두께 1.4cm

도면 15-⑨,(사진 5-⑨)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며, 내면에는 세로방향의 정면 흔적이 보이고 있다. 외면에는 0.3cm간격으로 사격자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두께 1.2cm

도면 15-⑩,(사진 5-⑩)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으로 많이 뒤틀려 있는 상태이다. 바탕흙은 석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외면에는 0.3cm 간격으로 격자문을 타날한 후에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두께 0.8cm

도면 15-⑪,(사진 5-⑪)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내면에는 세로방향의 정면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0.2cm간격의 사격자문을 타날한 후에 횡침선을 얇게 돌렸다. 두께 0.8cm

도면 16-①,(사진 5-⑫)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대옹 동체부편이다. 굵은 사립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 외면은 0.2cm간격의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1.6cm

도면 16-②,(사진 5-⑬)는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대옹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내면에는 여러 방향의 정면흔과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으며 외면에는 격자문이 0.2cm간격으로 타날되어 있다. 두께 1.3cm

도면 16-③,(사진 5-⑭)은 외면은 진한 회청색, 속심은 회갈색, 내면은 자주색을 띠는 경질의 대옹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나 소성시 기포로 인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부풀어 있다. 내면에는 빗질정면이 보이며, 외면에는 0.2cm 간격으로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2.3cm

도면 16-④,(사진 5-⑮)는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었다. 외면에는 소성시 균열이 관찰되며 0.2cm 간격의 사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두께 1cm

도면 16-⑤,(사진 5-⑯)는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0.2cm 간격의 격자문이 비교적 선명하게 타날되어 있다. 두께 0.7cm

도면 16-⑥,(사진 5-⑰)은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지 않은 편이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적이 남아 있으며 외면에는 0.3cm간격의 격자문이 선명하게 타날되어 있다. 두께 0.8cm

도면 16-⑦,(사진 5-⑱)은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0.3cm간격으로 타날되어 있다. 두께 0.6cm

도면 16-⑧,(사진 5-⑲)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편이며 가는 석영과 운모가 일부 관찰된다. 외면에는 0.3cm 간격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두께 0.5cm

도면 16-⑨,(사진 5-⑳)는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

이며, 굵고 가는 석영이 다수 보이고 있다. 외면에는 0.2cm간격의 정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다. 두께 0.9cm

도면 16-⑩,(사진 5-㉑)은 외면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밝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무문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사립이 일부 혼입된 점질성 사질토이다. 내면은 마모가 심하며, 외면은 산화소성시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다. 두께 0.9cm

도면 16-⑪,(사진 5-㉒)은 바닥은 회흑색, 속심과 내면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무문토기의 저부편이다. 바탕흙은 굵고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된 점질성 사질토이다. 내면은 표면이 박리되었으며 바닥에는 산화소성시 그을린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cm, 추정밑지름 8cm

도면 16-⑫,(사진 5-㉓)는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회흑색을 띠는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사립이 다수 혼입된 점질성 사질토이다. 내면에는 소성시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다. 외면의 표면이 박리되어 있다. 두께 1.1cm

7) 武城山城 (도면8)

가. 位置 : 平澤市 靑北面 後寺里・玉吉里 境界 武城山(NJ52-9-25-088・098)

나. 現況 :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靑北面 玉吉里 武城山城址라 한다. 土壘周約三百間林慶業將軍遊戱하기 위해 쌓았다고 함"이라 하였고, 『文化遺蹟總攬』에는 "이 일대는 慈美山・피라산이 남쪽으로 연결되는데 위치하고 있으며 속칭 퇴미산이라 부르는 山頂에 있다. 높이 4m, 폭 3m, 주위 800m의 이 성지는 조선초기 林慶業將軍이 누이와 慈美山城 쌓기를 내기한 전설과 관련된 성으로 전해지고 있을뿐 확실한 연혁이나 사적은 알 수 없으며, 현재 토성내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다"고 하였다.

산성은 무성산(마루산・퇴미산, 해발 104.7m)의 9부능선에 축조한 토축의 테뫼식 산성이다. 평면은 남북이 길쭉한 장타원형에 서쪽이 돌출된 "ㅓ"자형태를 하고 있다. 남벽부에는 이동통신기지국이 성벽을 파괴하고 들어와 있으며, 동・북・서쪽의 성벽 상면에는 예비군참호와 교통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파괴가 극심한 상태이다. 둘레는 547m이고, 성벽 높이는 외벽 4~6m, 내벽 1~2.5m 내외이며, 상단너비는 1~

1.5m, 하단너비는 6~8m정도이다. 회곽도는 성안쪽 전체에 걸쳐서 너비 4~5m정도로 개설되어 있다.

門址는 東門址와 西門址가 확인되며 크기는 상단너비 3~4m, 하단너비 1.5~2.5m 정도이고 높이는 1.8m내외이다. 서문지는 성내의 물이 모일 수 있는 저지대인 관계로 水口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벽부에는 개구부 형태로 절개된 토루가 3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절개부는 참호조성시 토루의 흙을 채취하여 사용한 흔적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증하듯 참호는 토루가 두툼하고 그 주위로는 토루가 깎여 절개부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雉城은 북단과 서단의 회절부에 시설하였으며 그외 무성산 정상부의 추정장대지, 6개소의 추정건물지가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치성에서는 북쪽의 화성군 발안지역과 서해안 남양만지역까지 조망되며, 서치성에서는 원정리 괴대봉봉수 주변과 아산만이 한눈에 바라 보인다. 북·서쪽으로는 발안천의 옹포와 화성군의 장안포가 내려다 보이며 남쪽으로는 자미산성과 비파산성이 연이어져 있다.

다. 採集遺物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류와 회색·적갈색연질, 회청색경질의 격자문·유사승석문·사선문 등이 시문된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가 채집되었다[18].

8) 慈美山城 (도면9)

가. 位置 : 平澤市 安仲面 德佑里 慈美山(NJ52-9-25-098)

나. 現況 :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土壘 周圍 約三百間이 모두 붕괴되어 명확하지 않으나 山의 斜面을 削土하여 이곳에 土壁을 붙인 듯 하다. 慈美山城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한 『文化遺蹟總攬』에는 "지금 남아있는 石城의 형태가 원형으로 둘레의 길이는 약 150m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미산(해발 110.8m) 북쪽의 무성산에서 뻗어온 산줄기가 이어져 남쪽의 비파산

18) 京畿道博物館,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9, 216~218쪽.

까지 내려가고 있다. 즉 무성산성과 비파산성이 연결되는 중간부에 자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자미산의 자미는 북두칠성을 나타내며 주민들은 재미산으로도 부른다. 자미산성은 내성·외성과 부성의 三重構造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부 주위를 토축으로 축조한 內城과 7~8부 능선을 따라 석축으로 이루어진 外城[19]의 이중구조와 자미산 동쪽능선의 110m거리에 토축으로 이루어진 副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외성의 시기적인 관계는 외성 북벽부근에서 내성의 토루가 외성의 건물지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내성이 먼저 축조되고 이후 내성이 파괴되면서 외성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내성 남벽절개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내성 절개부에서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류,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가 출토되며 외성에서는 신라시대 토기·기와류가 출토되고 있다.

내성은 토축으로 편축식의 축조방법을 하였으며 평면은 반월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둘레는 240m 정도이며 성벽높이는 2~2.5m내외이다. 외성은 석축하였으며 평면은 동서가 약간 긴 장방형을 기본형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북동사면의 지맥 영향으로 북동회절부가 남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다. 즉 성벽은 남벽, 동벽, 북벽을 능선이 감싸돌고 있으며 서벽부는 계곡을 막아 축조되어 있다. 둘레는 582m이며 외벽 높이는 4~5m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시설물로는 추정건물지 7개소, 장대지, 추정동문지와 적대, 추정수구지, 동·서·북치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北雉城 하단부에는 초생달모양의 토루가 삼중으로 겹을 이루고 있다.

다. 採集遺物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류와 회흑색연질, 회청색경질의 격자문·승문·승석문 등이 시문된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가 채집되었다[20].

19) 성벽은 1970년대 후반 석산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허가를 받아 해창리 제방 공사시 대규모로 반출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석축 성벽의 석재 반출로 인하여 뒷채움석의 일부분만이 지표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자료에는 토성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20) 京畿道博物館, 앞의 책, 314~322쪽.

Ⅳ. 百濟山城의 分布와 特徵

지금까지 경기남부지역의 안성천·아산만 일대 백제산성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안성천·아산만 일대 백제산성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안성천·아산만일대 백제산성 현황[21]

번호	유 적 명	높이(m) 해발	높이(m) 비고	규 모 (m)	평 면 형 태	형 식	축 조 방 법	주변하천 (방향)	출토유물	비 고
1	비봉산성 내성 중성 외성	186	136	714 694 1,656	타원형 타원형 부정형	테뫼식 테뫼식 포곡식	석축 석축 토축	안성천 (동→서)	타날문토기	후대사용
2	무양산성 내성 외성	208.8	133	440 850	타원형 부정형	테뫼식 포곡식	석축 토축	안성천 (동→서)	타날문토기	후대사용
3	진사리산성	57.4	32	300	타원형	테뫼식	토축	안성천 (동→서)	타날문토기	
4	지제동산성	56.1	31	220	타원형	테뫼식	토축	동고천 (북→남)	무문·타날 문토기	
5	백봉리산성	61.5	36	220	타원형	테뫼식	토축	진위천 (북→남)	경질무문· 타날문토기	
6	기산리산성	83	53	250	타원형	테뫼식	토축	도대천 (북→남)	경질무문· 타날문토기	
7	무성산성	104.7	64	547	ㅓ자형	테뫼식	토축	발안천 (동→서)	무문·타날 문토기	후대사용
8	자미산성 내성 외성 부성	110.8	55	240 582 320	반월형 방 형 타원형	테뫼식 테뫼식 테뫼식	토축 석축 토축	발안천 (동→서)	무문·타날 문토기	후대사용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백제산성의 분포, 입지, 축조위치, 규모와 평면형태, 축조재료와 방법, 주변유적과의 관계, 출토유물 등으로 나누어 제반유형과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21) 海拔은 지형도마다 차이가 있어 基本圖인 1/5,000 地形圖를 참고하였으며 比高는 城內로 進入하기에 가장 쉬운 地形(平地)의 해발 높이를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첫째, 山城의 分布는 5~8km의 範圍에 일정한 間隔을 유지하면서 安城川 北岸을 따라 배치되고 있다. 각 산성에서 인접되는 산성과의 직선거리를 계측하여 보면, 비봉산성과 무양산성은 9km, 무양산성과 진사리산성은 6km, 진사리산성과 지제동산성은 7.5km, 지제동산성과 백봉리산성은 6km, 백봉리산성과 자미산성은 5km, 백봉리산성과 무성산성은 5.5km, 자미산성과 기산리산성은 7.6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이들 산성간의 직선거리는 대부분 5~8km 정도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유적을 엇갈리는 형태로 계측하였을 때, 비봉산성과 진사리산성은 11.5km, 백봉리산성과 기산리산성은 11.2km 등 비교적 긴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거리는 水路를 이용한다면 짧은 시간안에 이동하기 용이한 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산성은 安城川·振威川·牙山灣과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무성산성과 자미산성은 1km의 지근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는 남북방향의 소하천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서해안과 아산만·남양만 방면의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던 흔적으로 생각된다. 이 두 산성의 남과 북으로는 牙山灣으로 대반천이 흐르고 있으며 북으로는 南陽灣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다. 즉 무성산성과 자미산성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흐르는 이들 하천이 발원하고 있다. 산성은 두 하천이 이어지지 않는 공백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좀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이 두산성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흐르는 하천이 自然防禦線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두 산성은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는 關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론은 현재 남아있는 慈美山城과 琵琶山城 사이의 서낭고개-大東輿地圖에는 琵琶峴으로 기록-가 조선시대까지 충청도에서 아산만을 건너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山城의 立地는 安城川과 그 支流의 合流地點에 위치하고 한결같이 지류의 西岸에 축조되고 있다. 비봉산성은 안성천의 북안에, 무양산성은 지류인 한천 서안에, 진사리산성은 안성천 북안과 지류 서안에, 지제동산성은 안성천 북안과 동고천 서안에, 백봉리산성은 진위천서안에, 기산리산성은 도대천 서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

러나 무성산성과 자미산성은 水路로 이용하기 힘든 小河川만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다른 백제산성의 입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河川方向으로 突出된 丘陵地帶에 위치하여 河川과 直接 連結할 수 있는 地點에 자리한다는 점이다. 飛鳳山城은 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을 통하여 안성천에 연결된다. 芝制洞山城은 동쪽으로 돌출된 구릉위에 축조되어 동고천에 직접 연결되고, 栢峰里山城은 낚시바늘의 끝부분 모양으로 돌출한 말단부 구릉위에 축조되어 진위천에 직접 연결되고, 岐山里山城은 동쪽으로 돌출한 구릉위에 축조되어 도대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水路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변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수로는 交通路로서 이용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으며 水源確保와 防禦側面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산성이 테뫼식의 소규모 산성이므로 성내에 샘이나 우물들이 조성되지 못하고 수자원이 부족하여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성외에 취락지가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水資源確保는 절대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성내정상부에 저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저수시설이 조사된 예로는 천안 백석동토성·용와산성,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군창지 테뫼식산성 등이 있다. 그리고 방어측면에서도 육로를 통하여 침입하는 적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자연적인 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요컨데 이들 산성들의 위치가 하천과 인접하여 용수확보에 유리하며 자연해자와 교통로로서 수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셋째, 山城의 位置는 丘陵地와 山地에 따라 海拔 100m를 中心으로 分類될 수 있으며 比高는 70m를 分岐點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比高는 다시 30~40m와 50~70m로 2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산지에 축조된 비봉산성·무양산성은 海拔 200m 내외에 比高 130m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구릉지에 축조한 진사리산성·지제동산성·백봉리산성은 海拔 60m 내외에 比高 30~40m를 나타내며, 기산리산성·무성산성·자미산성은 海拔 80~110m 내외에 比高 50~70m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진사리산성·백봉리산성 등의 海拔 높이는 60m 내외로 낮을 지언정 평야·구릉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 조망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자미산성에서 시계가 좋으면 태안마애삼존불이 위치한 백화산성까지 조망되고 있다.

規模에 있어서도 比高 70m이하의 구릉지에 축조된 산성은 둘레 220~300m의 비교적 小規模 土城으로 平面은 等高線 方向과 유사하게 돌아가는 圓形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구릉지와 산지에 축조한 산성은 比高에 있어서도 1 : 3.2~4.3과 1 : 1.7~2.6의 比率을 나타내어 2~4배 정도의 높이差를 알 수 있다. 충남지역의 산성의 경우 비고 50m 이하의 낮은 구릉위에 위치한 소규모 토성은 住居防備를 위한 初期 城郭의 形態로 보았는데[22] 충남지역의 백제산성 경우 4가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안성천유역에 위치한 산성은 비고 70m를 분기점으로 나타나 일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여도 기본적인 성격파악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산성의 築造材料는 丘陵性山地와 山間地帶에는 石築을 위주로, 丘陵地帶와 沖積地에는 土築을 위주로 하여 축조하였다. 안성천 상류에는 丘陵性 山地와 山間地帶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비봉산성과 무양산성과 같이 石築을 주로하여 축조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하류와 아산만 방면으로는 丘陵地帶와 沖積地가 넓게 펼쳐져 있어 진사리산성·백봉리산성·기산리산성 등과 같이 土築을 위주로 축조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요인이 土築과 石築이라는 축조재료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지역에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축조된 석정리장성·비파산성·용성리성·농성 등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반영되고 있다.

이와같은 축조재료의 차이를 자연환경적인 조건보다는 지역이나 국경문제와 결부하여 분류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충남지역의 경우, 내륙지역에는 주로 土城이

22) 충남지역의 백제산성 경우 4가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Ⅰ유형 : 比高 50m 이하의 낮은 구릉위에 위치한 소규모 토성으로 주거방비용.
제Ⅱ유형 : 比高 100m 내외의 山頂에 자리잡은 산성으로 戰鬪用.
제Ⅲ유형 : 제Ⅱ유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石城으로 築造.
제Ⅳ유형 : 제Ⅲ유형과 같으며 평면형태가 삼태기형으로 行政中心地.
徐程錫, 「忠南地域 百濟山城에 관한 一硏究」, 『百濟文化』 22,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硏究所, 1992, 125~126쪽.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三國間의 경계지역이었다고 여겨지는 그 외곽지대에는 대체로 石城들이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성곽의 분포면에서 찾아지는 이러한 토성과 석성간의 분포상의 차이는 백제의 방어체제뿐만 아니라 백제사회 내부의 한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충남의 내륙지역에 분포하는 토성들과 청동기시대 이래로 이 지역에 세력기반을 구축한 토착세력들과는 많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이처럼 토성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고구려 신라와는 달리 그만큼 백제사회는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이 느슨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23].

다섯째, 축조유형은 테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은 테뫼식(山頂式·鉢圈式)과 包谷式 그리고 이들이 결합된 複合式으로 축조유형을 분류한다. 테뫼식은 산의 정상부근을 테를 두르듯 성벽을 에워싼 모양을 가리킨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은 소규모이고, 특별한 附帶施設을 갖추지 않고 있다. 문지도 1~2개소 정도이고 성내외의 출입은 능선부를 이용한다. 성내에 샘이나 우물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 조망이 잘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산성의 경우 8개소 중 6개소가 단일한 테뫼식산성이며 비봉산성과 무양산성만이 테뫼식과 포곡식을 함께 가지는 二重 또는 三重의 平面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후에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이들 산성이 중요거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修改築된 결과로 생각된다.

여섯째, 土築方法은 斷面形態에 따라 볼록하게 土壘를 조성한 夾築式과 ㄱ자형으로 段을 이루는 片築式으로 나눌 수 있다. 夾築式의 예로는 비봉산성·진사리산성·무성산성 등이 있으며 片築式은 백봉리산성·지제동산성·기산리산성·자미산성 내성 등이 있다. 점유율은 협축식이 40%이며 편축식이 60%를 보이고 있다. 축조방법에 있어 협축식과 편축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시기적인 차이 보다는 주변유적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성외 능선부에 遺物散布地(聚落址)가 넓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편축식을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23) 徐程錫, 위의 논문, 116쪽.

않은 경우는 협축식으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채집유물이 동일시기로 나타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예컨데, 무성산성의 남벽파괴부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류와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가 지제동산성·기산리산성·자미산성 등에서도 같은 유물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형적인 조건이 축조방법을 결정하여 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夾築式과 片築式은 선후관계가 구분되지 않고 동일시기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片築式의 축조방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최근들어 발굴조사한 天安 白石洞土城[24]·公州 水村里土城[25]·진안 와정토성[26] 등이 있다.

일곱째, 산성의 주방어 방향은 出入處와 高險處의 관계[27], 성외 유물산포지와 인접하천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성의 출입처와 고험처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비봉산성은 계곡부가 동쪽으로, 고험처가 서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무양산성 내성은 계곡부가 동쪽으로, 고험처가 서·북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외성은 고험처가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어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 주방어 방향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진사리산성·지제동산성·백봉리산성·기산리산성은 북쪽과 동쪽을, 무성산성·자미산성은 북쪽과 서쪽을 주방어 방향으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안성천유역의 산성 중 백제시대에만 이용된 산성은 북쪽과 동쪽을 주방어 방향으로 하였으며 후대에 재사용된 산성은 북쪽과 서쪽을 방어방향으로 하였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주방어방향은 역사적인 배경과 결부하여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성과 성외 유물산포지를 비교하여 보면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성외 산포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외 유물산포지는 성내 정상부에서 흘러내리는 가지능선의 정상부상에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진사리산성은 남동쪽능선상에, 백봉리산성은 남쪽능선상에, 기산리산성은 동남쪽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관계, 당시의 산성과 취락이 함께 조성되어졌음을 보여준

24) 李南奭, 「天安 白石洞遺蹟(山城)」, 『第40回 全國歷史學大會發表要旨』, 第40回 全國歷史學大會準備委員會, 1997, 353~365쪽.

25) 신영호, 「공주 수촌리토성 발굴조사개보」, 박물관신문 1997, 국립중앙박물관.

26) 盧美善, 「진안 와정 토성 유적」, 『湖南地域의 靑銅器文化』, 湖南考古學會, 1999, 159~172쪽.

27) 車龍杰, 「淸州地域 百濟系山城의 調査硏究」, 『百濟論叢』2,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90.

다. 즉 독립된 구릉의 정상부에는 소규모의 산성이 축조되어 있으며 산성주변의 가지능선상에 취락지가 함께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지는 산성의 주방어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북쪽의 적을 대하려면 산성의 남쪽이나 동남쪽에 취락지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이는 성의 기능과도 관련지어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산성 주변의 관련유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백제산성 주변유적 현황표[28]

유 적 명	성 격	관련산성	비 고
인지동유적	분묘	비봉산성	매장문화재 신고유물
승두리유적	취락지	진사리산성	유물산포지
지제동유적	취락지	지제동산성	유물산포지
백봉리유적	취락지	백봉리산성	유물산포지
현화리유적	분묘·토기요지	자미산성	충북대 발굴조사
기산리유적	취락지	기산리산성	유물산포지
대추리유적	취락지		유물산포지
원정리봉수대패총	패총		

여덟째, 채집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류와 경질무문토기류, 타날문토기류 등의 백제시대 토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29]. 무문토기류는 지제동산성·무성산성·자미산성에서 채집되었으며, 기산리산성·백봉리산성·대추리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류가 수습되었다. 타날문토기류는 백제산성 전반에 걸쳐 채집되고 있다. 이들 토기편은 호편·옹편·심발형토기편·시루편 등의 기종으로 분류되며, 문양은 승문, 승석문, 유사승석문, 격자문, 사격자문으로 나누어 진다. 연질과 경질의 비율은 연질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28) 승두리·지제동·백봉리·기산리·대추리유적 등의 유물산포지는 지형여건과 유물이 산포하는 정황으로 보아 취락지로 여겨지며 채집되는 유물이 무문토기단계에서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단계까지 공반되고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 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적이다.

29) 중서부지방에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사용되었던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2~1세기에서부터 기원후 3~4세기의 범위에 해당한다.

30) 京畿道博物館, 「平澤 關防遺蹟 精密地表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1999.

그 중 자미산성에서는 평택 관방유적 정밀지표조사[30]시 채집된 토기편 중 유사승석문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玄華里遺蹟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성유적과 고분유적이 어느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편년문제는 이들 유물상으로 보았을 때 자미산성과 현화리유적은 다른 백제산성보다 시기적으로 약간은 늦은 편년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의 산지는 鎭川 三龍里·山水里 窯址[31]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安城川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수급관계와 이동경로에 대하여는 보다 자료가 증가하면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족문토기는 자미산성의 내성과 현화리유적에서 채집되었다. 이러한 조족문토기류가 출토되는 유적으로는 평택 현화리유적, 안성 망이산성[32]·이천 설봉산성[33]·충주 장미산성[34]·청주 신봉동유적[35]·증평 이성산성[36]·용인 수지 백제주거지[37] 등 초기백제와 관련되는 유적에서 공히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조족문과 관련되는 유물로는 조문기와가 있는데 표현수법과 시대는 달리하고 있으나 새무늬를 기본으로 채택하였다는 공통성이 있다. 조문기와는 덕목리성·자미산성·망이산성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安城川을 중심으로 하는 地域的인 特色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채집유물을 통하여 산성의 사용시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1) 崔秉鉉·韓淑嬉, 「鎭川 三龍里遺蹟 發掘調査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6.
崔秉鉉, 「忠北 鎭川地域 百濟土器 窯址群」, 『百濟時代의 窯址硏究』, 崔夢龍·崔秉鉉 編, 1988 ; 『新羅古墳硏究』, 一志社, 1992.
韓南大學校 博物館, 『百濟土器窯址特別展』, 1993.

3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1996.

3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2차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1999.

34) 車勇杰·禹鍾允·趙詳紀, 『中原 薔薇山城』,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2.

35) 이융조·차용걸, 『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1982年度調査』,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
車勇杰 外, 『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1990年度調査』,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0.
金成明·申鍾煥·李在烈, 「淸州新鳳洞 B地區 2次發掘調査報告」, 『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3.
車勇杰·趙詳紀·吳允淑, 『淸州 新鳳洞 古墳群』,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5.
車勇杰·趙詳紀, 『淸州 新鳳洞 古墳群－1995年度調査－』,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6.

36) 忠淸專門大學 博物館, 『曾坪 二城山城』, 1997.

37) 한신大學校 博物館, 『龍仁 水枝 百濟住居址』, 1998.

〈표 3〉 채집유물로 본 유적의 사용시기

	삼국전기	삼 국	통일신라	고 려	조 선	비 고
비봉산성						
무양산성						
진사리산성						
지제동산성						무문토기편 채집
백봉리산성						경질무문토기편 채집
기산리산성						경질무문토기편 채집
무성산성						무문토기편 채집
자미산성						무문토기편 채집

V. 맺음말

이상에서 경기남부지역의 안성천·아산만일대에 위치한 백제산성의 분포와 제반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며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百濟山城의 分布는 5~8km의 範圍에 일정한 間隔을 유지하면서 安城川 北岸을 따라 배치되고 있다. 다만, 무성산성과 자미산성은 1km의 지근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는 남북방향의 소하천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서해안과 아산만·남양만 방면의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던 흔적으로 생각된다.

立地는 安城川과 그 支流의 合流地點에 위치하고 한결같이 지류의 西岸에 축조되고 있다. 이들 산성들의 위치가 하천과 인접하여 용수확보에 유리하며 자연해자와 교통로로서 水路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位置는 丘陵地와 山地에 따라 海拔 100m를 中心으로 分類될 수 있으며 比高는 70m를 分岐點으로 설정할 수 있다. 規模에 있어서도 比高 70m이하의 구릉지에 축조된 산성은 둘레 220~300m의 비교적 小規模 土城으로 平面은 等高線 方向과 유사하게 돌아가는 圓形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구릉지와 산지에 축조한 산성은 比高에 있어서도 1 : 3.2~4.3과 1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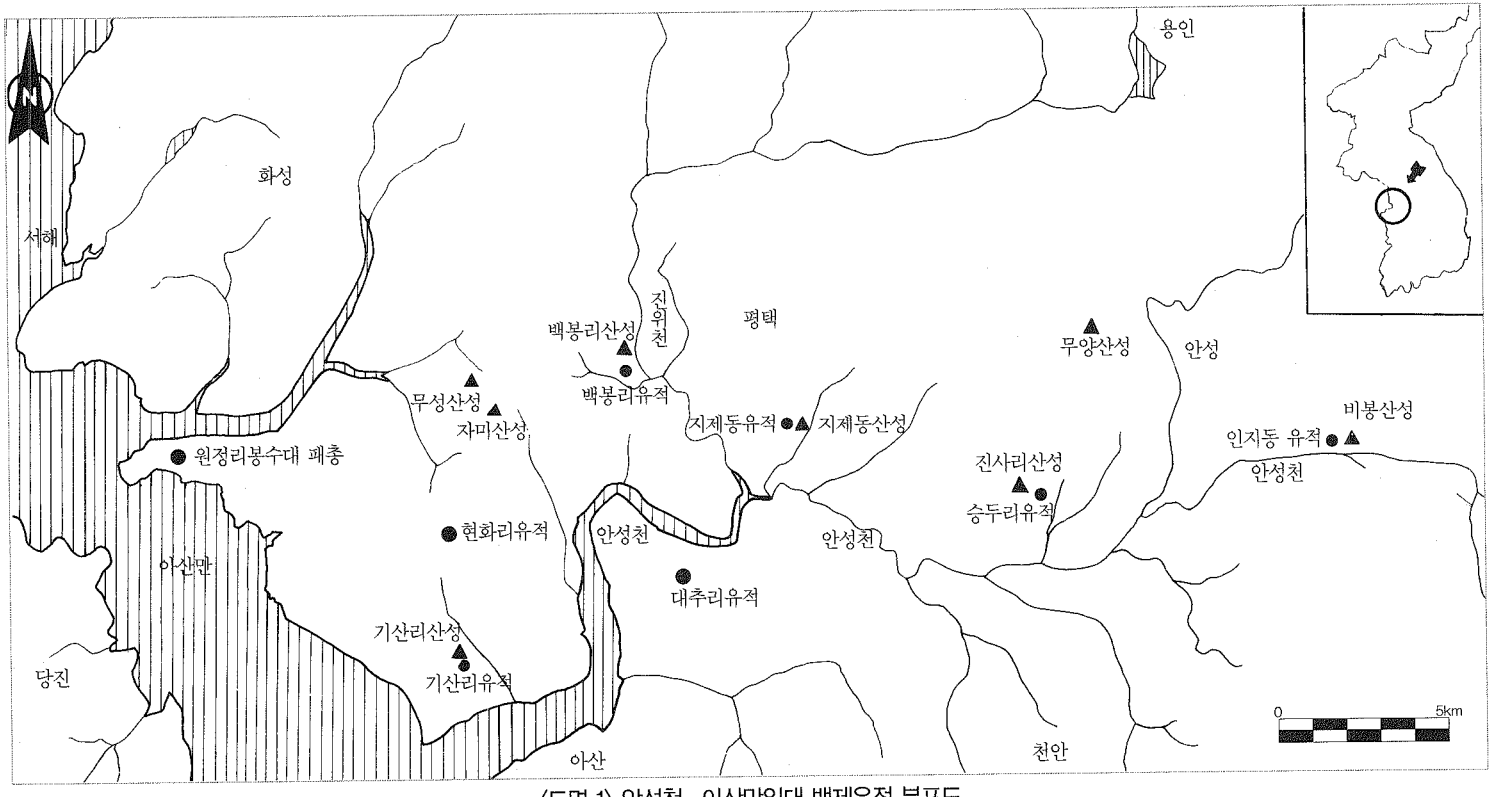
2.6의 比率을 나타내어 2~4배 정도의 높이差를 알 수 있다.

築造材料는 丘陵性山地와 山間地帶에는 石築을 위주로, 丘陵地帶와 沖積地에는 土築을 위주로 하였으며, 축조유형은 테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土築方法은 斷面形態에 따라 볼록하게 土壘를 조성한 夾築式과 ㄱ자형으로 段을 이루는 片築式으로 나눌 수 있다. 점유율은 협축식이 40%이며 편축식이 60%를 보이고 있다. 축조방법에 있어 협축식과 편축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시기적인 차이 보다는 주변유적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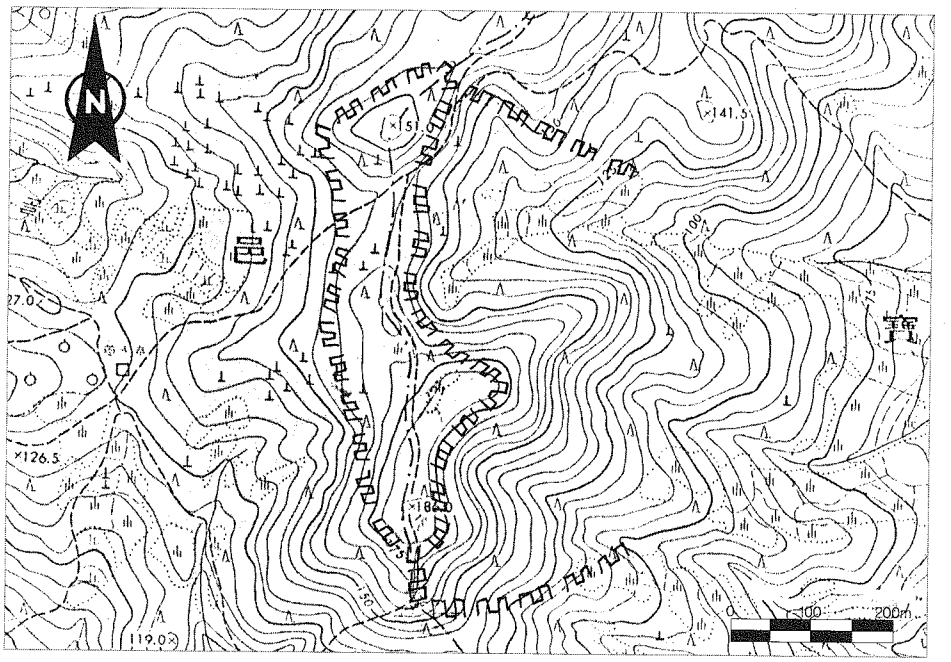
주방어 방향은 出入處와 고험처의 관계, 성외 유물산포지와 인접 하천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안성천유역의 산성 중 백제시대에만 이용된 산성들은 북쪽과 동쪽을 주방어 방향으로 하였으며, 후대에 재사용된 산성들은 북쪽과 서쪽을 방어방향으로 하였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주방어 방향은 역사적인 배경과 결부하여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채집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류와 경질무문토기류, 타날문토기류 등의 백제시대 토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삼국시대 전기는 우리역사에서 고조선으로부터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전환기적 위치에 속하며 삼국시대 정치체의 모태단계에 해당되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문헌자료의 영세성과 획득된 고고학자료의 지역적인 편중으로 인하여 한강·금강·영산강유역과는 달리 안성천·아산만 일대에 대한 제연구성과는 미진한 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백지역으로 남아있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문화차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만 삼국시대 전기 즉, 백제초기사는 체계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경기남부지역의 안성천·아산만일대에 국한하여 진행하였으나, 안성천·아산만과 인접한 천안·아산·당진·진천지역까지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지역 일대의 가려진 고대문화상을 복원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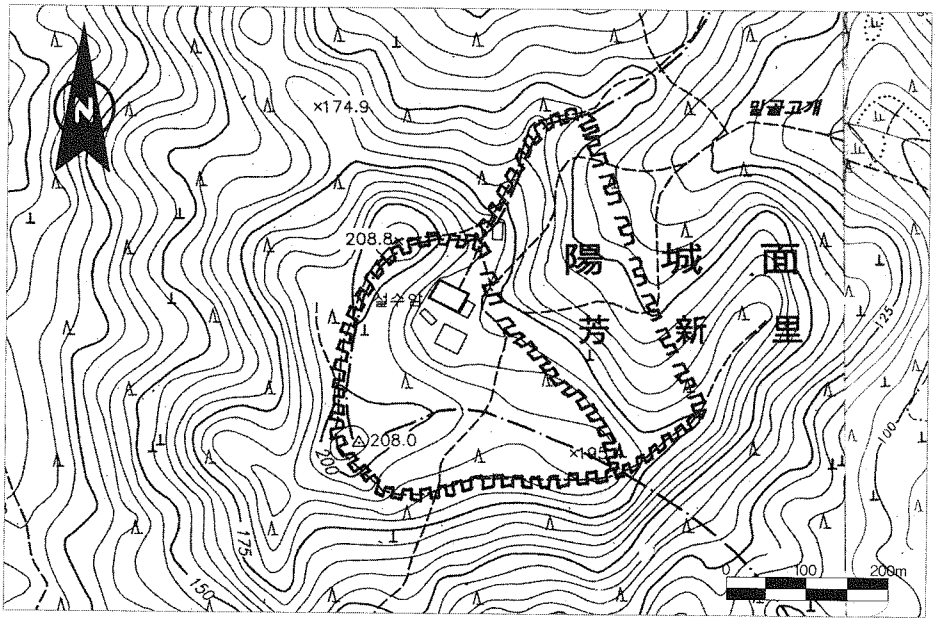
後期) 원고를 준비하는데 있어 김성환부장님과 현남주·한준영·한혜선님의 고마운 도움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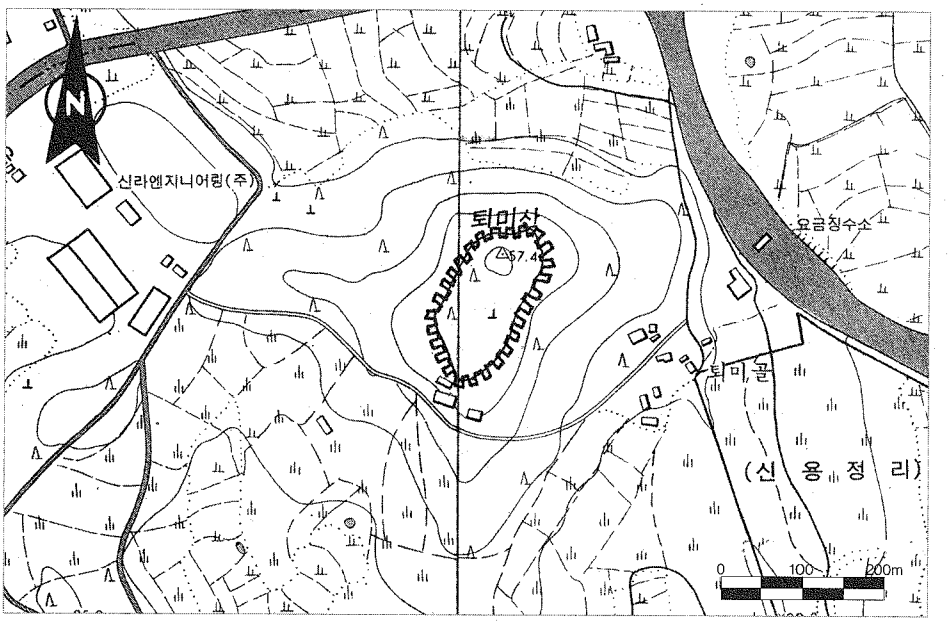
〈도면 1〉 안성천 · 아산만일대 백제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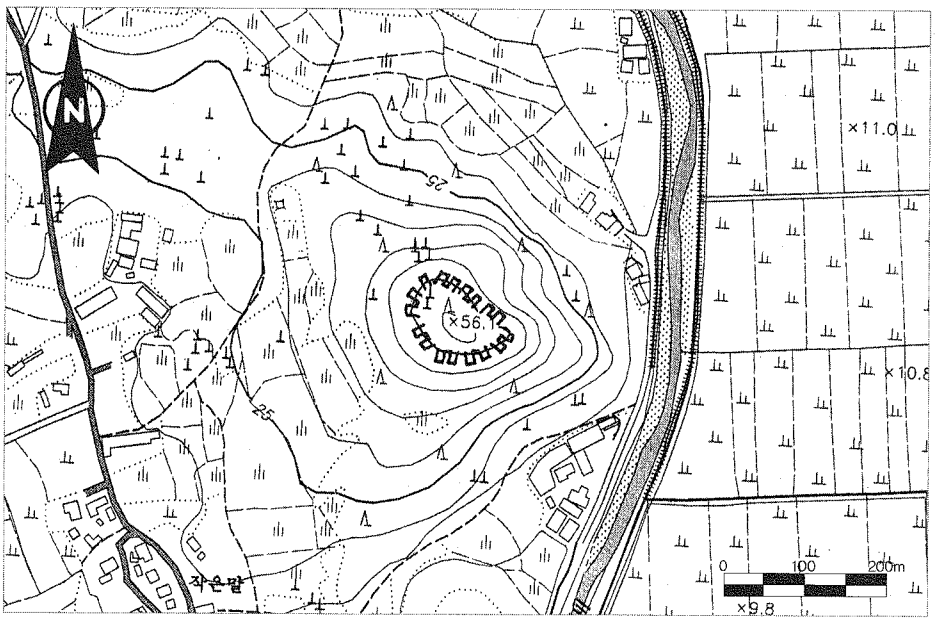
〈도면 2〉 비봉산성 위치도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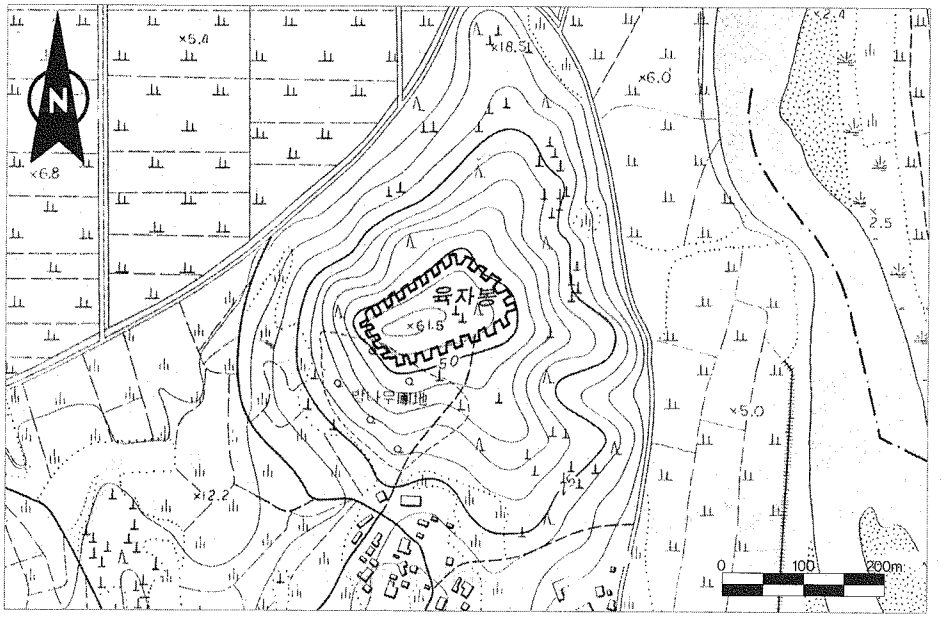
〈도면 3〉 무양산성 위치도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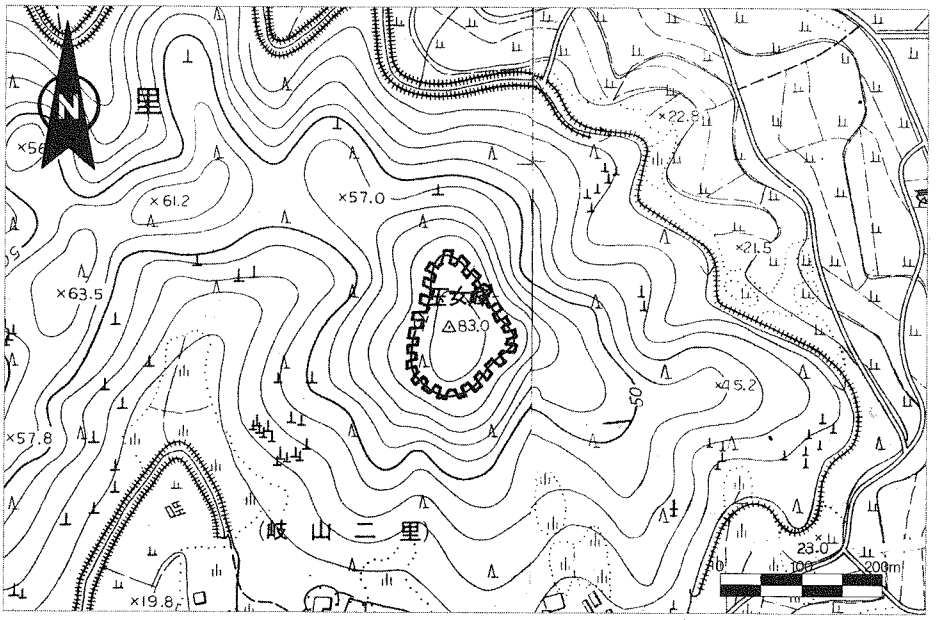
〈도면 4〉 진사리산성 위치도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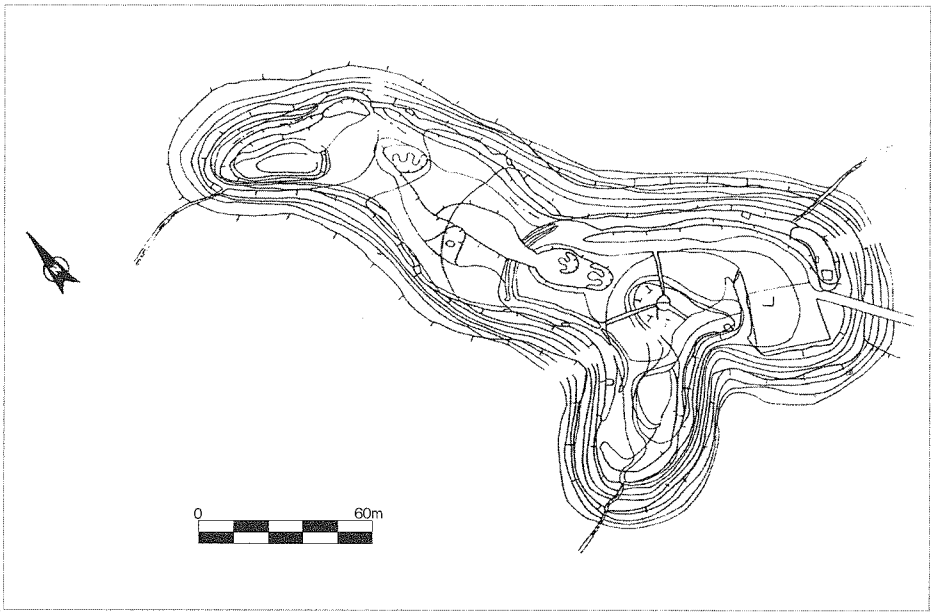
〈도면 5〉 지제동산성 위치도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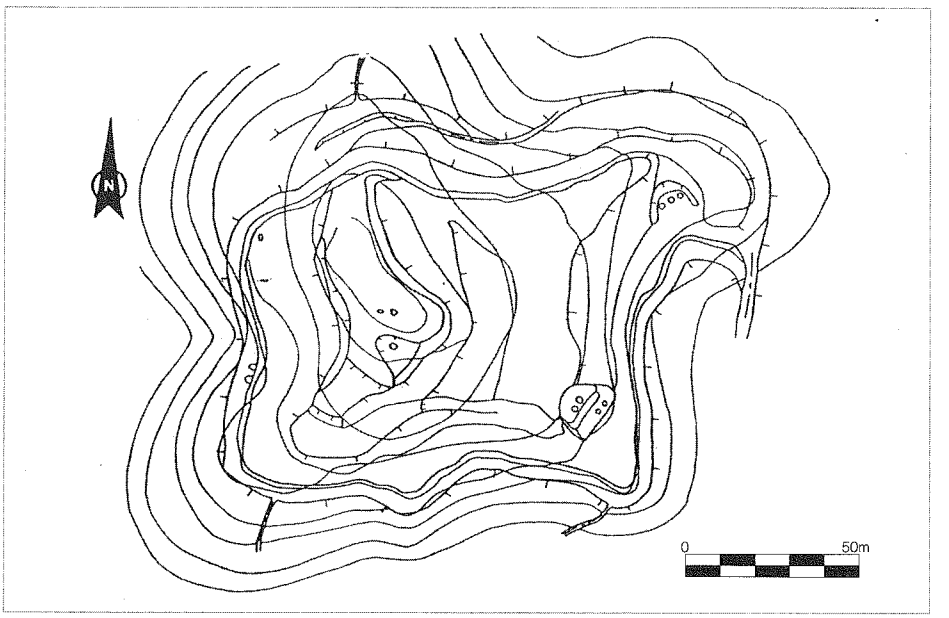
〈도면 6〉 백봉리산성 위치도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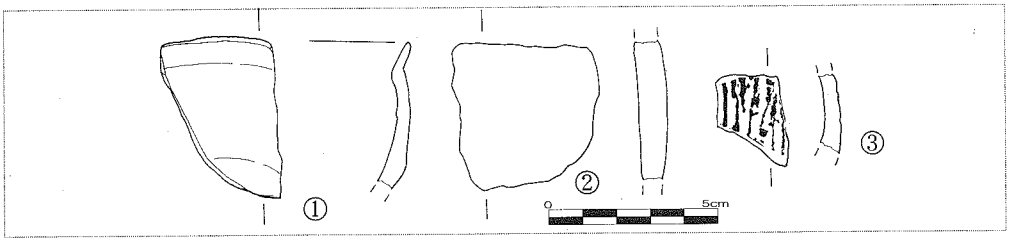
〈도면 7〉 기산리산성 위치도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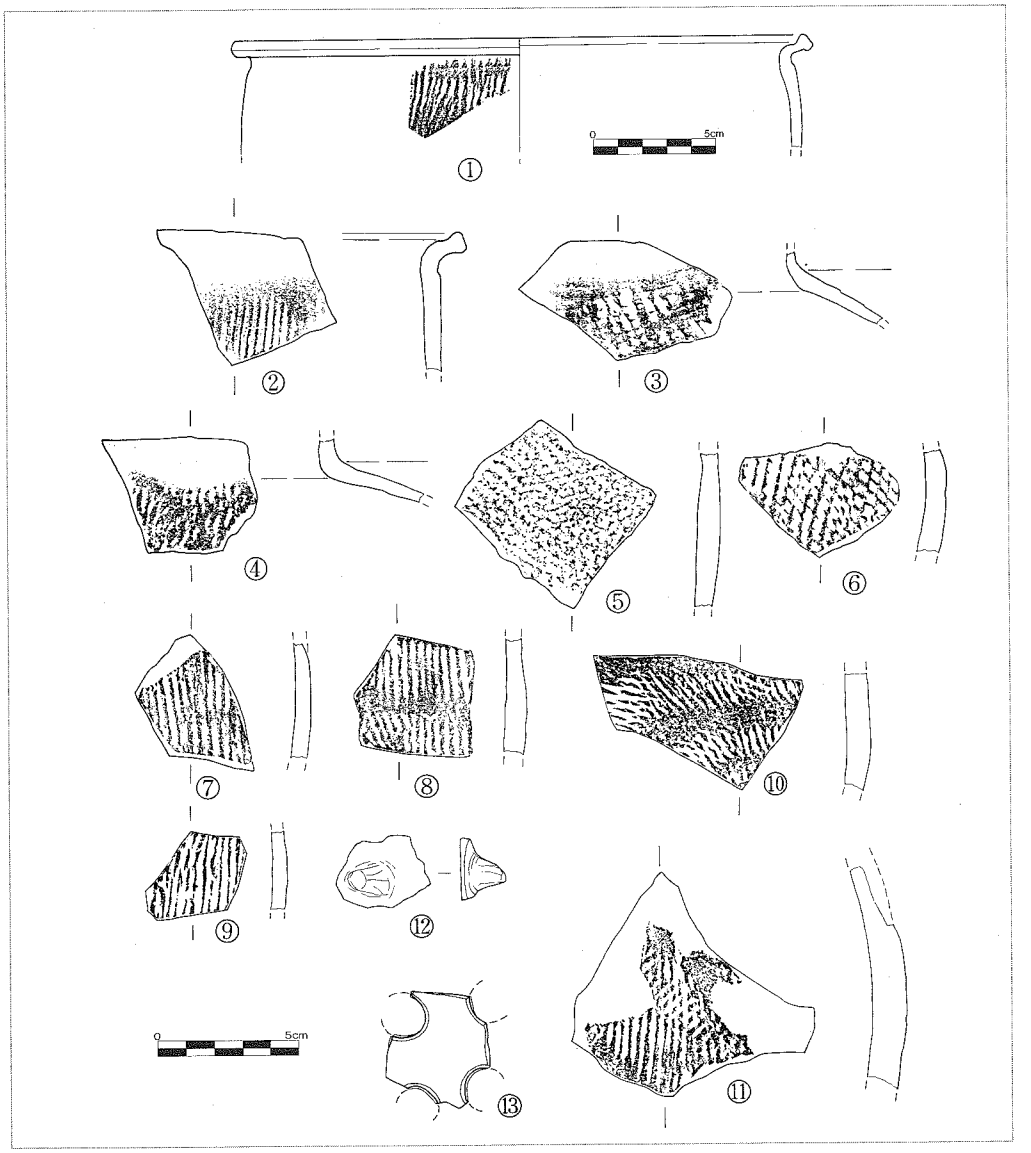
〈도면 8〉 무성산성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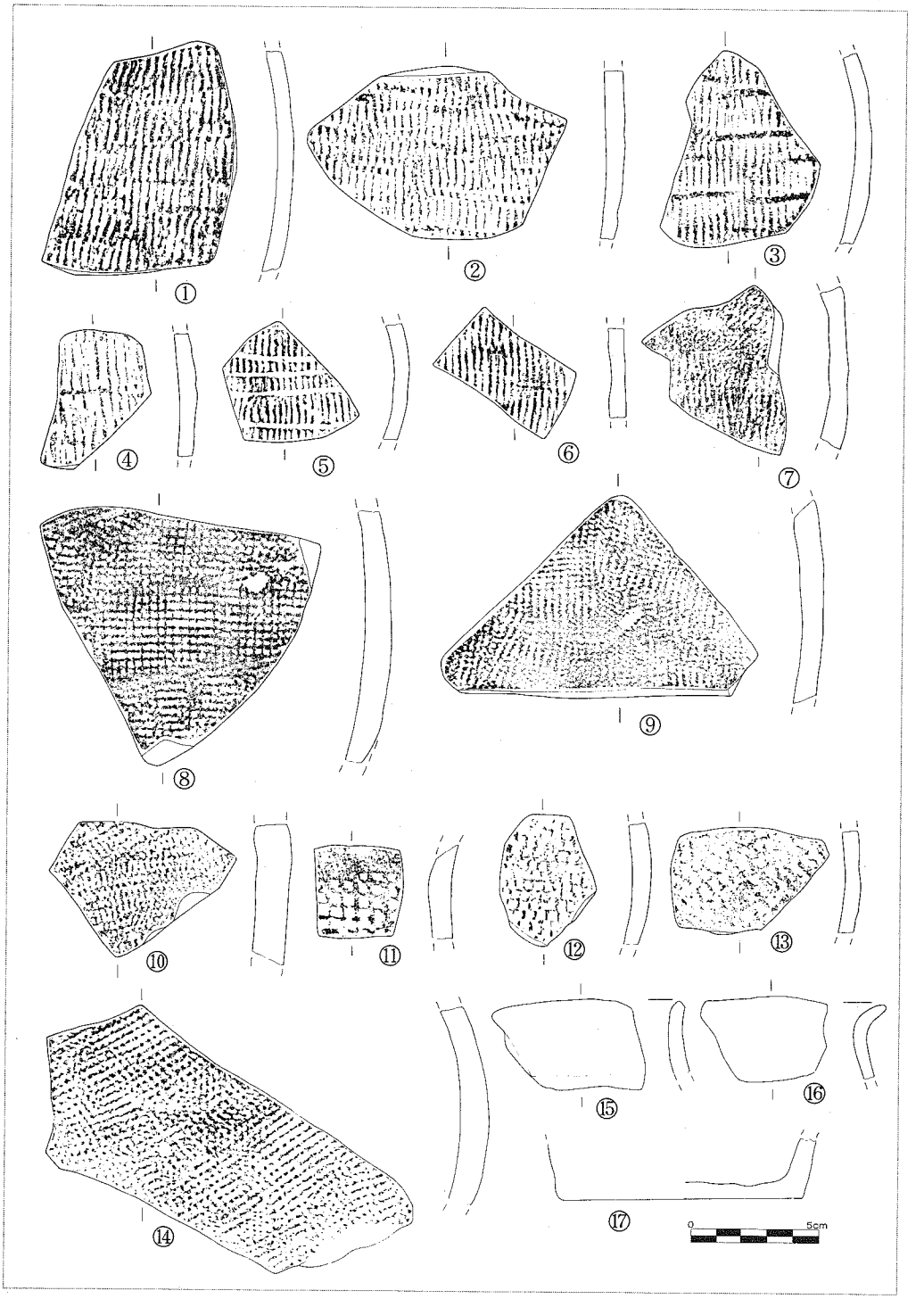
〈도면 9〉 자미산성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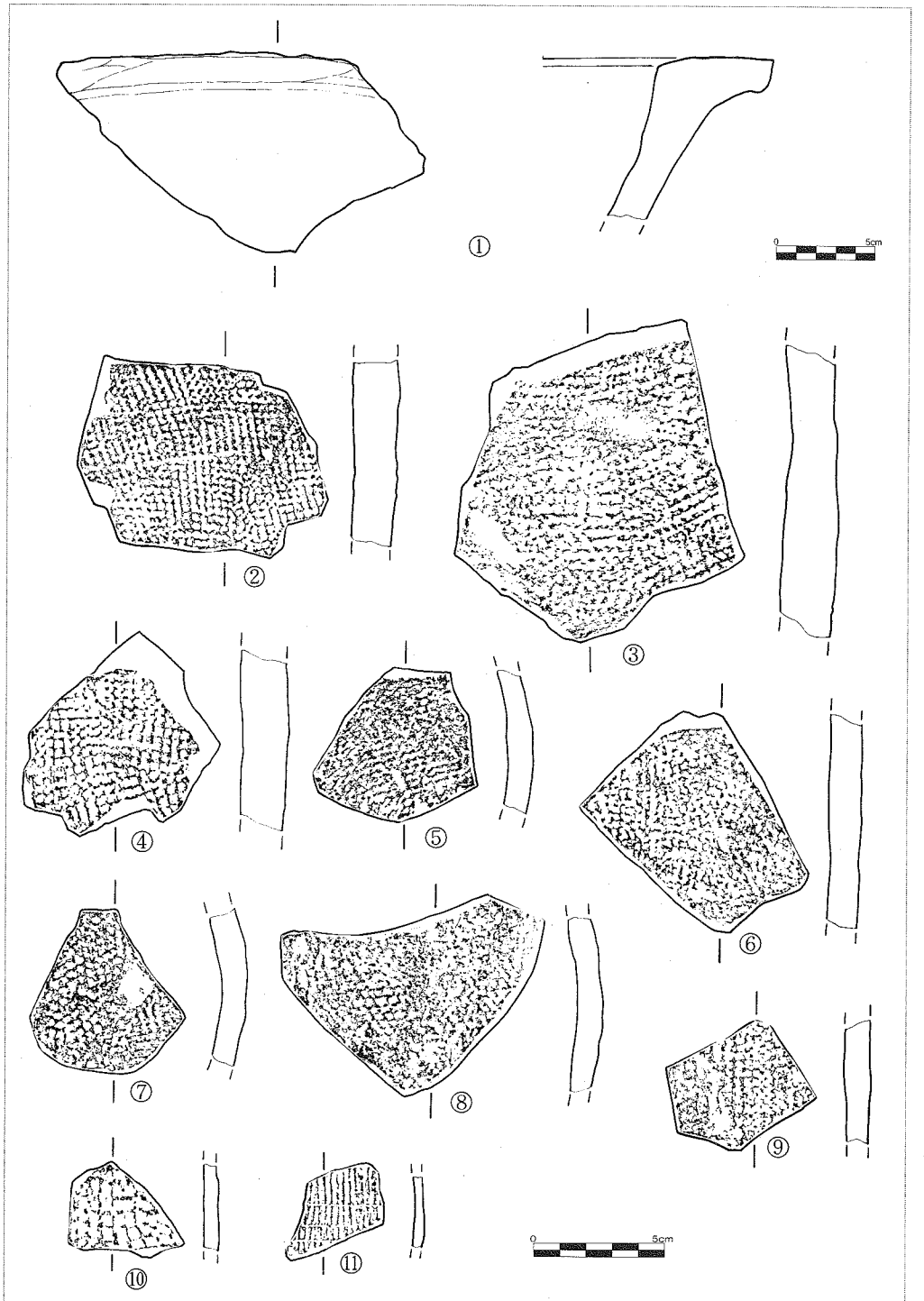
〈도면 9〉 비봉산성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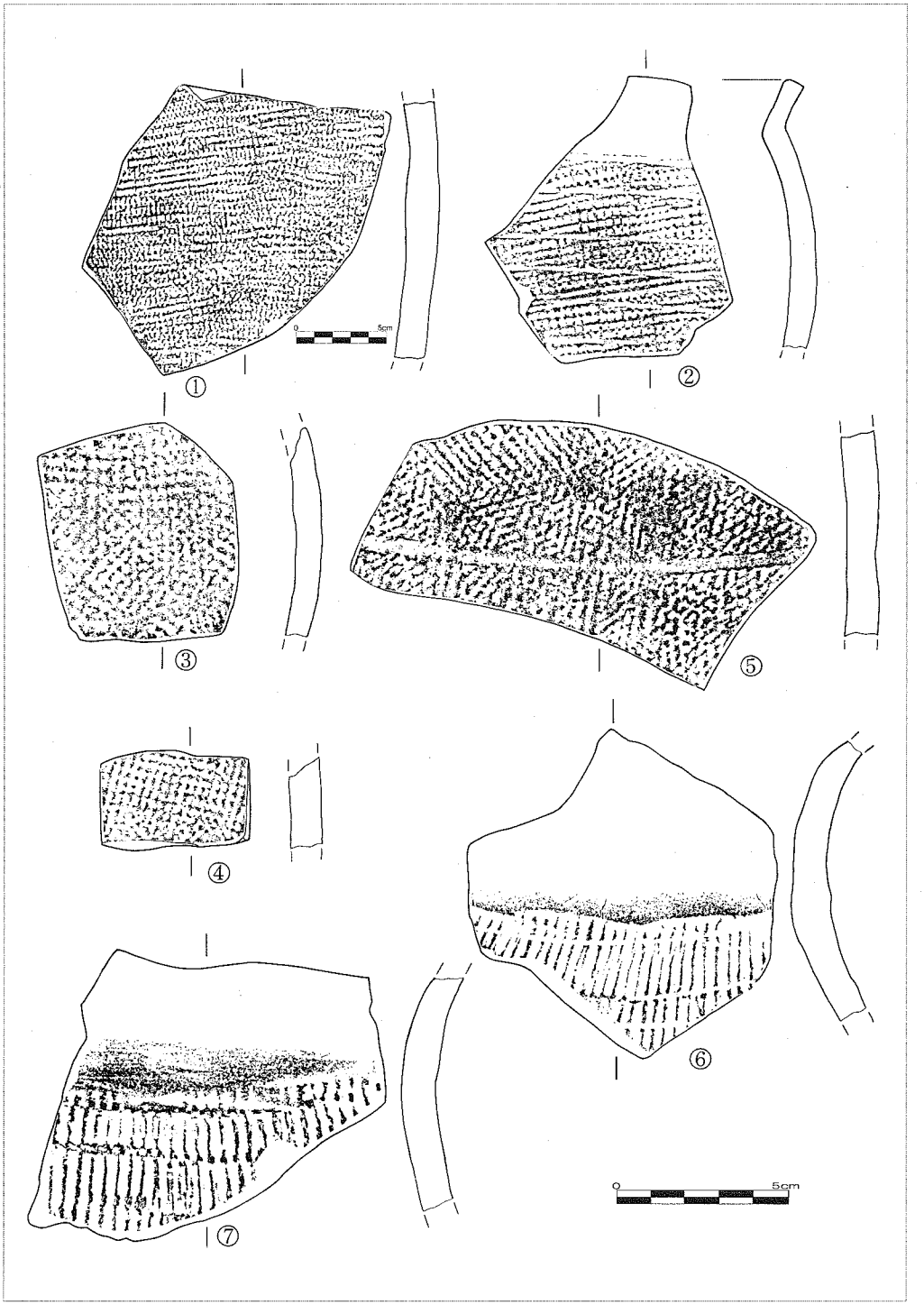
〈도면 10〉 무양산성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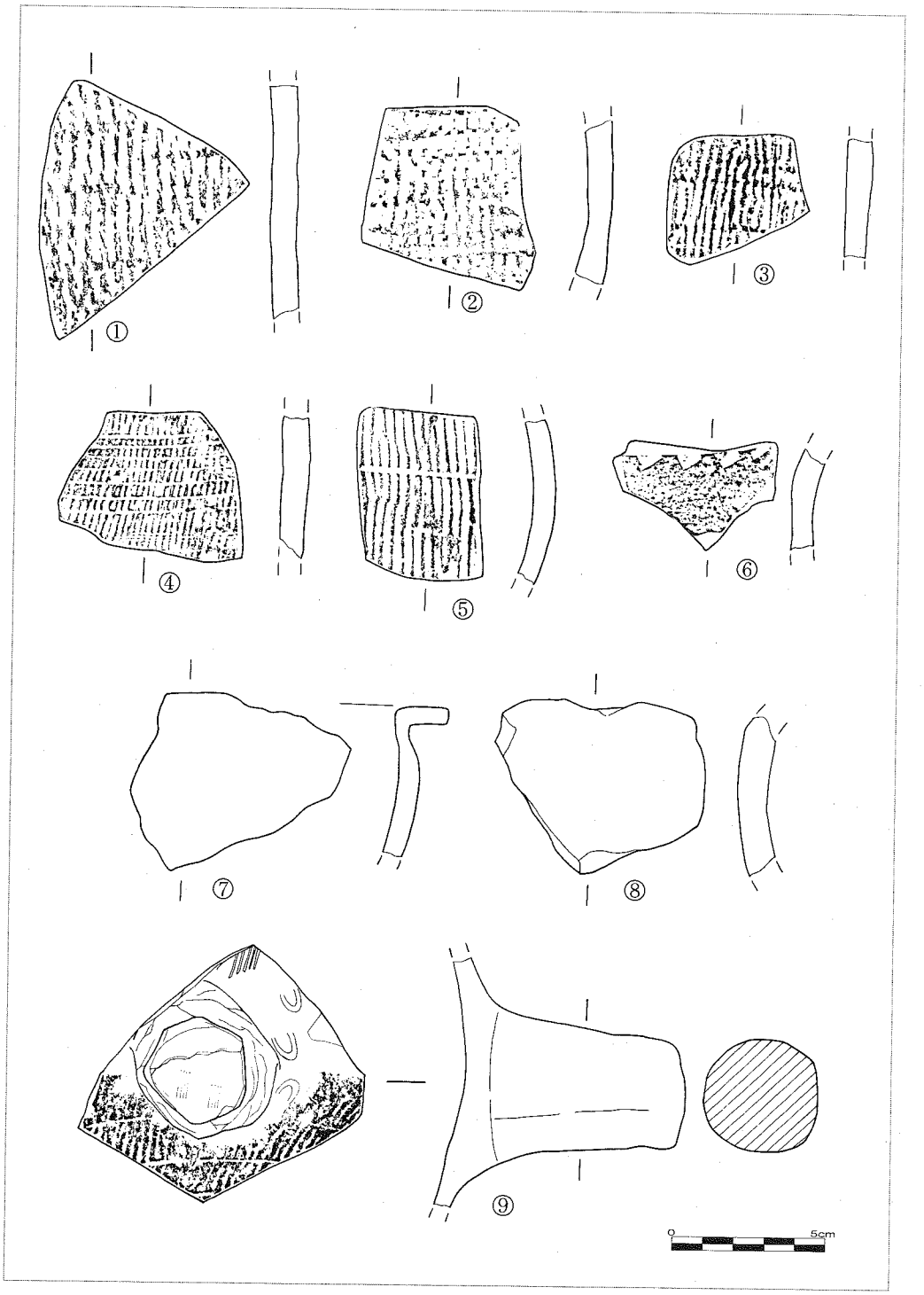
〈도면 11〉 진사리산성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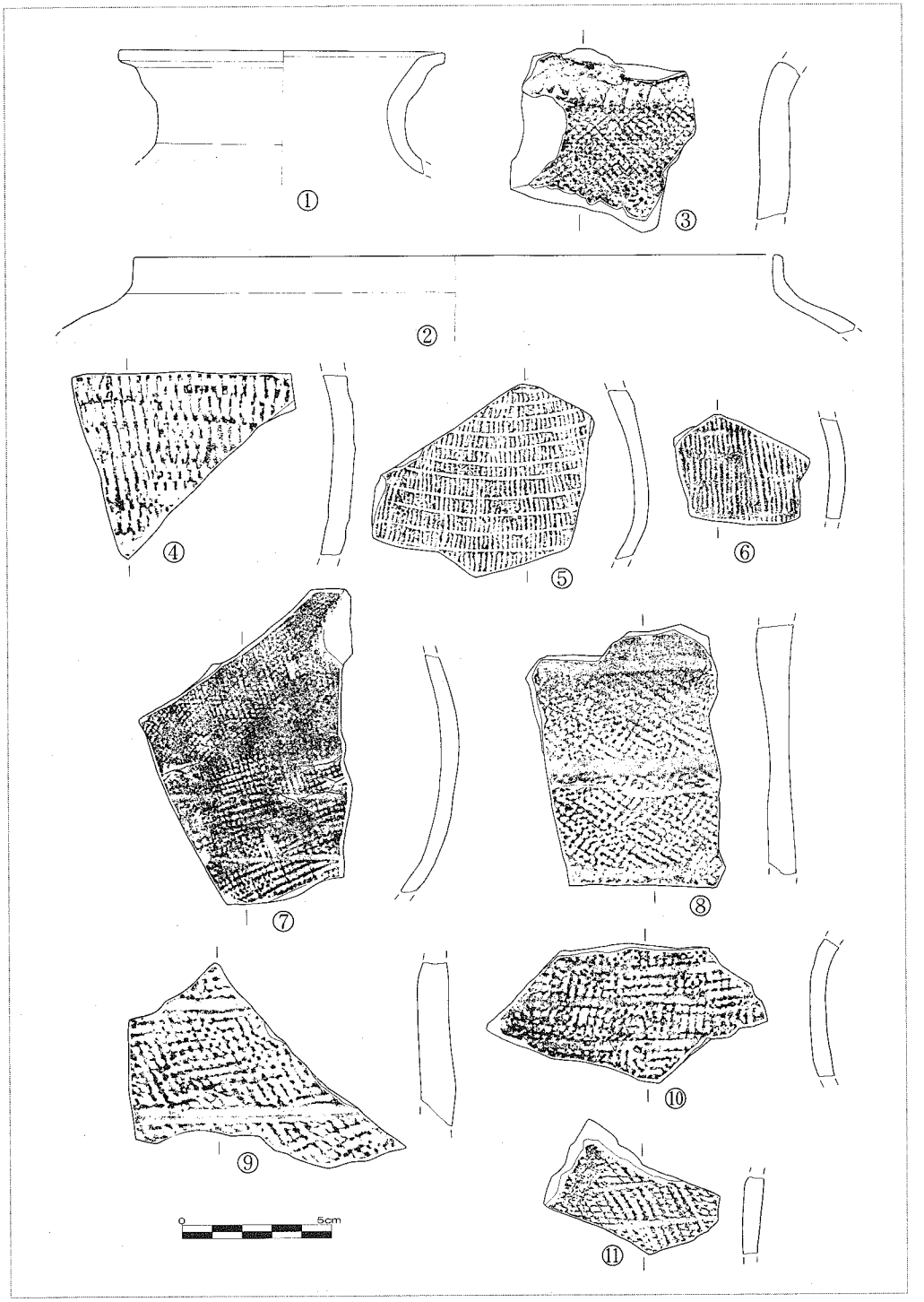
〈도면 12〉 지제동산성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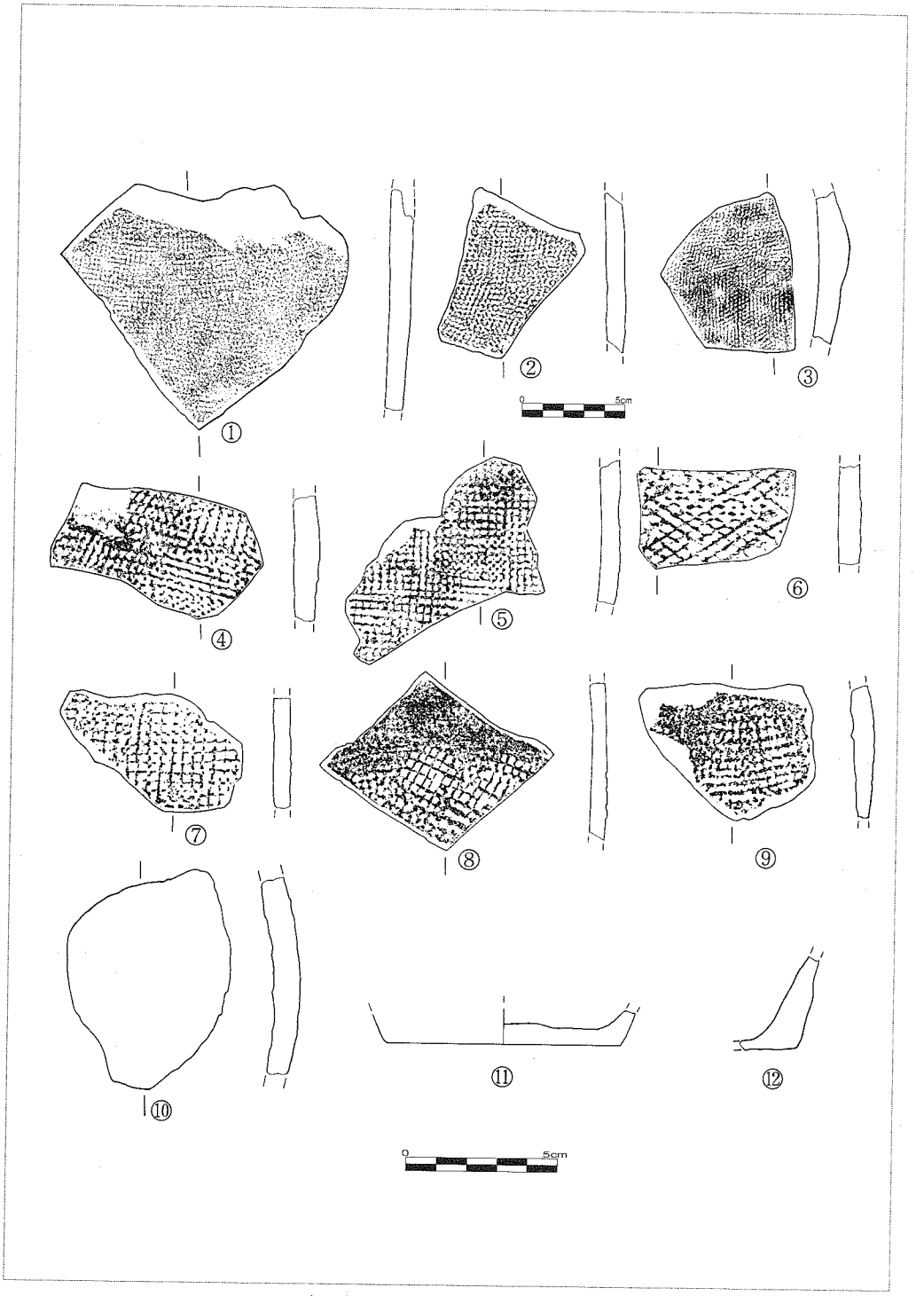
〈도면 13〉 백봉리산성 채집유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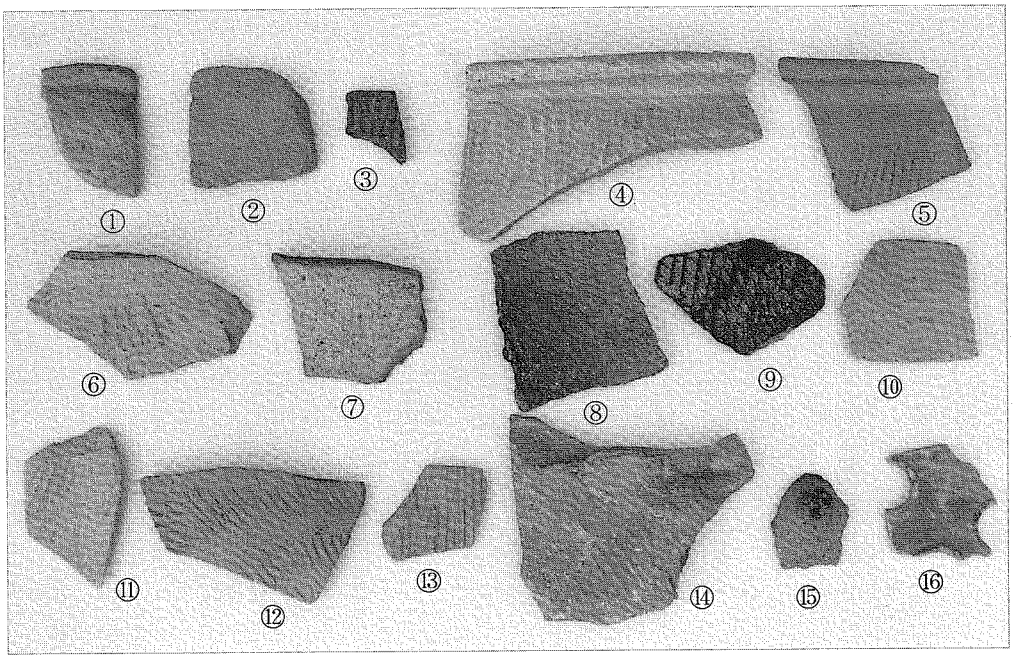
〈도면 14〉 백봉리산성 채집유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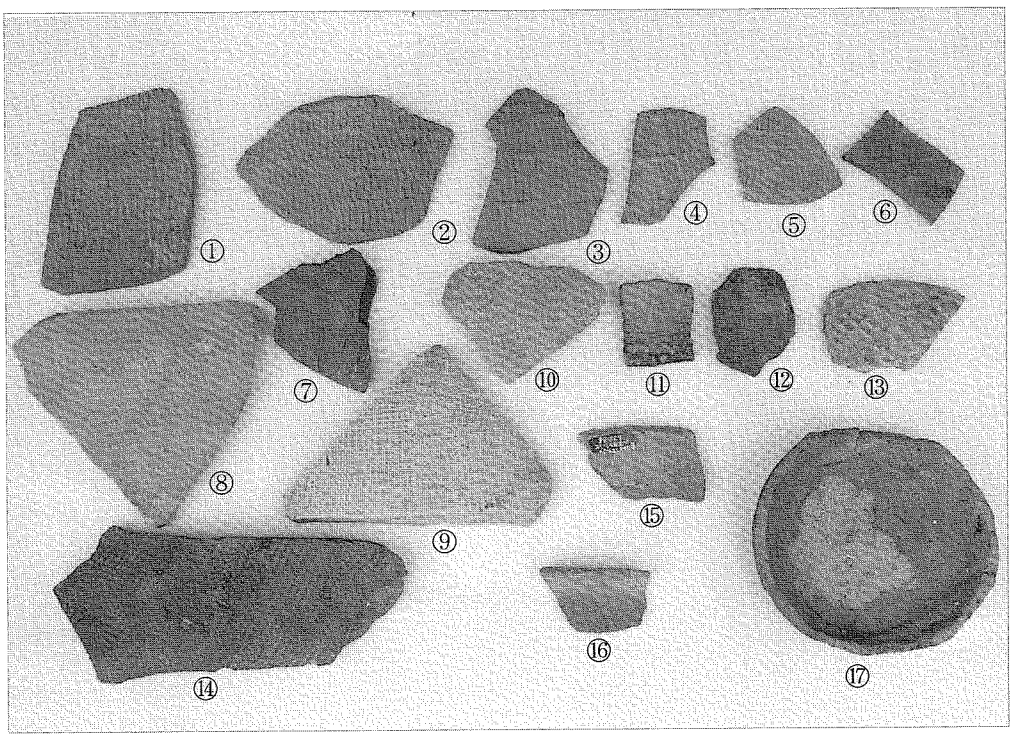
〈도면 15〉 기산리산성 채집유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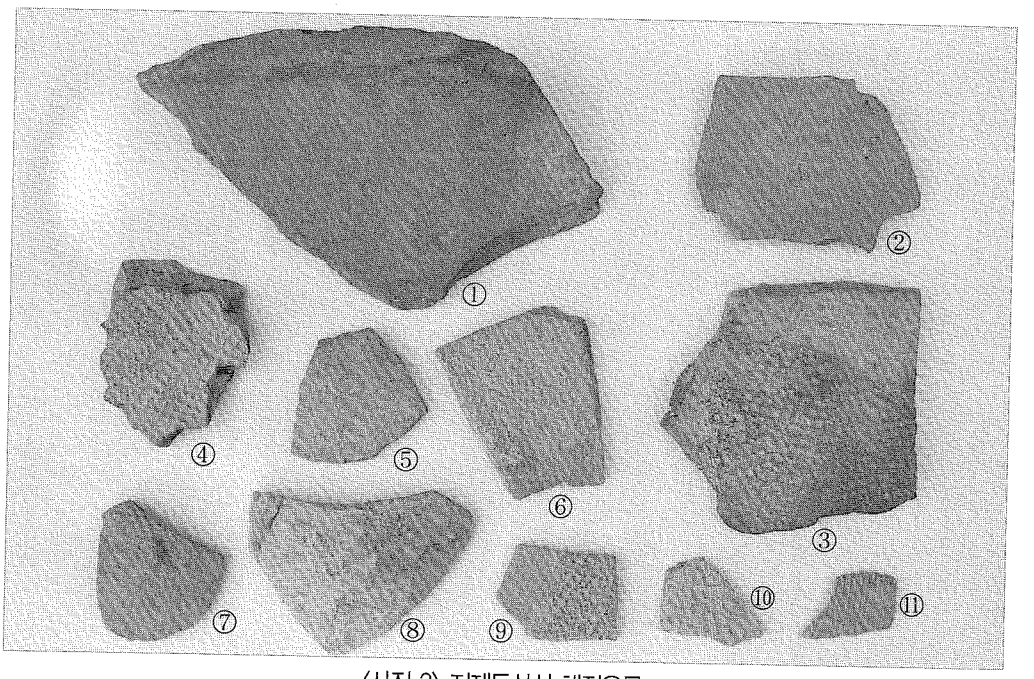
〈도면 16〉 기산리산성 채집유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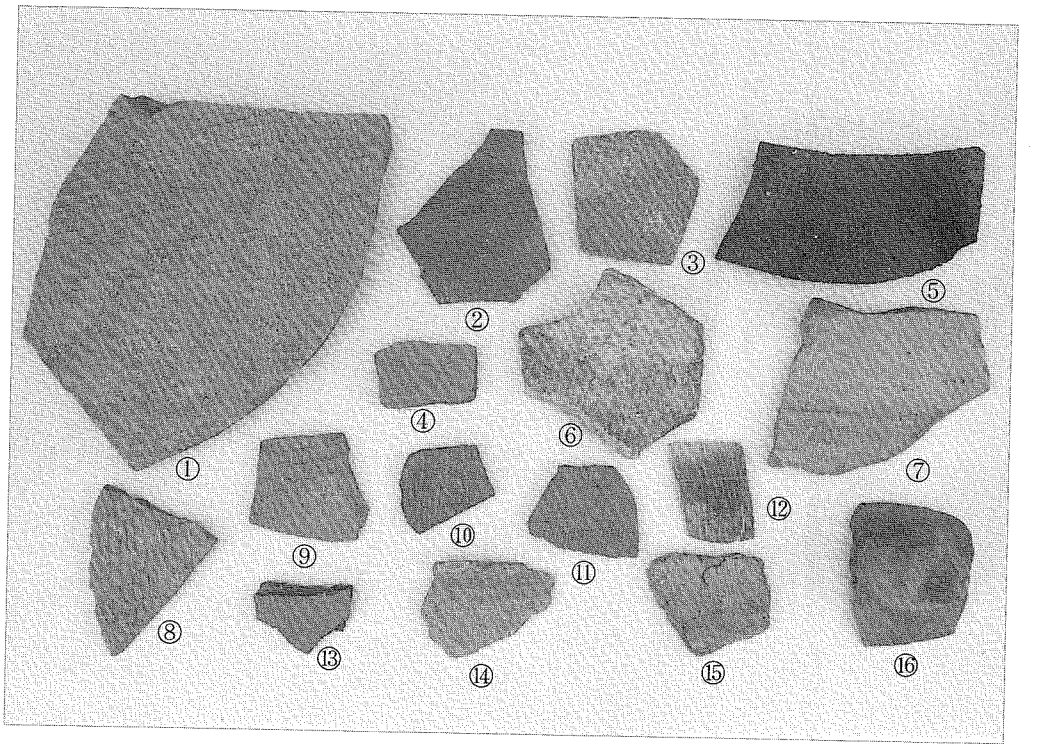
〈사진 1〉 비봉산성 · 무양산성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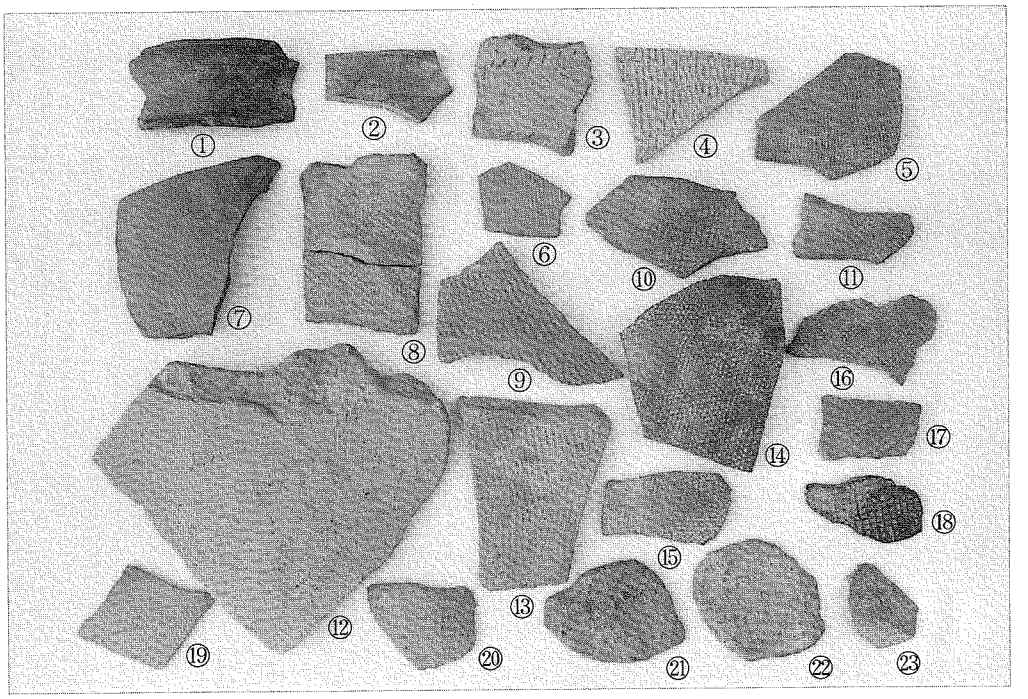
〈사진 2〉 진사리산성 채집유물



〈사진 3〉 지제동산성 채집유물



〈사진 4〉 백봉리산성 채집유물



〈사진 5〉 기산리산성 채집유물

봉업사지 출토 청동발의 분석

*보존과학실, **민속미술부

1. 머리말

봉업사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위치해 있다. 고려시대에 진전사원으로서 번성하였고, 출토유물도 대부분이 고려시대로 편년되었다. 발굴조사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번에 분석하게 된 청동발은 부숴진 상태로 출토되었고(그림 1. a 참조), 본 박물관의 보존과학실에서 보존처리를 거쳐 그 원형을 복원하였다(그림 1. b).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청동기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 생활에 사용되어왔다. 초기에는 주조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하여 원하는 성질을 얻을 수 있게 발전하였다. 유기(놋그릇)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인데[1], 구리에 주석이 들어감으로서 경도가 증가하는데 비해 연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공시 높은 온도로 청동을 가열하면 연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2].

청동발의 보존처리와 더불어 그 성분과 미세조직을 조사하여 제작방법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2. 청동발의 조성

청동발의 성분분석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법(ICP)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청동발은 Cu-Sn계 합금으로써 방짜유기의 조성이라 일컬어지는 구리에 주석이 22% 함유된 것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당시 청동발을 제조할 때 구리와 주석의 비율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리와 청동 이

* 김선덕, 박학수, 김웅신, 이경선
** 백종오

외의 여러 성분은 그 함량이 매우 작아서 의도적인 첨가가 아니라 동광에 함유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3].

〈표 1〉 청동발의 조성

(wt%)

원소	Cu	Sn	Pb	Co	Ni	Au	Fe	Ag	Zn	Sb
농도	75.48	22.05	0.07	0.07	0.06	0.01	0.02	0.11	0.09	0.03

3. 청동발의 미세조직

미세조직은 시료를 수지에 넣고 굳혀 연마한 다음, 광학현미경으로 종단면과 횡단면을 관찰하였다.

〈그림 2〉는 구리-주석의 2원계 평형상태도로서 앞서 구리에 주석이 첨가량이 증가하면 연신률이 떨어지는 것은 취약한 δ결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δ결정이 정출하는 온도보다 높은 영역에 존재하는 β와 γ는 비교적 연하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면 가공이 가능하다.

〈그림 3. a〉는 청동발의 종단면의 미세조직으로서 마르텐사이트적인 β바탕에 α가 존재하고 있다. 청동발의 조성을 고려했을 때, 상온에서 평형상태의 미세조직은 α와 $\alpha+\delta$의 공석조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4,6]. 그러나 $\alpha+\delta$공석조직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은 $\alpha+\delta$의 공석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보다 높은 $\alpha+\beta$영역에서 가공(우김질, 벼름질)하고 급냉시켜 $\alpha+\delta$로의 공석분해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직사진 상에서 나타난 α는 바탕 β보다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으므로 지렛대법칙(lever rule)으로부터 가공된 온도영역은 586℃보다 높은 $\alpha+\beta$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b〉는 보다 고배율로 종단면을 촬영한 것으로 마르텐사이트적 조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보고된 청동발의 분석에서도 이와같은 조직이 관찰되었다[5].

〈그림 4. a〉는 비교적 건전한 횡단면의 미세조직으로서 α가 가공에 의해 한방향으로 늘어서 있으며, 바탕은 역시 마르텐사이트 β이다. 〈그림 4. b〉는 횡단면 중에서도 부식정도가 심한 부분으로서 부식이 결정입계를 따라 전파되어, α입자의 부식이 상당히 진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물이 거시적으로 같은 환경에 있어다 해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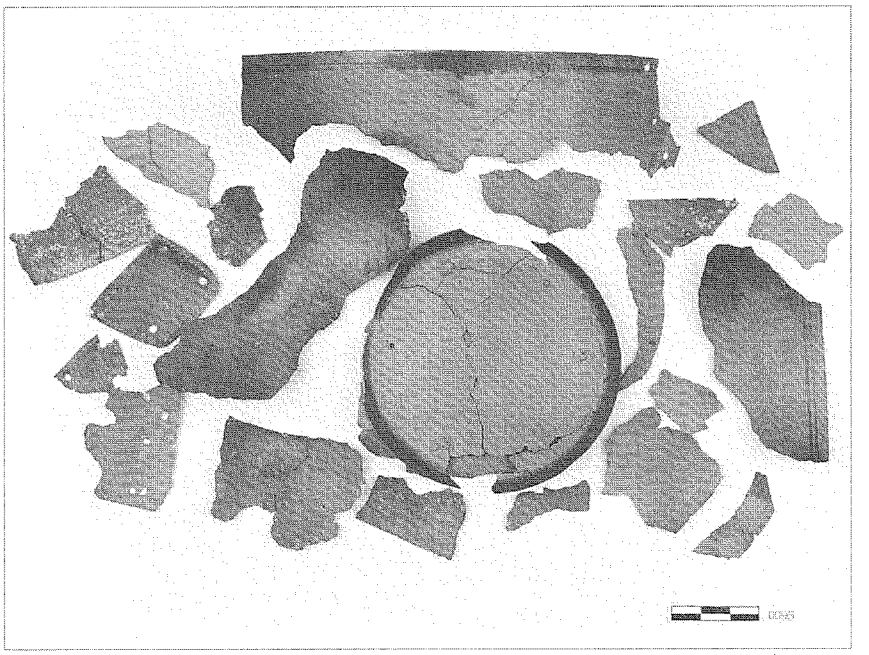
식의 진행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4.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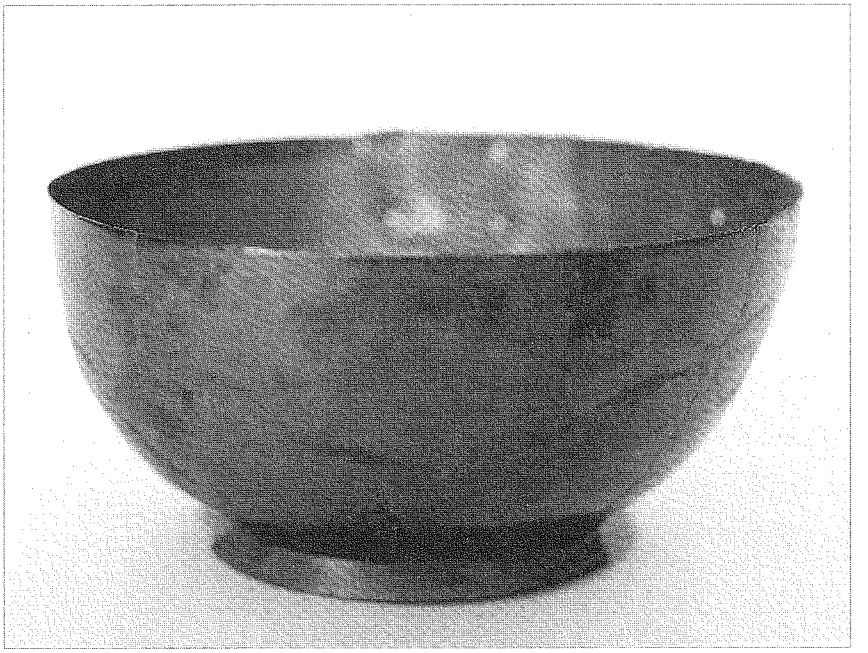
봉업사지 출토 청동발은 성분분석 결과 구리와 주석이 약 22% 첨가된 청동이었다. 그 조성이 방짜유기의 조성과 정확히 일치하여, 당시의 합금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미세조직은 침상의 마르텐사이트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586℃이상으로 가열하여 $\alpha+\beta$영역에서 가공한 후, 급냉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宋應星 지음, 崔炷 주역 : 天工開物, 傳統文化社, p318(1997)
2. H. Schumann, 金錫胤 외 공역 : 金屬組織學, 學文社, p493(1993)
3. 趙萬衡, 李在夏 : 非鐵金屬製鍊工學, 漢陽大學校 出版院, p2(1993)
4. 洪鍾徽, 趙顯麒, 金錫胤 : 非鐵金屬材料, 喜重堂, p25(1988)
5. 최주, 정광용, 조상기, 김수철 : 상주 청리유적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고찰, 상주 청리유적(Ⅷ), 한국문화재보호재단·(주)한진중공업, p421(1998)
6. 정동창, 유창영, 홍현선 :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제1권 1호, p67(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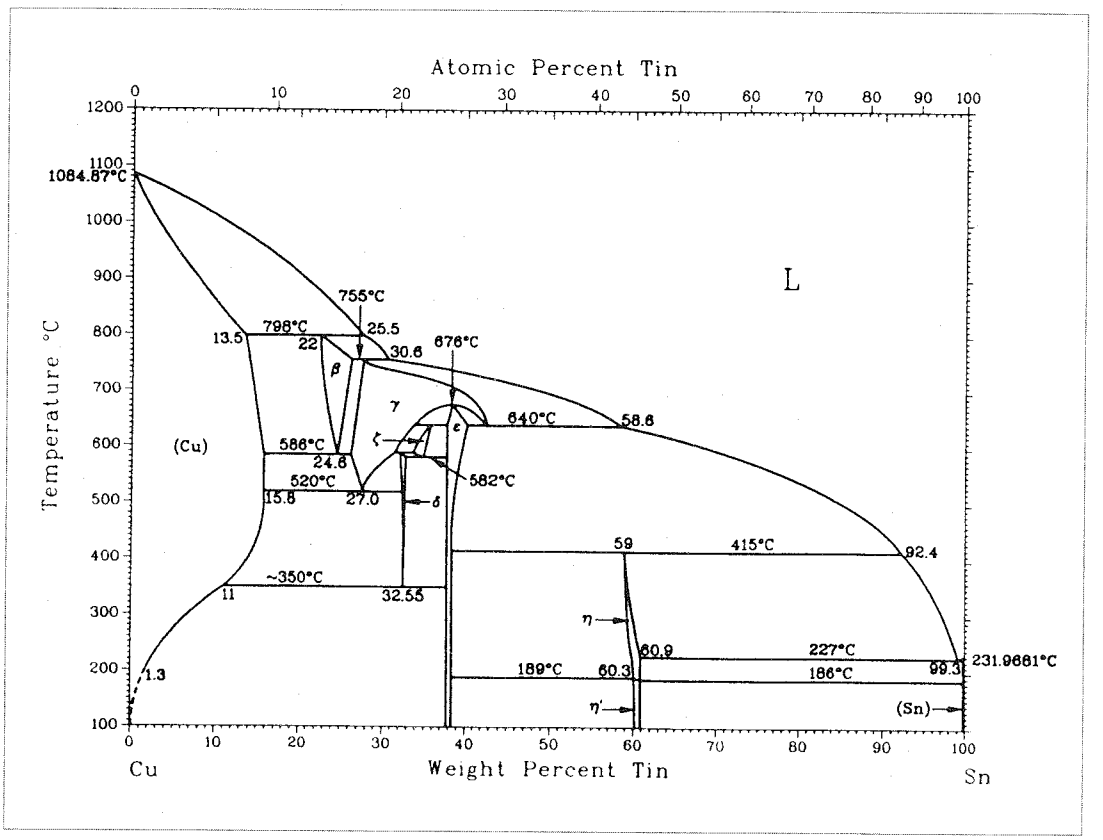


a. 보존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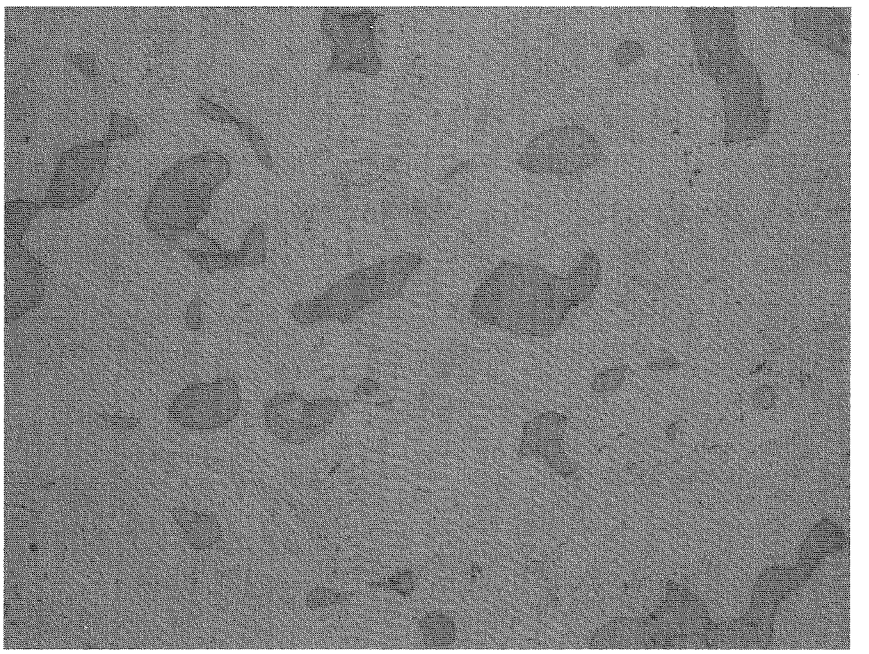


b. 보존처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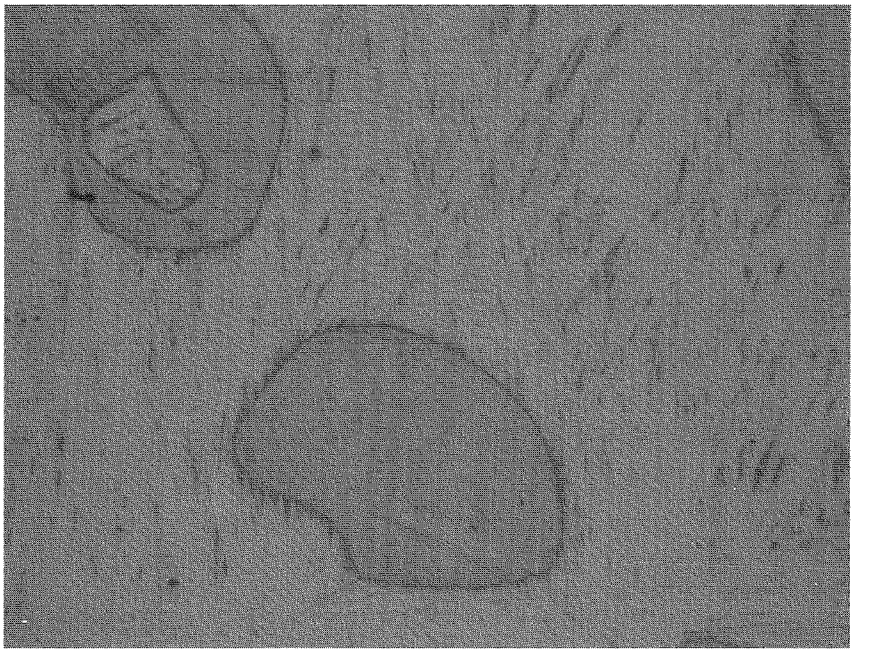
〈그림 1〉 청동발의 보존처리 전 · 후



〈그림 2〉 Cu-Sn계 평형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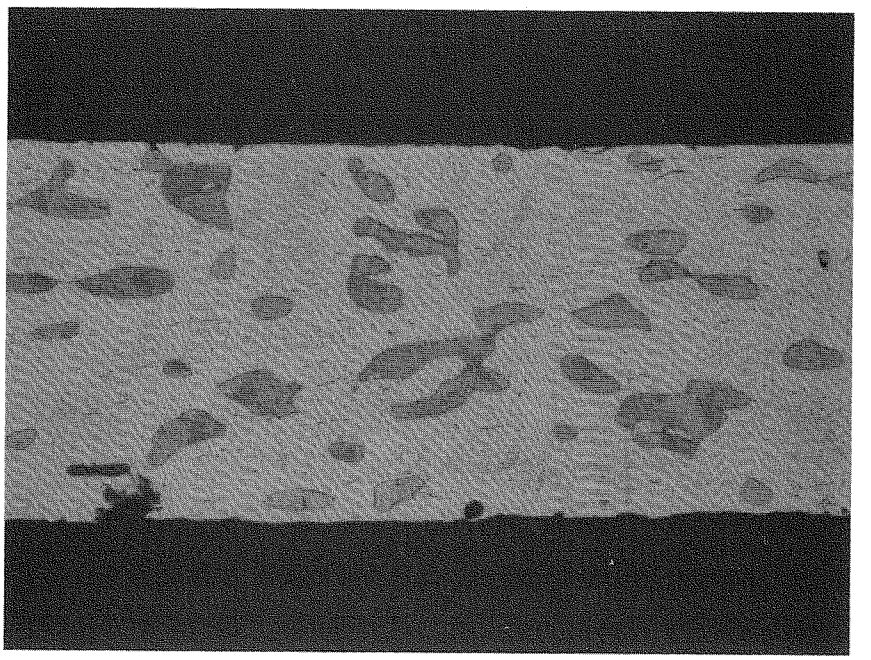


a. 종단면 (2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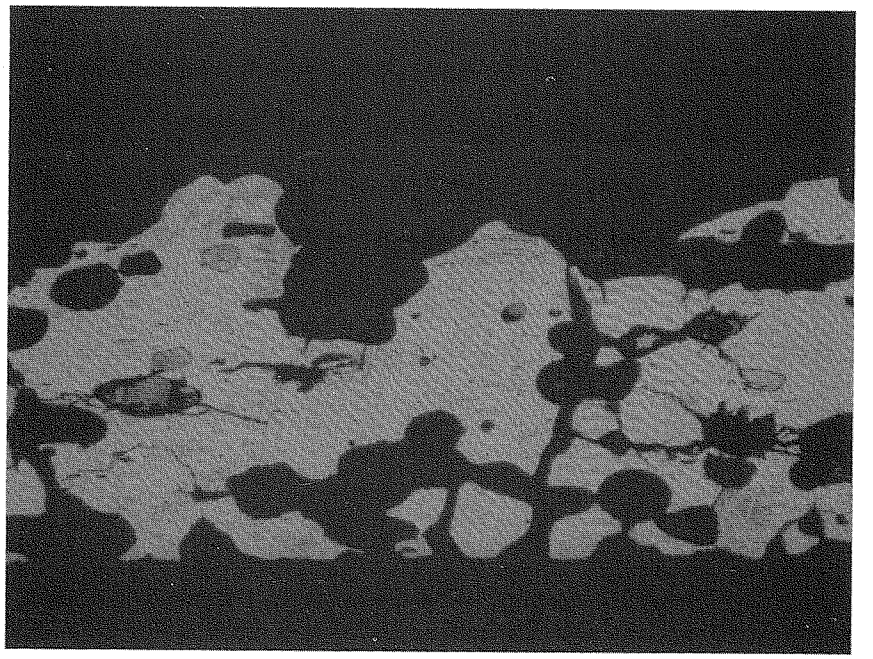


b. 종단면 (1,000배)

〈그림 3〉 종단면의 미세조직



a. 횡단면 (부식이 덜한 곳 200배)



b. 횡단면 (부식이 심한 곳 200배)

〈그림 4〉 횡단면의 미세조직

고양시 원흥리 출토 청자기와에 대하여

김 영 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I

경기도 고양시 원흥리에는 1944년 일본인 노모리 켄(野守 健)에 의해 고려초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청자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1998년 3월에 이 가마터에서 수습된 청자와당편 세 점이 신고되었는데, 이 와당편은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없는 고려초기의 청자기와로서 매우 주목되는 유물이다.

청자로 제작된 기와의 존재는 『高麗史』에서 1157년 개성의 양이정에 청자기와를 사용했다는 기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1] 또한 1927년에는 개성 만월대의 고려궁지에서 청자기와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으며, 1970년대에는 고려시대에 청자를 제작하던 전라남도 강진군 사당리의 가마터 발굴에서 문헌기록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청자기와가 다수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문헌기록의 내용이나 기록된 시기와 부합되는 청자기와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서 사당리가마의 성격뿐만 아니라 12세기 청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원흥리에서 조사된 청자와당은 고려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작수법이나 장식, 질 등에서 상당한 제작기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없어 주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자와당은 물론 함께 수습된 유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와당의 특징을 살펴서, 제작시기도 추정해 보려고 한다.

---

1) 『高麗史』 世家 卷第 18, 毅宗 世家 11年 4月, 1157, 夏四月丙申朔. 闢東離宮成, 曰壽德殿, 曰天寧, 又以侍中王沖第爲安昌宮, 前參政金正純第爲靜和宮, 平章事庾弼第爲連昌宮, 樞密院副使金巨公第爲瑞豊宮, 又毁民家五十餘區, 作大平亭, 命太子書額, 旁植名花異果, 奇麗珍玩之物, 布列左右, 亭南鑿池, 作觀瀾亭, 北構養怡亭, 盖以靑瓷. 南構養和亭, 盖以椶

또한 「高麗史節要」 卷 11, 毅宗 11年 4月條 및 「東史綱目」 卷 9 上, 毅宗 11年 1月條 記事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5, 開城府下古跡, 太平亭, 「中京誌」 卷 4, 宮殿 太平亭에도 靑瓷瓦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Ⅱ

경기도 고양시 원흥리 산88번지 일대는 야트막한 구릉으로 갑발과 가마구조물인 벽돌이 지표상에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소수의 청자편도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현장조사에 착수해 청자와당, 갑발, 갑발받침, 장방형의 벽돌, 청자완류 등을 수습하였다. 청자와당과 청자완류의 유약은 모두 갈녹색을 보이며, 시유상태도 양호한 양질의 자기이다. 특히, 함께 수습된 두 점의 청자완류는 소위 '선해무리굽' 계통으로 와당의 연대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수습된 유물에 대한 특징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청자완류는 두 점이 수습되었는데, 한 점(도면 1, 사진 1・사진 2 우)은 측면선이 완만한 곡선인 '선해무리굽' 형식이다.[2] 굽의 직경은 7㎝, 굽접지면이 0.85~0.9㎝이고, 태토는 짙은 회색이며 비교적 치밀하다. 유색은 갈녹색을 띠고 있으며,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고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굽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지 않았으며, 네 곳에 백색내화토를 얇게 받쳤다.

또 다른 청자완류 한 점(도면 2, 사진 1・사진 2 좌)은 위의 것과 동일한 형태이나 크기만 조금 작다. 굽의 직경은 6.6㎝이고 굽접지면의 폭이 0.6㎝이며, 유색은 갈녹색으로 다소 산화되어 약간 누런 빛이 돌고 있다.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으며 태토는 짙은 회색이고 치밀하다. 굽바닥에는 네 곳에 백색내화토를 얇게 받친 흔적이 남아 있으며, 포개구이를 하였다.

청자와당은 모두 세 점이 수습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세 점의 크기(가로・세로 18×5㎝, 9×6㎝, 9.5×5.5㎝)에 의한 와당의 추정지름은 18.6㎝이다.(사진 3, 도면 3)

세 점 모두 와당의 앞뒤면에 얇게 유약을 발랐으나, 한 점을 제외하고는 유약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그중 제일 작은 파편은 굽는 과정에서 태토 속에 공기가 들어가 제작중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세 점 모두 태토는 치밀하며 잡물이 거의

2) 선해무리굽 형식이란 용인시 이동면 서리 요지의 퇴적 최하층에서 출토하는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형식이다. 즉, 굽이 넓은 해무리굽형식보다 앞서는 청자를 가르킨다. 서리요지의 최하층인 4층은 선해무리굽청자・백자시기→ 3층은 선해무리굽백자, 해무리굽백자 혼용시기→2층은 해무리굽백자, 변형해무리굽 백자시기→ 1층은 윤형굽백자시기이다.(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1988, p. 21)

없지만, 청자완과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번조상태가 좋지 않다.

와당의 문양은 홑잎으로 구성된 단판 양식의 연잎으로, 열두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3] 연판의 외곽에 두 줄의 돌출된 윤곽선이 있고 그 안에 연주문이 돌려져 있다. 또한 연꽃잎 사이에 끝이 뾰족한 간잎이 있고, 단판의 연꽃잎 안엔 여섯개의 작은 꽃잎으로 이루어진 자엽(子葉)이 있다. 그리고 와당의 뒷면에는 둥글게 모래에 긁힌 자국과 백색내화토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유물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수습된 청자와당과 선해무리굽 청자완을 살펴볼 때 모두 갈록색의 유색과 백색내화토를 곳곳에 받쳐 구운 번조방법 등이 같은 점으로 보아 같은 제작집단에 의해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갑발받침과 갑발 등 두 종류의 요도구도 수습되었다(사진 4). 이들은 모두 지름이 거의 비슷하지만, 높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갑발받침은 높이가 3.8cm에 지름이 24.4cm의 크기이다. 태토는 암적색을 띄며 모래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다. 제작은 표면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아 물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윗면의 중앙이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는 내화토를 받쳐 그릇을 구운 자국이 남아 있다. 갑발은 높이가 13cm이고 지름이 24.6cm로, 태토는 갑발받침에서와 같이 암적색에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제작방법 역시 물레성형으로 보이며, 윗면 중앙이 함몰되어있다. 함몰된 곳의 중앙에는 2.5~3cm 정도 크기로 네 곳에 백색내화토 흔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도지미(陶枕) 없이 갑발 윗면에 바로 청자를 올려놓고 번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갑발의 받침흔적과 관련하여 함께 수습된 청자완 편에 포개구이를 한 흔적이 있으므로, 번조방법을 추정해 보면 도면 4와 같다. 그 밖에 가마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장방형의 벽돌편이 수습되었는데, 불에 그을려 갈색을 띠며 석립이 많이 섞여 있다.

선해무리굽 완류 두 점은 유색과 번조방법에 있어서 와당과 동일한 기술방식으로 시대설정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재까지 선해무리굽의 가마들의 분포는 서남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황해남

3) 남아있는 파편으로 추정함 45° : 3(연꽃잎수) = 360° : X, X=12 ∴총 꽃잎은 12엽임.

도 평천군 봉암리,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경기도 고양시 원흥리,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충청남도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전라북도 진안군 오통리, 전라북도 고성군 용계리 등이 그곳이다(표 1 참고). 이중 현재까지 발굴된 서리요지와 방산동 요지는 다량의 유물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규모로 청자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산동 유적의 최하층에서는 중국 唐代의 해무리굽 백자완과 동일한 형태와 특징을 갖는 파편이 출토되기도 하였는데, 백자완과 동반된 청자편은 경기도 용인 서리의 최하층에서(Ⅰ기층) 출토된 선해무리굽 완과도 유사하다. 이 두 곳과 유사한 가마에서 생산되는 고려초기의 선해무리굽 청자는 대부분 갈록의 유색을 띠며 시유상태가 좋고, 표면에는 문양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중국 월주요계와 유사한 벽돌가마나 갑발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갑발에 의한 번조방법과 자기 위에 갑발을 씌우는 등 갑발 윗면에 내화토로 인한 자국이 현저하게 보이는 것도 9세기 전반 월주요계 가마에서 보이는 특징과 유사하다.[4]

월주요계 청자와 고려초기 청자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기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먼저, 서해안 일대는 일찍이 중국과의 교역이 편리한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9세기전반 월주요 청자의 생산지이자 절강성 수출품의 적출항이었던 明州(寧波)가 신라 상인의 중요한 활동 근거지였고, 明州와 해로로 최단거리에 있는 곳이 서남해안 일대이며 이곳에 월주요의 제도술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높았다는 견해다.[5] 또한 최근 절강성 영파시 부근의 唐代 청자요지조사에서 출토된 갑발 및 요도구들의 형식이 용인서리의 1기층(선해무리굽 출토층) 것과 일치하며, 영파에서 출토된 파편의 제작시기를 중국측에선 819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6], 우리나라의 초기청자 제작시기도 대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와같은 당시의 상황이나 중국 출토품과의 영향관계 이외에도, 조사에서 수습된

4) 吉岡完祐, 「越州窯系 靑磁의 形態分類에서 본 高麗靑磁와의 比較」, 『강진청자국제학술세미나』, 1999, pp. 40-41.
5) 金英媛, 「高麗磁器와 中國磁器의 比較硏究」, 『考古美術』 171·172, 1986, p. 76.
6) 金載悅,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1998, p. 112.

청자와당의 형태와 장식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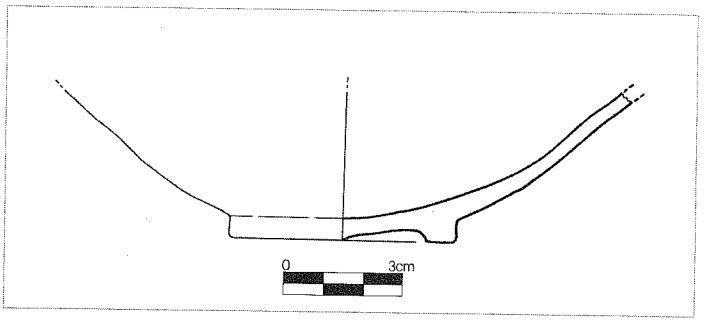
청자와당의 경우 연판내에 자엽(子葉)으로 장식이 가미되어 있고, 연주문이 장식된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와당형에서 보이는 특징이다.[7]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고 있는 傳 경북 경주 千軍洞寺址 출토로 알려져 있는 화엽문 수막새와 비교해 볼 때 단판의 열두잎과 간엽으로 구성된 것, 그리고 자엽으로 장식된 형태 등도 대체적으로 그 시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사진 5).[8] 그리고 연주문대를 갖춘 단판에 인동문의 자엽이 있는 皇龍寺址 출토 기와(사진 6)와 연주문대와, 단판안에 연꽃잎의 자엽이 있는 仁旺里廢寺址 출토 기와(사진 7)와 비교해 볼 때도 일정한 간격을 한 연주문대를 갖춘 모습과 단판에 자엽을 한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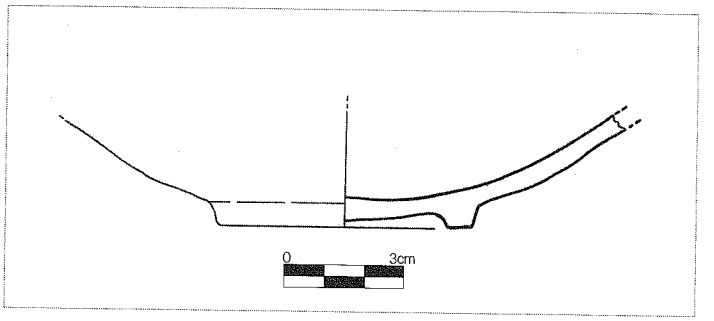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청자기와의 제작시기는 함께 수습된 선해무리굽 청자완류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해무리굽 청자완류와 청자기와는 태토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갈녹색 유색과 백색 내화토받침의 사용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동일 제작집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자완이 월주요계의 선해무리굽 형식인 점과 청자와당의 양식이 통일신라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시기는 9세기 후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조사된 고양시 원흥리 청자가마터 출토 청자기와는 기존에 알려져 왔던 12세기 청자와당 보다도 제작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선해무리굽 완류와 더불어 당시의 화려했던 장식과 수준 높은 제작기술상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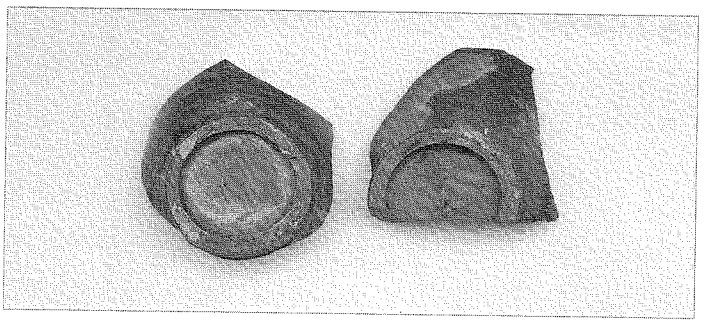
7) 金誠龜, 「統一新羅時代의 瓦塼硏究」, 『考古美術』 162 · 163, 1984, p. 195.
8) 國立中央博物館, 『井內功寄贈瓦塼圖』, 1990, p.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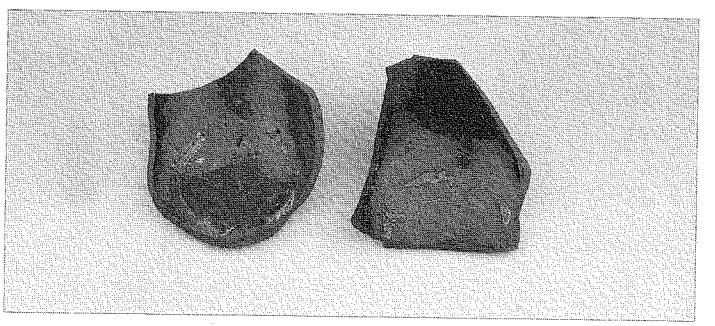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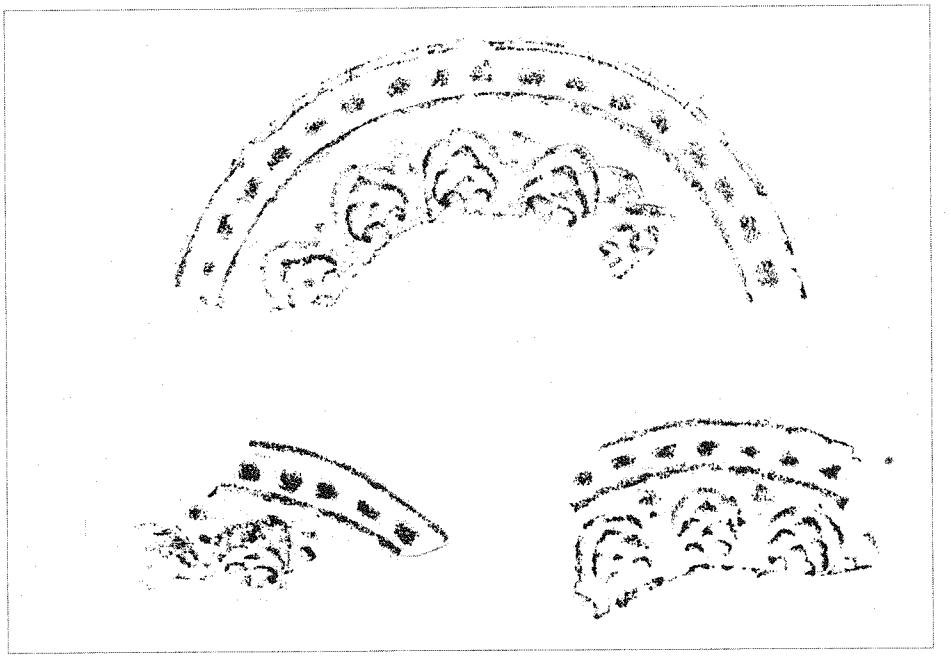
〈도면 2〉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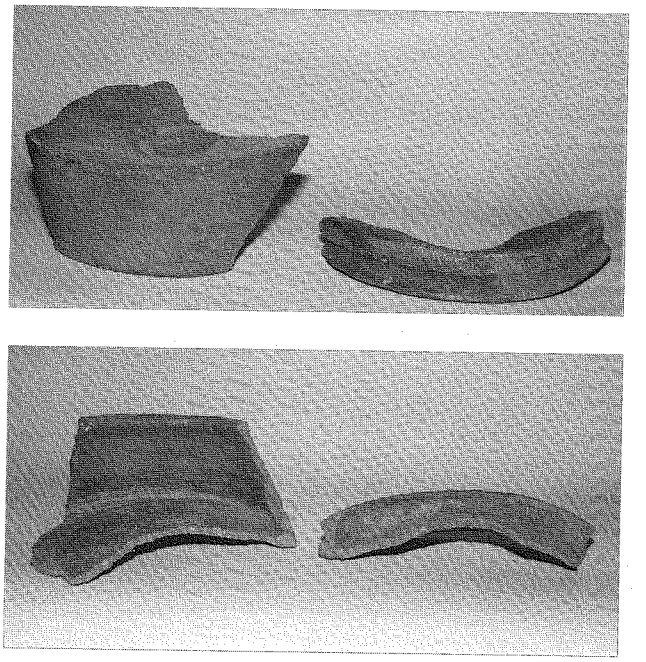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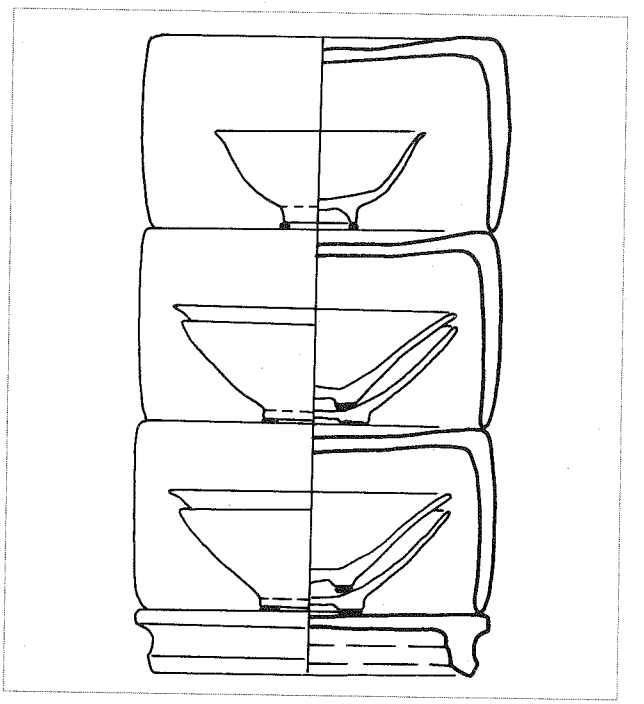
〈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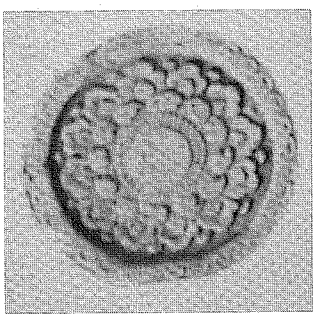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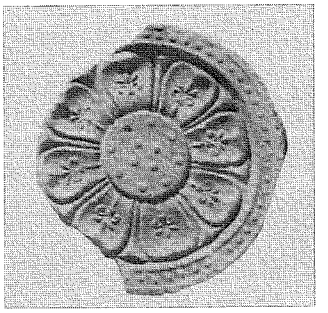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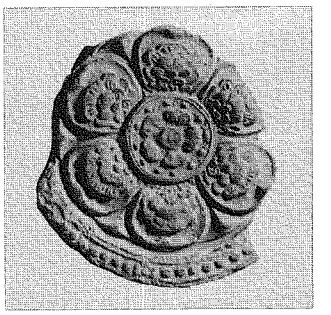
〈도면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표 1〉 선해무리굽 완류 출토 가마터 현황

가마터의 위치	기 종	번법/받침/유색/장식	축조재료	발굴연도
황해남도 평천군 봉암리	발, 대접, 접시 등	상번, 갑번, 내화토받침, 녹갈색, 소문	벽돌가마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발,접시류,광구병, 화판형접시 ※「淳化三年」銘(992)청자편, '一','二','十' 음각청자편」 경질도기-대옹,광구병,대발류	상번, 갑번, 내화토받침, 녹갈색, 소문	벽돌가마	1989~1990
경기도 양주군 부곡리	완, 대접, 접시	상번, 갑번, 내화토, 녹갈색, 청자완, 소문	벽돌가마	
경기도 고양시 원흥리	완, 광구병, 缸, 기와, 잔	상번, 갑번, 내화토, 녹갈색, 소문	벽돌가마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완, 발, 접시, 광구병, 뚜껑	상번, 갑번, 내화토받침, 녹갈색, 담황색백자편, 소문	벽돌가마	1999
경기도 용인시 서리	완, 대접, 광구병, 화판형접시	갑번, 백자내화토받침, 황갈색, 백색·담회청색, 소문	벽돌가마	
충남 서산군 오사리	대접, 완, 접시, 광구병, 缸	갑번, 상번, 내화토, 녹갈색, 회청색, 소문	벽돌가마	
전남 진안군 도통리	완, 대접, 접시	갑번, 상번, 내화토 녹갈색, 회청색, 소문	벽돌가마	
전남 고창군 용계리	완, 합, 광구병, 과형주자, 장경형접시 등 ※太平壬戌二年銘 평와편	갑번, 상번, 회청색, 내화토, 소문	벽돌가마	1983

※다음 글에 따름 : 姜敬淑,「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미술사연구』12호, 1998, pp. 124-129, p. 137
尹龍二,「初期 靑磁窯址의 分布와 特色」,『제1회 東垣기념학술대회발표요지-韓國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1990, pp. 39-43.
崔 健,「靑瓷窯址의 系譜와 展開」,『미술사연구』12호, 1998, pp. 10-11.

朝鮮後期 龍仁 器谷面 慶州金氏 準戶口에 대하여

김 성 환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관)

자 리

1. 머리말
2. 慶州金氏의 家系
3. 資料의 分析
4. 맺음말

1. 머리말

器興에서 이번에 조사된 慶州金氏의 準戶口는 모두 7점이다[1]. 이중 조선 영조 때 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을 지낸 金麗豪의 준호구가 3점, 그의 아들 幼學 碉의 준호구·碉의 손자 유학 星弼·星弼의 아들인 유학 鶴遠·손자 學生 裕商의 준호구가 각각 1점이다. 여기서 시기적으로 가장 올라가는 것은 영조 23년(1747) 작성된 金麗豪의 준호구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은 헌종 9년(1843) 작성된 幼學 金裕商의 것이다. 특히 金麗豪의 준호구는 3매로 시기적으로는 1747년부터 1756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용인 器興面의 것이 1매, 이후 그가 이거한 漢城府의 것이 2매로 구성되어 있다.

경주김씨가 기흥읍에 세거하기 시작한 때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려말 折佛論을 주장하고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가 광주의 추령에서 자결한 金自粹의 후손들이 광주·용인 일대에 세거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짐작된다. 이에 이들은 시대를 지나면서 가문이 번성함에 따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分家했을 것이다. 아마도 金麗豪의 증조 鍾城都護府使를 지낸 元立 내지는 祖父인 工曹正郎을 지낸 敏敎 이전부터 이미 器谷面 일대의 士族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듯 하다. 그러나 이들은 敏敎 이후

1) 이 자료들은 현재 龍仁 器興邑 下葛里에서 世居하던 慶州金氏 金麗豪의 후손 김선기씨가 소장하고 있다.

중앙의 관직 진출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家勢가 점차 줄어가는 상황에서 기곡면의 士族으로서만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敏敎의 손자 麗豪가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잠시 한양으로 移居하였던 영조 26년(1750)을 전후하여 7·8년간 용인에서의 경제적인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率婢 1명만을 거느린 채 한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2].

이들 자료는 모두 韓紙로 되어 있으며 그 규격은 약간씩 상이하여 金麗豪의 準戶口 Ⅰ(1747년)이 41×87cm·金麗豪의 準戶口 Ⅱ(1750년)가 43×87cm·金麗豪의 準戶口 Ⅲ(1756년)이 41×87cm, 金碩의 準戶口(1777년)가 55×66cm, 金星弼의 準戶口(1804년)가 49×85cm, 金鶴遠의 準戶口(1837년)가 43×77cm, 金裕商의 準戶口(1843년)가 65×52cm으로 각 자료의 시기 편차는 약 17년 정도이다. 자료의 기재방식은 대부분의 준호구가 그러하듯이 우선 전반부에는 戶口 주인의 3대와 외조, 처의 3대와 외조, 그리고 率子가 있는 경우에는 率子를 기록하고 있다. 또 후반부에는 奴婢秩을 기록하였는데, 구체적인 경우는 노비 부모의 출신과 이름·노비의 나이, 逃亡奴婢의 경우는 도망한 연도, 그리고 率奴인지 집안 田庄의 奴婢인지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간략한 경우에는 奴나 婢의 이름 정도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가 주목되는 것은 金麗豪 → 碩 → (樂有) → 星弼 → 鶴遠 → 裕商으로 이어지는 6代가 대대로 器谷面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 나타나는 노비소유 현황을 통해 조선 후기 器谷面의 士族으로서의 경주김씨 집안에 대한 경제적인 변화상의 약간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器興에서의 士族으로서 경주김씨에 대해 개략적으로 나마 살펴보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를 중심으로 7점의 호구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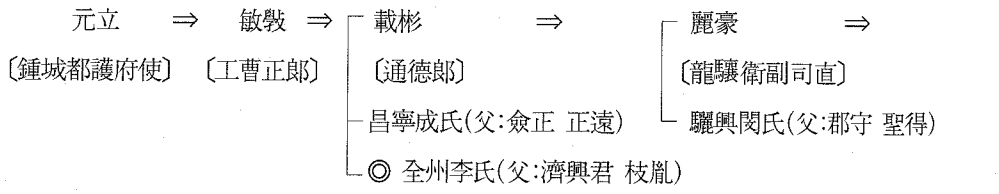
2. 慶州金氏의 家系[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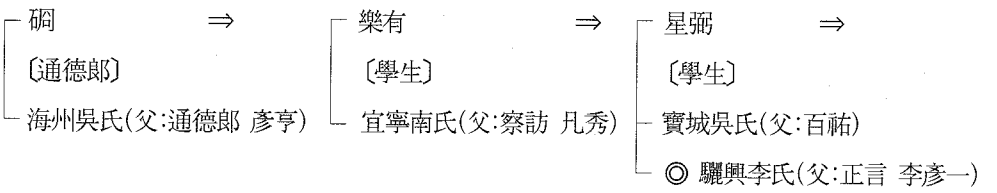
金麗豪의 準戶口에 따르면, 그는 숙종 17년(1691) 출생하여 折衝將軍 龍驤衛副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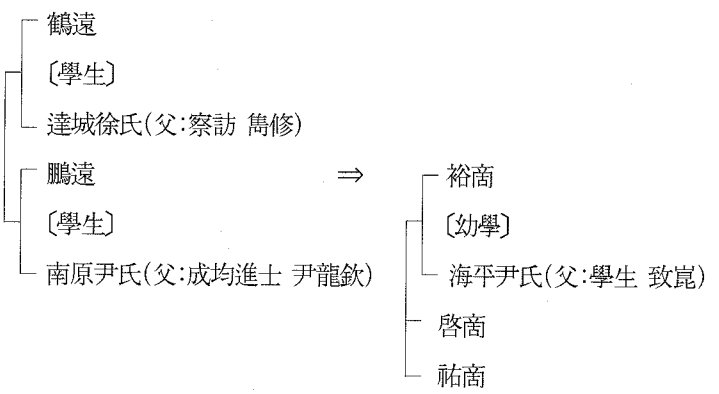
2) 영조 32년(1756) 「丙子式金麗豪準戶口」(金麗豪準戶口 Ⅲ)참조

3) 아래의 家系圖는 金麗豪부터 金裕商까지의 호구자료와 김선기 소장 『慶州金氏家乘』(필사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軍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 7점의 호구자료를 통해 그를 중심으로 용인 기곡면에 거주하던 경주김씨의 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종합해 볼 때, 器谷面에서의 경주김씨의 가계는 金麗豪의 증조인 鍾城都護府使 元立부터 그의 6대손인 幼學 裕商까지 약 9代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들은 김여호 당대까지는 비록 하위직이지만 중앙에서도 관직생활을 하여 한양에서도 잠시나마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나[4], 이후 중앙으로의 官路가 끊겨 기흥 지역의 士族으

4) 자료에 따르면, 麗豪의 증조인 元立은 通政大夫 鍾城都護府使를 지내고 資憲大夫 禮曹判書 兼 知經筵義禁府 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 五衛都摠府都摠管에 贈職되었고, 조부 敏敎는 通訓大夫 工曹正郎을 지내고 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副總管으로 贈職되었으며, 부 載彬은 通德郎을 지냈음을 金麗豪의 準戶口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의 외조는 明義大夫로 濟興君에 봉해진 完山 李枝胤이다(「金麗豪準戶口」Ⅰ·Ⅱ·Ⅲ) 참조.

로서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通婚圈을 살펴보면, 경주김씨 가문은 주변의 完山李氏・驪興閔氏・海州吳氏・宜寧南氏・慶州李氏・驪州李氏・南原尹氏・海平尹氏 등과 혼인하고 있는데, 이들 가문 역시 이 시기 용인 혹은 주변 지역에서 士族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성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資料의 分析

金麗豪는 최고 관직이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5]. 그는 영조 23년(1747)을 전후한 때까지 器谷面에 거주하고 있다가[6] 영조 26년(1750)을 전후한 시기에 漢城府로 이주하였으며[7], 혼인한 아들 碩과 甥姪 申鼎夏를 率子로 데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조 23년 용인에서 거주할 때부터 함께 거주하던 생질 申鼎夏가 영조 32년(1756)에는 수원으로 이거하였음을 밝히고 있어[8] 영조 32년 漢城府에서 다시 戶口를 작성할 때는 이미 수원으로 독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의 아들 碩은 通德郎을 지냈음을 金星弼의 準戶口를 통해서 알 수 있고[9] 손자 星弼과 星弼의 아들 鶴遠, 그리고 鶴遠의 아들 裕南은 幼學으로 관직에 나가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이들 자료를 살펴보면, 器谷面에서 경주김씨는 많을 때는 40여명이 넘는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평균적으로 20여명 내외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정조 1년(1777) 「丁酉式金碩準戶口」 참조
6) 영조 23년(1747) 「丁卯式金麗豪準戶口」(「金麗豪準戶口」Ⅰ) 참조
7) 영조 26년(1750) 「庚午式金麗豪準戶口」(「金麗豪準戶口」Ⅱ) 참조
8) 영조 32년(1756) 「丙子式金麗豪準戶口」(「金麗豪準戶口」Ⅲ) 참조
영조 31(1755) 이전에 수원에 소속되어 있던 용인을 죽산으로 이속하고 양주에 소속되어 있던 과천・금천을 수원으로 이속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라 지역적으로 수원과 가까운 器谷面은 수원으로 붙은 것으로 짐작된다(『영조실록』 영조 31년 11월 기축).
9) 순조 4년(1804) 「甲子式金星弼準戶口」 참조

〈표 1〉 경주김씨 준호구(1747~1843)에 보이는 노비현황

姓名	性別	父		母		年齡	成籍時期							備考
		出身	姓名	出身	姓名		①1747	②1750	③1756	④1777	⑤1804	⑥1837	⑦1843	
時萬	奴	私奴	能先	私婢	先禮	48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時德	婢			〃	辰生	54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葩男	奴	私奴	小乭	班婢	秋節	33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桂花	婢			私婢	信香	39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成信	奴	私奴	云伊	〃	竹德	22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葩卜	〃			〃	久禮	52	○	○						率奴
尙禮	婢	班奴	時萬	班婢	桂花	18	○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太徽故	奴						○							率奴
玉丁	婢			班婢	時德	17	○	○	○					率奴
世巾	奴			私婢	莫今	20	○							率奴
自兮	婢			〃	自德	33	○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④에는 母가 次德으로 기재
升元	奴			〃	桂禮	37	○	○						率奴
得禮	婢			〃	得生	33	○	○	○	○				率奴, ③에는 龍仁奴로 기록
庚戌	奴	班奴	葩卜	〃	禮香	18	○	○						率奴
兮德	婢			〃	起臨禮	26	○	○	○	○				率奴, 1742년 도망
忠業	奴	良人	忠先	班婢	三德	53	○	○	○	○				率奴, 1711년 도망
順禮	婢			私婢	此介	48	○	○	○	○				率奴, 1732년 도망
乙民	奴			〃	善香	43	○	○	○	○				率奴, 1718년 도망

姓名	性別	父		母		年齡	成籍時期							備考
		出身	姓名	出身	姓名		①1747	②1750	③1756	④1777	⑤1804	⑥1837	⑦1843	
於乔伊	奴	班奴	時萬	班婢	桂花	19		○	○	○				龍仁奴, ④에는 이름이 於屯伊로 기재
甲辰	奴	〃	〃	〃	〃	13			○					龍仁奴
尙德	婢	〃	〃	〃	〃	9			○	○				〃
業同故	奴								○					水原奴
太金	奴			私婢	業同	23			○					〃
太卜	奴			〃	〃	17			○	○				水原奴④에는 母 尙業으로 기재
已兮	婢			〃	已丁	49				○				率奴
卜尙	奴	私奴	二才	班婢	已兮	32				○				〃
叟音金	奴	私奴	二才	班婢	已兮	24				○				〃
卜乭	奴	〃	〃	〃	〃	20				○				〃
千金	奴	〃	〃	〃	〃	18				○				〃
卜愛	婢	〃	〃	〃	〃	13				○				〃
卜金	奴	〃	〃	〃	〃	10				○				〃
叟禮	婢	〃	承元	〃	得禮	33				○				〃
卜先	奴	〃	〃	〃	〃	29				○				〃
叟音伊	奴	〃	業先	〃	卜烈	21				○				〃
允山	奴	〃	〃	〃	〃	19				○				〃
允乭	奴	〃	〃	〃	〃	15				○				〃
恚禮	婢			私婢	今春	41				○				〃
八月	婢			〃	發禮	35				○				〃
業龍	奴			〃	順德	41				○				〃
日每	婢			〃	凡禮	32				○				〃
順愛	婢	私奴	亥俊	班婢	恚禮	20				○				〃
暹伊	奴	〃	命白	〃	尙禮	21				○				〃
斗暹	奴	私奴	命白	班婢	尙禮	19				○				〃
玉兮	婢	〃	〃	〃	〃	12				○				〃
福愛	婢	〃	有得	〃	甘丁	24				○				〃
菴乭	奴	班奴	太卜	〃	叟禮	1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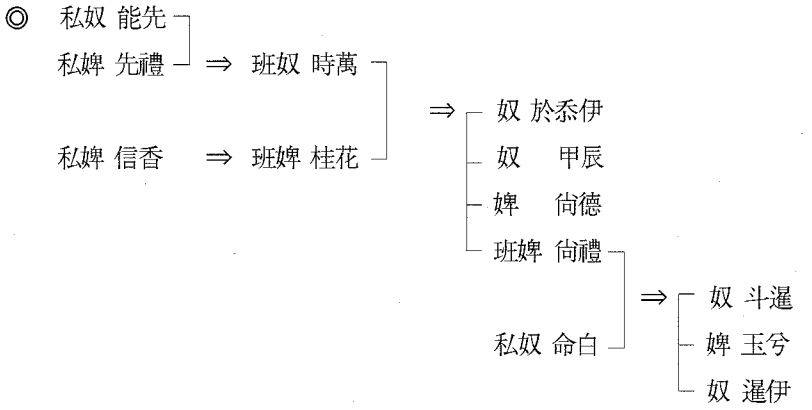
姓名	性別	父		母		年齡	成籍時期							備考
		出身	姓名	出身	姓名		①1747	②1750	③1756	④1777	⑤1804	⑥1837	⑦1843	
世兮	婢	私奴	成卜	〃	日每	14				○				率奴
插吉伊	奴	班奴	於屯伊	〃	八月	14				○				〃
一每	婢			私婢	叔只	53				○	○			原州奴
蓯今	婢	私奴	莫山	班婢	一每	32				○				〃
士先	奴	〃	〃	〃	〃	29				○				〃
四德	婢	〃	〃	〃	〃	24				○	○			〃
古萬禮	婢	〃	〃	〃	〃	21				○				〃
耒每	婢	〃	〃	〃	〃	15				○				〃
耒老味	奴	〃	〃	〃	〃	13				○	○			〃
吉每	婢	〃	起葛	班婢	得禮	41				○				1756년 도망
卜烈	婢			私婢	士每	41				○				1715년 도망
福尙	奴					58					○			私奴
孛音金	奴					50					○			〃
福乭	奴					46					○			〃
福金	奴					44					○			〃
順乭	奴					23					○			〃
龍才	奴					32					○			〃
得才	奴					26					○			〃
得丸	奴					23					○			〃
有甘	奴					49					○			〃
昌得	奴					31					○			〃
今大	奴					14					○			〃
關金	奴					7					○			〃
九老味	奴					5					○			〃
州兮	婢					15					○			私婢
鬼禮	婢					59					○			〃
今兮	婢					31					○			〃
有兮	婢					17					○			〃
龍每	婢					29					○	○	○	〃
順愛	婢					46					○			〃

姓名	性別	父		母		年齡	成籍時期							備考
		出身	姓名	出身	姓名		①1747	②1750	③1756	④1777	⑤1804	⑥1837	⑦1843	
先□	婢					31					○			私婢
兮年	婢					22					○			〃
玉兮	婢					38					○			〃
世兮	婢					40					○	○	○	〃
貞兮	婢					32					○			〃
命兮	婢					15					○			〃
同滑禮	婢			婢	世兮	9					○	○	○	〃
奉金	婢					9					○			〃
乭金	奴					14					○			〃
好郎	奴					14					○			〃
占福	奴					14					○			私婢
得禮	婢					49					○			〃
龍今	婢					58					○			原州奴
今萬禮	婢					47					○			〃
龍禮	婢					41					○			〃
順伊	婢					22					○			〃
修云	奴					20					○			〃
壽禮	婢			婢	龍每						○	○		
千二曷	奴			〃	〃							○		
五長	奴			〃	世兮							○	○	
永敏	婢											○	○	
盛哲	奴			婢	永敏							○	○	⑦에는 이름이 醫哲로 기재
丁梅	婢											○	○	
福兮	婢											○		
福禮	婢			婢	龍每	35						○	○	⑦에는 率婢로 기재
暗兮				婢	福禮	11						○		〃
得□	奴											○		
五福	奴											○		⑦에는 率婢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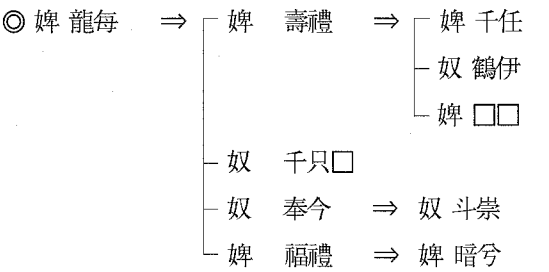
姓名	性別	父		母		年齡	成籍時期							備考
		出身	姓名	出身	姓名		①1747	②1750	③1756	④1777	⑤1804	⑥1837	⑦1843	
奉今	婢			婢	龍每							○	○	⑦에는 率婢로 기재
斗崇				婢	奉今							○	○	
千只□	奴			婢	龍每								○	
孟列	婢			婢	永敏								○	
妙列	婢			婢	〃								○	
尙得	奴			婢	丁梅								○	
?	奴			婢	〃								○	
千任	婢			婢	壽禮								○	
鶴伊	奴			婢	〃								○	
?	婢			婢	〃								○	
命兮	婢												○	率婢
福兮	婢			婢	命兮	20							○	〃
三月金	奴					39							○	率奴
乭金	奴												○	〃
順乭	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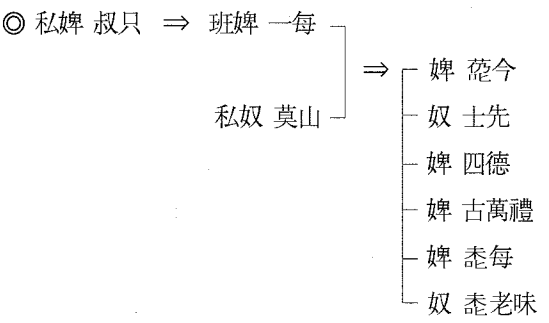
〈표 1〉 각 자료에 보이는 노비중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120여명에 이른다. 이중 부모의 출신과 이름을 알수 있는 노비가 35명이고, 母의 출신과 이름만을 알 수 있는 노비는 38명, 그리고 부모의 출신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노비가 47명이다. 특히 3代 이상의 家系를 알 수 있는 노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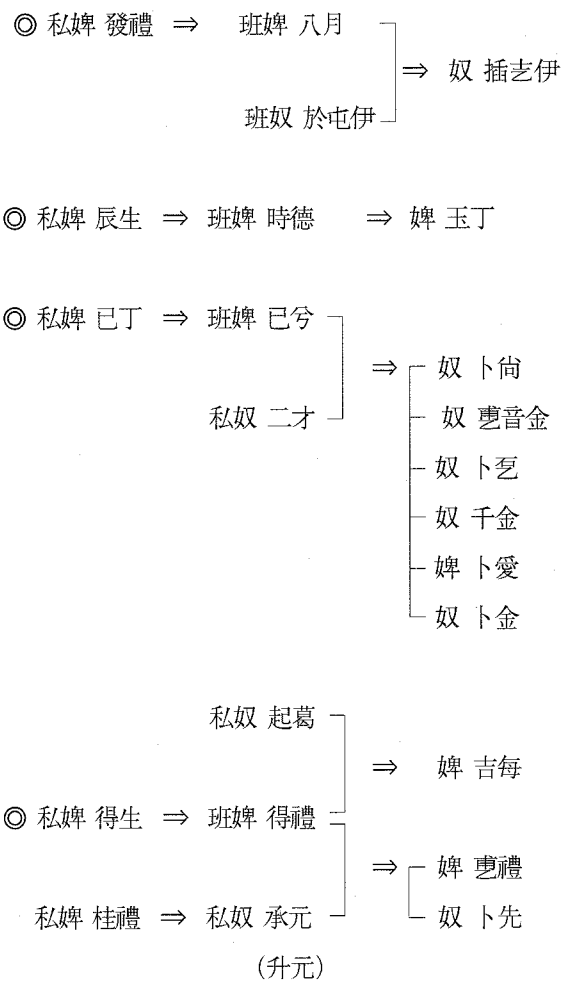
Ⅰ. 4代 以上 家系確認奴婢



Ⅱ. 3代以上 家系確認奴婢







이상 3代 이상의 家系를 확인할 수 있는 노비는 8건의 62명에 이르러 전체 노비중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을 포함한 2代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노비도 약 50여명에 이른다. 이로 볼 때 器谷面의 경주김씨 집안의 노비는 별다른 변화 없이 대부분이 선조 때부터 세습되어 온 노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부모의 출신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班婢·班奴인 경우였으며 奴 忠業의 경우만 父가 良人 忠先, 母가 班婢 三德으로 기록되어 있어 忠業은 母系를 따라 奴婢에 속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또 奴 忠業의 경우는 숙종 37년(1711), 奴 乙民의 경우

10) 「金麗豪準戶口」Ⅰ·Ⅱ·Ⅲ 및 「丁酉式金碉準戶口」 참조

는 숙종 44년(1718), 婢 順禮의 경우는 영조 8년(1732), 婢 兮德의 경우는 영조 18년(1742) 逃亡奴婢로 기록하고 있으나[11], 순조 4년(1804) 자료부터는 기록하지 않아[12] 이들의 죽음이 확인되었거나 연령상 죽었다고 생각된 경우에 자료에서 삭제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金麗豪準戶口」의 영조 23년과 영조 26년간의 노비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영조 23년 자료에 보이던 奴 太徽故와 世巾이 영조 26년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영조 26년 자료에 보이는 奴 於忝伊가 영조 23년의 자료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器谷面에서 漢城府로 이거했던 3년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증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3]. 또 「金麗豪準戶口」의 영조 26년과 영조 32년의 자료에서 보이는 노비소유현황은 우선 기재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영조 26년 자료에서는 노비의 소유현황을 지역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率奴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조 32년 자료에서는 漢城府에서 거느리고 있던 率婢와 龍仁奴·水原奴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음이 우선 눈에 띈다. 또 영조 26년의 자료에 보이던 奴 蓖卜과 升元·庚戌 등이 영조 32년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영조 32년의 자료에 보이는 奴 甲辰·業同故·太金, 婢 尙德 등이 영조 26년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14]. 아울러 영조 26년 자료에 龍仁奴로 기록하고 있는 婢 得禮 등이 영조 32년 자료에는 水原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器谷面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11) 위와 같음

12) 순조 4년(1804) 「甲子式金星弼準戶口」, 헌종 3년(1837) 「丁酉式金鶴遠準戶口」, 헌종 9년(1843) 「癸卯式金裕商弼準戶口」 참조

13) 이들의 나이가 太徽故의 경우는 알 수 없고 영조 23년 成籍 당시 世巾의 경우는 20세로 기록되어 있어 영조 26년의 자료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고, 於忝伊의 경우는 영조 26년의 자료에 19세로 기록되어 있어 영조 23년과 영조 26년 3년사이에 새로 편입된 노비로 보인다. 於忝伊는 이후 영조 32년의 자료와 정조 1년의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다(영조 32년(1756) 「丙子式金麗豪準戶口」 및 정조 1년(1777) 「丁酉式金碉準戶口」참조)

14) 영조 26년의 자료에 보이고 영조 32년의 자료에 보이지 않는 奴 蓖卜·升元·庚戌의 나이는 각각 52·37·18세로 기록되어 있어 奴 蓖卜의 경우는 자연감소로 짐작되지만, 나머지 奴들이 영조 32년의 자료에 보이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또 영조 32년의 자료에만 보이고 영조 26년의 자료에 보이지 않는 奴 甲辰과 婢 尙德은 그 나이가 각각 13·9세로 기록되어 있어 이전 자료에는 나이가 어려 기록되지 않았다가 영조 32년에 이르러 비로서 노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며, 奴 業同故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奴 太金과 太卜의 경우는 각각 23·17세로 기록되어 있어 영조 26년과 32년 사이에 새로 편성된 노비로 짐작된다.

것과 관련을 가진다[15].

영조 32년의 「金麗豪準戶口」와 정조 1년(1777) 작성된 그의 아들 「金碉準戶口」를 비교할 때, 「金碉準戶口」는 노비를 크게 龍仁奴와 原州奴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으며, 노비의 소유 현황에 있어서는 영조 32년에 소유하고 있던 노비가 20여명이던 것이 정조 1년에는 2배가 넘는 44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많은 수의 노비가 20년 사이에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6]. 이중 영조 32년 자료에는 보이나 정조 1년에는 보이지 않는 노비가 영조 32년 成籍 당시 48세였던 奴 時萬·54세의 婢 時德·33세의 奴 葩男·39세의 婢 桂花·22세의 奴 成信·17세의 婢 玉丁·13세의 奴 甲辰·연령 미상의 奴 業同故·23세의 奴 太金 등 9명으로 확인되는데, 成籍時期가 약 20여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자연증감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영조 32년에 보이지 않고 정조 1년 작성된 「金碉準戶口」에 보이는 노비가 奴 49세의 已兮를 비롯하여 率奴 24명, 53세의 婢 一每를 포함한 原州奴 7명, 숙종 41년(1715) 도망한 婢 卜烈·영조 32년(1756) 도망한 婢 吉每 등 逃亡奴婢 2명 등 모두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金碉때 이르러 상당수의 노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17].

金星弼은 碉의 손자로 이 문서들은 碉의 아들이자 金星弼의 父인 幼學 金樂有의 것을 결실하고 있다. 「金星弼準戶口」는 순조 4년(1804)에 작성되었는데, 노비의 기재 방식은 「金碉準戶口」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龍仁과 原州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중 용인에서 거느리고 있던 노비가 31명, 원주에서 거느리고 있던 노비가 8명으로, 노비의 전체 소유현황은 39명으로 1777년보다 5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18].

---

15) 이것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수원 인근에 위치한 용인의 器谷面이 수원 지역으로 편입된데 그 원인이 있다(『영조실록』 영조 31년 11월 기축).

16) 정조 1년(1777) 「丁酉式金碉準戶口」 참조. 또 奴婢秩을 龍仁奴와 原州奴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용인 이외에 원주에도 田庄이나 先塋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추측된다.

17) 노비의 증감 원인을 혼인으로 인한 妻家에서의 증여, 형제간의 분가로 인한 노비의 분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역시 알 수 없고, 단순히 妻家에서의 증여만이라고 추측하기에도 그 수가 너무 많다.

18) 순조 4년(1804) 「甲子式金星弼準戶口」 참조

이중 정조 1년과 순조 4년의 자료에 함께 보이는 노비는 순조 4년 成籍 당시 79세의 고령이었던 婢 一每·50세의 婢 四德·39세의 奴 耉老昧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58세의 奴 福尙 등 나머지 36명의 노비는 모두 새로 편입된 노비로 확인된다[19]. 또 39명의 노비중에는 成籍 당시 58세였던 婢 龍今 등 5명의 原州奴가 포함되어 있다.

金鶴遠은 星弼의 아들로 그의 호구자료는 헌종 3년(1837) 작성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당시 17세였던 아들 啓商을 率子로 데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 이 문서는 앞의 것인 그의 父 星弼의 準戶口 보다 약 23년의 시기적인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앞의 문서와 비교할 때 노비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16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중 순조 4년의 「金星弼準戶口」와 헌종 3년의 「金鶴遠準戶口」 모두에서 확인되는 노비는 헌종 3년 成籍 당시 63세였던 婢 龍每·74세의 婢 世兮·43세의 婢 同骨禮〔혹은 同滑禮〕 등 3명에 불과하고 婢 壽禮를 비롯한 나머지 13명은 이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노비로 이들의 증가 원인 역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金裕商은 鶴遠의 아들로 그의 준호구 자료는 헌종 9년(1843)에 작성되었다[21]. 자료에 따르면 그는 자료 작성 당시 아직 분가하지 못한 12세의 동생 祐商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노비소유현황은 모두 25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년전인 헌종 3년에 작성된 父 鶴遠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鶴遠의 자료와 함께 확인되는 노비는 婢 龍梅 등 11명이며 奴 千只□ 등 나머지 13명은 새로 편입된 노비로 확인된다. 또 헌종 3년에 보이던 奴 得□·五福 등은 헌종 9년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 맺음말

이번 조사된 조선 후기 龍仁 器谷面의 경주김씨 가문의 준호구는 그 시대가 영조 23년(1747)부터 헌종 9년(1843)까지 약 100여년에 걸친 6代에 걸친 자료이다. 이를 간략히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 경주김씨는 중앙에서의 관직을 맡은 인물을 배출

19) 이 역시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다.
20) 헌종 3년(1837) 「丁酉式金鶴遠準戶口」 참조
21) 헌종 9년(1843) 「癸卯式金裕商準戶口」 참조

하지는 못했지만, 龍仁 器谷面 일대에서 유력 士族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근의 宜寧南氏·海州吳氏·驪興李氏 등과 같은 다른 士族들과 通婚圈을 형성함으로써 그 세력을 유지해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金麗豪의 경우는 영조 23년(1747)까지 器谷面에서 거주하다가 영조 26년(1750) 이전 漢城府로 이주하여 약 10여년간 漢城府에서 거주하였지만, 그 경제적인 기반은 龍仁에 그대로 두고 이거했다.

器谷面에서 경주김씨의 100여년 동안의 노비소유현황은 남아있는 호구자료가 지극히 일부여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金麗豪 때 대략 20여명 안팎이던 노비가 그의 아들 碩에 이르러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그 증손 鶴遠에 이르러서는 16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혼인으로 인한 처가에서의 증여·형제간의 분가로 인한 노비의 분할·노비의 사망과 출생으로 인한 자연증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겠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추측하기 어렵다. 또 이들 자료를 통해 그들은 龍仁 이외에 비교적 먼 지역인 原州에도 별도의 경제적인 기반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金麗豪準戶口 I

○ 時　代 : 1747年(英祖 23)

○ 規　格 : 41×87㎝

○ 材　質 : 韓紙

乾隆十二年十一月　日龍仁縣

考丁卯戶口成籍帳內器谷面第一里第本七統二戶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直金漢豪改名麗豪年五十七辛未生本慶州父通德郎載彬祖　贈嘉善大夫

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行通訓大夫工曹正郎敏敾曾祖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世

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政大夫鍾城都護府使元立外祖明義大夫濟興君枝胤本完山妻閔氏年五十三乙亥生籍驪興父通訓大夫行金川郡守海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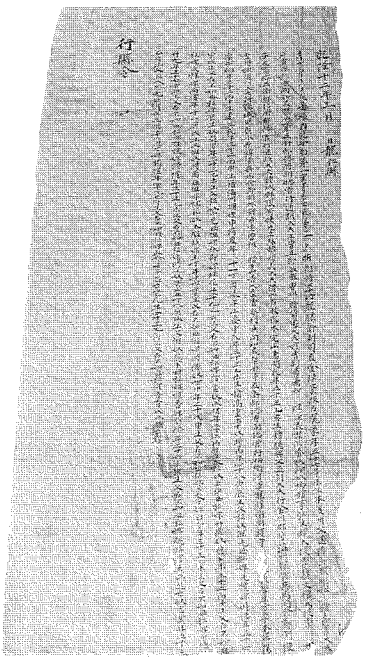
聖得祖通訓大夫行陽城縣監水原鎭管兵馬僉節制都尉希遠曾祖　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行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外祖學生方卓本溫陽

率子碉年三十二丙申生妻吳氏年三十二丙申生籍海州甥姪申鼎夏年三十一丁酉生本平山妻申氏年三十三乙未生籍高靈率奴時萬年四十八庚辰生父私奴能先母私婢先禮婢時德年五十四

甲戌生父名不知母私婢辰生奴葩男年三十三乙未生父私奴小乭母班婢秋節婢桂花年三十九己丑生父名不知母私婢信香奴成信年二十二丙午生父私奴云伊母私婢竹德奴葩卜年五十二丙子生父名不知母

私婢久禮婢尙禮年十八庚戌生父班奴時萬母班婢桂花奴太徽故婢玉丁年十七辛亥生父名不知母班婢時德奴世巾年二十戊申生父名不知母私婢莫今婢自兮年三十三乙未生父名不知母私婢自德□

升元年三十七辛卯生父名不知母私婢桂禮婢得禮



〈사진 1〉 金麗豪準戶口 I (1747)

年三十三乙未生父名不知母私婢得生奴庚戌年十八庚戌生父班奴葩卜母私婢禮香婢兮德年二十六壬寅生父名不知母私婢起臨禮壬戌逃亡奴忠業年五十三
乙亥生父良人忠先母班婢三德辛卯逃亡婢順禮年四十九己卯生父名不知母私婢此介壬子逃亡奴乙民年四十三乙酉生父名不知母私婢善香戊戌逃亡者

行縣令　　手押

2) 金麗豪準戶口 II

○ 時　代 : 1750年(英祖 26)
○ 規　格 : 43×87㎝
○ 材　質 : 韓紙

乾隆十五年　月　日漢城府
考庚午戶口成籍帳內西部礬石坊古巡廳契第　統　戶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直金麗豪年六十辛未生本慶州父通德郎載彬
祖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行通訓大夫工曹正郎敏敾曾祖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
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政大夫鍾城都護府使元立外祖明義大夫濟興君　枝胤　妻閔氏年
五十六乙亥生籍驪興父通訓大夫行金川郡守海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聖得祖通訓大夫行陽城縣監水原鎭管兵馬僉節制都尉希遠曾祖　贈嘉善大夫工
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行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宗義外祖學生方卓本溫陽率子碉年三十五丙申生妻吳氏年三十五丙申生籍海州甥姪申
鼎夏年三十四丁酉生本平山妻申氏年三十六乙未生籍高靈率奴時萬年五十一庚辰生父私奴能先母私婢先禮婢時德年五十七甲戌生父名不知母私婢辰生奴葩男年三十六乙未
生父私奴小乭母班婢秋節婢桂花年四十二己丑生父名不知母私婢信香奴成信年二十五丙午生父私奴云伊母私婢竹德奴葩卜年五十五丙子生父名不知母私婢久禮婢尙禮年

二十一庚戌生父班奴時萬母班婢桂花婢玉丁年二十辛亥生父名不知母班婢時德婢自兮年三十六乙未生父名不知母私婢自德奴升元年四十辛卯生父名不知母私婢桂禮婢得禮年三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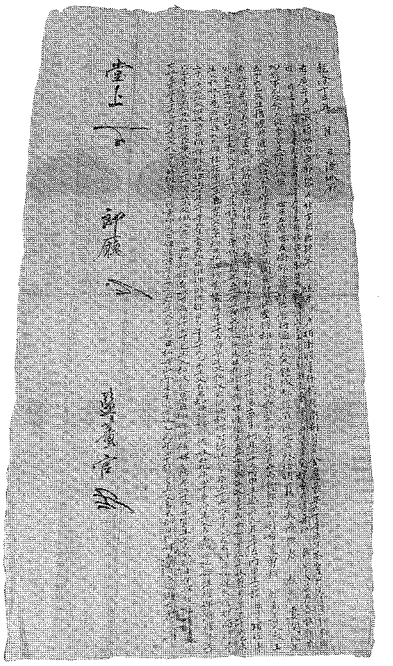
六乙未生父名不知母私婢得生奴庚戌年二十一庚戌生父班奴蔔卜母私婢禮香婢吉每年十四丁巳生父私奴起萬母班婢得禮婢兮德年二十九壬寅生父名不知母私婢起臨禮壬戌逃

亡奴忠業年五十六乙亥生父良人忠先母班婢三德辛卯逃亡婢順禮年五十二己卯生父名不知母私婢此介壬子逃亡奴乙民年四十六乙酉生父名不知母私婢善香戊戌逃亡者

堂上　手押

郎廳　手押

監董官　手押



〈사진 2〉 金麗豪準戶口 II(1750)

3) 金麗豪準戶口 III

○ 時　代 : 1756年(영조 32)

○ 規　格 : 40×66㎝

○ 材　質 : 韓紙

□□□□年　月　日漢城府

□□□戶口成籍帳內西部攀石坊古巡廳契第　統　戶嘉善大夫行龍　衛副護軍金麗豪

年六十六辛未生本慶州父通德郎載彬祖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行通訓大夫

工曹正郎敏敾曾祖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

館大提學　世子

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政大夫鍾城都護府使元立外祖明義大夫濟興君　　枝胤妻閔氏年六十二乙亥生籍

驪興父通訓大夫行金川郡守海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聖得祖通訓大夫行陽城縣監水原鎭管兵馬僉節制都

尉希遠曾祖　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行折衝將軍龍　衛副護軍宗義外祖學生方

卓本溫陽率子碨年四十一丙申生妻吳氏年四十一丙申生籍海州甥侄申鼎夏移居水原率婢玉丁年二十六辛亥生父名不知

母班婢時德龍仁奴時萬年五十七庚辰生父私奴能先母私婢先禮婢時德年六十三甲戌生父名不知母私婢辰生奴葩男年四十二乙未

生父私奴小乭母班婢秋節婢桂花年四十八己丑生父名不知母私婢信香奴成信年三十一丙午生父私奴云伊母私婢竹德婢尙禮年二十

七庚戌生父班奴時萬母班婢桂花奴於 忝伊年十九戊午生奴甲辰年十三甲子生婢尙德年九戊辰生父母上仝婢自兮年四十二乙未生父名不知

母私婢自德水原婢得禮年四十二乙未生父名不知母母私婢得生婢吉每年二十丁巳生父私奴起萬母班婢得禮奴業同故奴太金年二十

三甲寅生父名不知母私婢尙業奴太卜年十七庚申生父母上仝婢兮德年三十五壬寅生父名不知母私婢起臨禮壬戌逃亡奴忠業年六十二

乙亥生父良人忠先母班婢三德辛卯逃亡婢順禮年五十八己卯生父名不知母私婢此介壬子逃亡奴乙民年五十二乙酉生父名不知母私婢善香戊戌逃亡者

堂上　手押

郎廳　手押

監董官　手押



〈사진 3〉 金麗豪準戶口 III(1756)

4) 金碉準戶口

○ 時　代 : 1777年(正祖 1)

○ 規　格 : 55×66cm

○ 材　質 : 韓紙

乾隆四十二年 月　日龍仁縣

考丁酉戶口成籍帳內器谷面第十五統三戶幼學金碉年六十二丙申生本慶州父嘉

善大夫同知中樞府事 麗豪祖　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　載彬曾

祖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行通訓大夫工曹正郎　敏敾外祖通

訓大

夫行金川郡守海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閔聖得本驪興妻吳氏齡六十二丙申生籍海州父通德

郎　彦亨祖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五衛都摠府都摠管　明峻曾祖 贈純忠積德秉義輔祚功臣大匡

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世子師海興府院君　遂良外祖安陞本順興率子樂有年三十九己

未生子婦南氏齡四十戊午生籍宜寧率子樂友年三十二丙寅生子婦李氏齡三十三乙丑生籍

慶州率婢尙禮年四十八父班奴時萬母班婢桂花奴於屯伊年四十戊午生婢尙德年三十戊辰

生父母　上同婢自兮年六十三乙未生父名不知母私婢次德婢得禮年六十三乙未生父名不知母私

婢得生奴太

卜年三十八庚申生父名不知母私婢尙業婢已兮年四十九己酉生父名不知母私婢已丁奴卜尙年三

十二丙寅

生父私奴已才母班婢已兮奴叟音金年二十四甲戌生奴卜乭年二十戊寅生奴千金年十八庚辰生

婢卜愛年十三乙酉生奴卜金年十戊子生父母　上仝婢叟禮年三十三乙丑生父私奴承元母班婢得

禮奴卜先年二十九己巳生父母上仝奴叟音伊年二十一丁丑生父私奴業先母班婢卜烈奴允山年十

九己卯生奴

允乭年十五癸未生父母並上仝走禮年四十一丁巳生父名不知母私今春婢八月年三十五癸亥生父

名不知母私婢發

禮奴業龍年四十一丁巳生父名不知母私婢順德婢日每年三十二丙寅生父名不知母私婢凡禮婢順

愛年二十五戊寅生父私

奴亥俊母班婢走禮奴暹伊年二十一丁丑生父私奴命白母私婢尙禮奴斗暹年十九己卯生婢玉兮年

十二丙戌生父母並上仝婢

福愛年二十四甲戌生父私奴有得母班婢甘

丁奴葐乭年十四甲申生父班奴太卜母班婢

叟禮婢世兮年十四甲申生父

私奴成卜母班婢日每老 揷吉伊年十四甲申

生父班奴於屯伊母班婢八月原州婢一每年

五十三乙巳生父名不知母私

婢叔只婢葐今年三十二丙寅生父私奴莫山

母班婢一每奴士先年二十九己巳生婢四德

年二十四甲戌生婢古萬禮年二十一丁丑

生婢恚每年十五癸未生恚老昧年十三乙酉

生父母並上仝婢吉每丁巳生父私奴起葛母

班婢得禮丙子逃亡婢卜烈丁巳生父名不知

母私婢



〈사진 4〉 金碉準戶口(1777)

士每乙未逃亡婢兮德壬寅生父名不知母私婢起臨禮壬戌逃亡婢順禮己卯生父名不知母私婢此介

壬子逃亡奴忠業乙亥生父名不知母班婢

三德辛卯逃亡奴乙民乙酉生父名不知母私婢善香戊戌逃亡者

行縣令 手押

5) 金星弼準戶口

○ 時 代 : 1804年(純祖 4)

○ 規 格 : 49×85cm

○ 材 質 : 韓紙

龍仁器谷面甲子式戶口單子

五十八統五戶幼學金星弼年三十二癸巳生本慶州

父學生　樂有

祖通德郎　碉

曾祖嘉善大夫同知□□□□　麗豪

外祖通訓大夫行□羅道察□　□□本宜寧

妻李氏齡二十八丁酉生籍驪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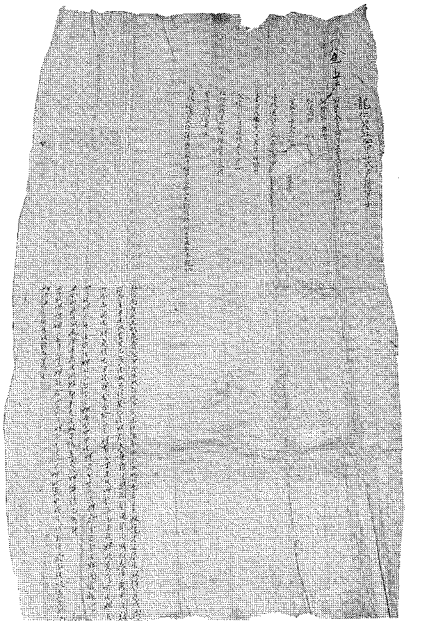
父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　彦一

祖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鳳禎

曾祖成均進士　□

外祖通政大夫行興陽縣監羅州鎭管同僉兵馬節制

都尉李五岳本龍仁



〈사진 5〉 金星弼準戶口(1804)

私奴福尙丙寅生奴叟音金甲戌生奴福乭戊寅生

福金庚辰生奴順乭辛丑生奴龍才壬辰生奴得才

戊戌生

奴得丸辛丑生奴有甘乙亥生奴昌得癸巳生奴今大庚戌生奴關金戊午生奴九老味庚申生私婢

州兮己酉生婢鬼禮乙丑生婢今兮癸巳生婢有兮丁未生婢龍每乙未生婢順愛戊寅生婢支□

癸巳生婢年今年壬寅生婢玉今丙戌生婢世今甲申生婢貞兮壬辰生婢命兮己酉生婢同骨禮丙辰□□

奉金丙辰生奴乭金辛亥生奴好郎辛亥生奴占福辛亥生婢得禮乙亥生

原州奴婢秩婢一梅年七十三婢龍今丙寅生婢今萬禮丁丑婢四德甲戌生婢莟禮癸未生奴耋老味己

□□

婢順伊壬寅生奴修云甲辰生

6) 金鶴遠準戶口

○ 時　代：1837年(憲宗 3)

○ 規　格：43×77cm

○ 材　質：韓紙

□□□□□下葛川里戶口帳內第九統第二戶

幼學金鶴遠年三十九己未生本慶州

父學生　星弼

祖學生　樂有

曾祖通德郎　碉

外祖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　彦一

妻尹氏齡四十二丙辰生本南原

父成均進士　龍欽

祖通訓大夫行司圃暑別提　昌奎

曾祖通訓大夫行司宰監主夫　贈戶曹參判　儉

外祖通訓大夫行永柔縣令成川鎭管同僉兵馬節制

都尉鄭文達本延日

率子啓商年十七辛未生

奴婢秩

婢龍梅一所生婢壽禮二所生奴千二曷

婢世兮一所生婢同骨禮二所生奴五長

婢永敏一所奴盛哲

婢丁梅

婢福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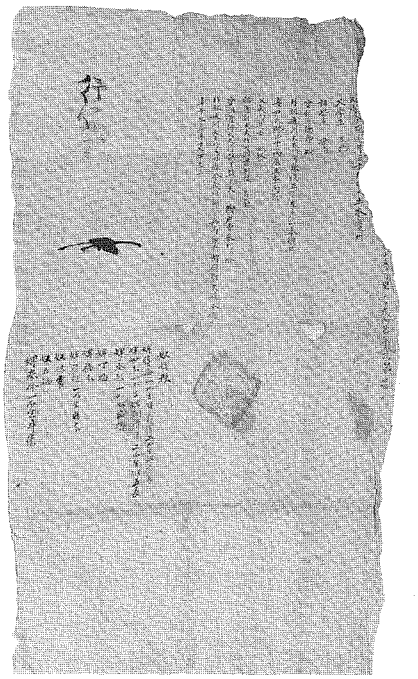
婢福禮一所生暗兮

奴得□

奴五福

婢奉今一所生斗崇

行縣令　手押



〈사진 6〉 金鶴遠準戶口(1837)

7) 金裕商準戶口

○ 時　代 : 1843年(憲宗 9)

○ 規　格 : 65×52㎝

○ 材　質 : 韓紙

道光二十三年癸卯式龍仁器谷面下葛川里戶口帳內第一統第五戶

幼學金裕商年二十三辛巳生本慶州

父學生　□□

祖學生　星弼

曾祖學生　樂有

外祖成均進士　尹龍欽本南原

妻尹氏齡二十二壬午生本海平

父學生　致崑

祖御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慶冕

曾祖御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信東

外祖通政大夫行長湍都護府使兼長湍鎭管同僉兵馬節制都尉具世溫本陵城

奴婢秩

婢龍梅年六十九乙未生一所生婢奉今二所生婢壽禮三所生奴千二曷

婢世兮一所生婢同骨禮二所生奴五長

婢永敏一所生奴醫哲二所生婢孟列三所生婢妙列

婢丁梅一所生奴尙得二所生奴

婢壽禮一所生婢千任二所生奴鶴伊三所生婢

率婢福禮年四十一癸亥生一所生暗兮年十七丁亥生

奴命兮一所生婢福兮年二十五己卯生

率奴三月金年三十九乙亥生

奴五福

奴乭金

奴順乭



行縣令　手押

〈사진 7〉 金裕商準戶口(1843)

벼루에 대한 小考

장 세 훈

I. 들어가는 말

인간과 문자의 관계처럼 서예와 문방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학적인 면에서의 문방구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인류는 2만 2천년전 라스코 등 몇몇 동굴벽에 그림을 남겼으며, 이후 인간이 문자를 사용한 것은 6000여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수 많은 세월동안 선화(線畵), 그림, 기호 등으로 이어진 문자는 차츰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기원전 2000여년경에 만들어졌고, 기원전 약 1500년경에 기호화되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사이에 체제가 완비된 듯 하다.

한자는 귀갑에 새겨진 갑골문에 기초한 이후 나무나 섬유 등에 쓰여졌으며, 종이 발명으로 서예라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 진대에 이르러 서예는 급격한 발전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서예와 함께 등장한 벼루와 먹도 그 역사가 깊으며, 정신문명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문인화가인 우봉 조희룡은 "벼루란 단지 붓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가는 것이며 먹갈기를 옥처럼 익힌다면 성(性)을 기를 수 있으며 갈아도 닳지 않으니 생(生)을 기를 만하다"고 했으며 또한 먹을 일러 물건에 닿으면 어두워지고 만물을 소생시키기도 한다는 생각으로 벼루를 갈고 먹을 쓰는 일반적인 행위 이상의 공부하는 수양으로 여긴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벼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벼루의 역사

일반적으로 벼루를 연(硯)이라 하고 이와같은 뜻으로 研, 硏을 쓰기도 하며 이는 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황제가 玉을 얻어 묵해(墨海)를 다스리고 전문(篆文)을 써서 제홍씨의 研이라고 하였다 하는데 묵해가 바로 벼루를 말한

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칠서(漆書)라는 말이 전하는데 이는 옻나무즙을 얇게 깍은 대나무에 썼던 것으로, 매우 보편화된 듯 중국의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竹簡이라 한다. 한나라때에는 칠연(漆硯)이 성행한 듯 하며, 이것은 썩지 않는 옻나무즙을 모래와 혼합하여 나무에 벼루형태로 발라서 만든 것으로 황제가 태자에게 칠연(漆硯)을 하사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추론하면 묵서(墨書)도 또한 보편화 된게 아닌가 한다.

1969년 서주의 동한묘에서 도금한 금동연이 들어있는 괴묵연이 출토되었고, 1975년에는 호북 강능고분에서 기원전 167년에 죽은 요씨 묘에서 많은 죽간과 돌벼루, 먹, 붓 등이 출토되었다. 벼루는 갈아 쓴 흔적이 남아 있으며 먹은 송연묵으로 1.5cm 정도의 작은 먹이었다.

또 한나라때 먹을 전문으로 만들었다는 위중장이란 사람도 기록에 전하는 것으로 보아 문방용구 모두가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34년 낙랑 채협총에서 연상과 함께 벼루가 출토된 이래 1924년 석암리 울묘분, 낙랑고분 제9호분 등에서 출토된 자료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경남 의창에서 삼한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붓의 출토로 우리나라 문자사용의 시점을 기원전 2~3세기 경으로 생각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도자기벼루, 발이 셋 달린 벼루 등이 꽤 많이 출토되었고,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완전한 벼루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벼루로 현재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모양은 원통형이며 높이 8㎝, 지름 16.5㎝의 것으로 잔과 같은 형태의 밑받침과 능형문을 조각한 몸통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원형의 연마부 주위엔 물집이 있으며, 물집에는 먹이 남아있어 그 사용여부를 알 수 있다.

최치원의 계원필경에는 벼루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금으로 칠하고 은으로 장식한 벼루집과 조각된 벼루에 대한 것으로 깊이 간직하면 마음이 텅비어져 향기만 머금을 것이라 했고, 향기로운 먹을 갈아 후세에 전하면 덕의 향기가 더욱 꽃다울 것이라 했다라는 설명으로 보아 벼루를 귀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종이를 만드는 지장과 먹을 만드는 먹장이 있었으며 특히 종이는 고려지라 하여 중국에서도 널리 애용되던 매우 우수한 것이었다. 이즈음 벼루는 삼국시대 유행처럼 많았던 도연이 차츰 돌벼루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식은 삼국시대 다리가 달린 벼루에서 다리가 없는 풍자(風字)형의 돌에 한쪽의 경사가 깊은 벼루로 변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실용연으로서 작은 태사연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실로 다양한 벼루가 나타나는데, (鐵硯, 石硯, 水晶硯, 銅硯, 陶硯, 骨硯, 瓦硯, 塼硯, 木硯, 土器硯 등) 아름다운 문양부터 소박한 서민의 냄새가 물씬나는 투박한 행연(行硯)까지 많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벼루는 실용적인 면에서 글씨를 쓰기 위함과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완상용 차원의 벼루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갖고 있었으며 사대부 등의 이상과 꿈을 함께 했던 장중지보로 여겨지기도 했다.

Ⅲ. 좋은 벼루의 조건

일찍이 중국사람들의 벼루에 대한 애용과 집착은 많은 자료를 낳게 했으며 그중에서도 송대의 문학자였던 구양수의 연보와 채양의 연기, 왕순의 연록, 돌에 절을 했다는 미불의 연사 등 송대에만도 벼루에 대한 찬술(撰述)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실용벼루로서 좋은 벼루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가지보로 여겼다. 그들이 찬술(撰述)을 대략 살펴보면 당대(唐代)부터 이미 알려진 단계연과 흡주용미연 등 돌의 특질을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송대(宋代)가 벼루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과 저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문학, 예술방면으로 커다란 파급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예에 일가를 이루었다는 미불의 서화감식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화작품도 대단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돌에 대한 호벽(好癖)이 있어 아름다운 돌을 만나면 옷을 입혀 절하고 장인(丈人)이라고 외쳤다 한다. 참으로 특이한 취미가 있었던 듯하며 특히 벼류에 대해서는 연사(硯史)의 저술과 벼루에 대한 심미안으로 석질에 의한 발묵을 벼루의 제일조건으로 여겼다. 벼루의 석질에 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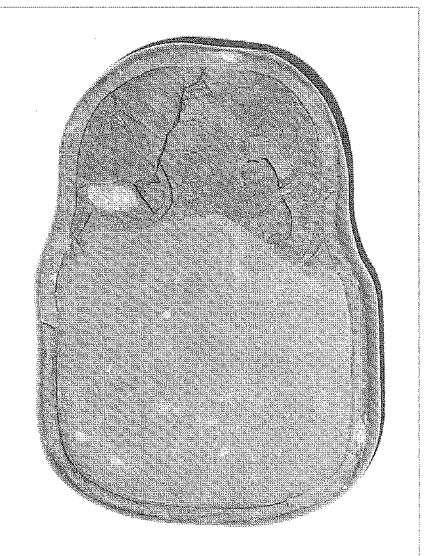
여 이르기를 천하의 벼루는 발묵하여 오래 사용하여도 잘 마르지 않는 돌은 반드시 약간 연해서 두드리면 소리가 낮게 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바닥이 점차 우묵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면서 필요한 석질의 형태라고 했다.

발묵에 대하여는 역시 송대 채양의 말에 따르면 벼루에 간 먹을 붓에 담가 먹을 묻히면 붓의 움직임이 술술 투합하여 부착(付着)하지 않는 것을 발묵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먹의 성질도 좋고 먹의 색깔도 아름다워서 글을 쓰는 조건에 가장 알맞다는 말일 것이다.

그후에 발묵의 의미는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보통 잘 갈리고 먹물이 기름이나 옻칠과 같이 빛을 내어 먹색에 광택이 나게 하는 성질을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석리(石理)에 의해 자연스런 먹빛의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이미 송대에 이르러 벼루와 먹에 대한 이론이 성행, 정리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Ⅳ. 米芾의 硯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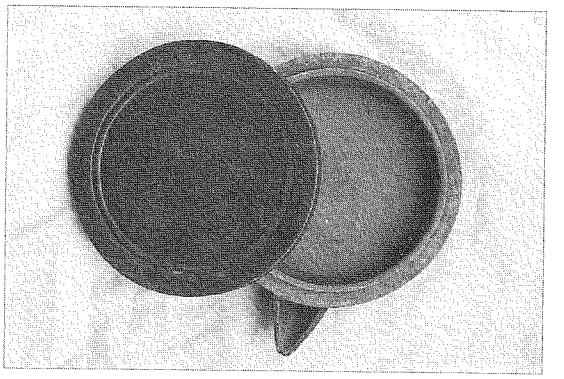
대체로 중국인들은 벼루에 대하여 단계연(사진1)을 제일로 치고 다음이 흡주연(사진2) 등을 꼽지만, 미불의 연사를 간략히 서술하여 그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1〉 連花文 端溪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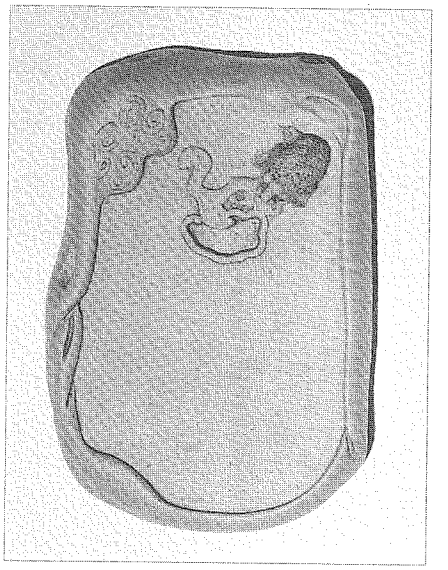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미불은 매우 뛰어난 감식가이자 서화가였듯이 연사에서도 사람이 벼루에 대한 기호가 제각각이지만 매우 공통성이 있는 것을 공론이라하고 자신의 견해를 비추고 있다. 미불은 벼루의 실용성에 대하여 "옥은 솥이 되지 못한다, 도자기는 기둥이 되지 못한다, 비단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더운 여름에는 좋지 않다고 했으며 벼루도 석리(石理)가 발묵(發墨)하는 것을 제일로 하고 색은 이것의 다음이요, 조각은 또 그 다음이요, 문양

또한 아름다워도 실용성을 잃는다고 했다." 한 것은 역시 서화 감식가와 작가다운 표현이다.


〈사진 2〉 水注式 細羅文硯

광주 방성현 갈선공 암석에 대하여 석리(石理)는 햇빛에 비추어 보면 옥과 같이 아름답고 거울과 같이 광택이 있다. 먹을 갈 때는 징니연(澄泥硯)(사진3)과 같고 미끄럽지 않다. 먹을 다 갈아도 뜨겁게 되지 않으며 거품을 일으키나 이는 아교의 탓이다. 고묵(古墨)에 거품이 일지 않는 것은 아교가 이미 효력을 잃어서이다.

만약 돌이 미끄러워서 오래 갈아도 먹이 늦게 갈리면 그것은 먹과 돌 양자가 모두 강해서 열을 낸다. 고로 아교가 거품을 일게 하는 것이다. 돌이 이와같이 뜨겁게 되지 않고 약간 오래되어 발묵하며 광택을 내는 것이 칠과 같고 기름과 같이 반들반들 함이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오랫동안 써도 무뎌지지 않고 색은 붉은 빛깔로 사랑할 만하며 소리도 평탄하여 운치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필자는 아직 이 돌을 본 바 없으나 대략의 설명만으로도 알 수 있겠다.


〈사진 3〉 澄泥硯

또 온주 화엄니사 암석을 가로되 전술한 바와 비슷하며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벼루로 만들 때 보통 이 돌에는 모래만한 하얀점이 있는데 먹을 가는 바닥부분을 피하도록 했다. 흰점부분의 성질이 옥과 같은 성질로 단단해서 가공이 어렵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먹을 갈기 쉬우며 두드리면 소리가 평탄하고 울림이 없다. 옛날 왕희지의 벼루를 보았을 때

이 돌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수장하고 있는 옛벼루(古硯)에는 가끔 이 돌이 있다고 하여 옛부터 이 돌이 서가에게 널리 쓰였음을 말한다.

다음에는 중국인들이 최고로 치는 단주암석(端州巖石)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암(巖)에는 하암(下巖), 상암(上巖), 반변암(半辺巖), 후락암(後樂巖) 4종류가 있다. 전에 단주에 가서 보고들었기에 상세히 알고 있다"고 했으며, 그 장문의 설명을 간략히 적어보면 "하암을 제일로 치고 여기에서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굴을 뚫어서 깊이 들어간다. 계절에 상관없이 돌은 모두 물에 잠겨 있다. 벼루를 공물로 헌상한 때에도 물을 제거하며 1개월 정도 걸려서야 돌이 있는 곳에 다다랐으며, 돌은 질이 가늘고 두드리면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난다. 눈은 구욕새의 눈으로 둥글고 푸르며 무리(暈)가 많고 밝아서 옥과 같이 아름답다. 돌이 약한 곳은 점토처럼 소리가 나지 않으며 먹이 갈리지 않는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돌은 온윤(溫潤)하고 먹이 빠르게 갈리며 뜨겁게 되지 않고 거품도 일지 않는다. 그러나 약간 오래두면 물이 스며들고 기름과 같은 윤을 낸다. 또 갈아도 바닥이 닳지 않는다고 했으며, 암이 깊은 곳에 있어 인부의 수고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채굴하는 만큼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매우 귀한 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관(官)의 벼루는 대부분 이것이고 매년 공물(貢物로) 헌상하고 있는 것은 상암이다. 상암은 산의 위에 있고 돌의 성질은 건조하고 자색이 깊고 석리(石理)는 조밀하고 성질은 단단하고 눈은 황색으로 푸른색의 것은 색이 흐려서 하암에 미치지 못한다. 먹이 잘 갈리는 것이 있고 먹을 거부하는 것이 있다. 잘 갈리는 것은 작은 모래입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며 나중에는 무디어져 광택을 내고 먹을 거부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일정한 시기에 벼루바닥을 연마해 주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반변암은 산의 중간에 있다. 석리는 상암과 같으며 색은 대개 청자색으로 검은 색에 가깝다. 눈은 알(卵)과 같이 길고 장님의 눈과 같은 것이 있다. 가운데는 흰점이 있고 사안(死眼)인 것은 중심이 흑점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눈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붓을 닳게 한다고 하였으며 후락석은 화분(花盆)이나 도장, 문진등의 기물을 만들며 대개 모래가 섞여 있고 눈이 없으며 간혹 석질이 매우 가늘고 연(軟)한 것이 있으며 발묵하여 바닥이 무디어지지 않고 이것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귀히여기지 않으며 실용성은 사실 반면상암의 위에 있는 것도 있으나 쉽게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흡연무원석(歙硯婺源石)을 설명하고 있다. 흡주에는 벼루 석동(石洞)이 있으며 종류가 가장 많다고 했다. 붉은 자색계통의 돌에는 하자가 많다. 주민들은 선(線), 맥(脈), 격(隔)의 3종을 병으로 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라문(細羅文)에 별(星) 무늬가 없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친다. 대부분 발묵이 좋고 바닥이 무뎌지지 않는다. 다만 보통과 같은 색의 돌로서 기괴한 것을 높이 친다. 적자색의 돌은 무늬가 없고 하품이 적으며 대추나무와 같은 광택이 난다. 이 돌은 먹과 싸워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먹을 간수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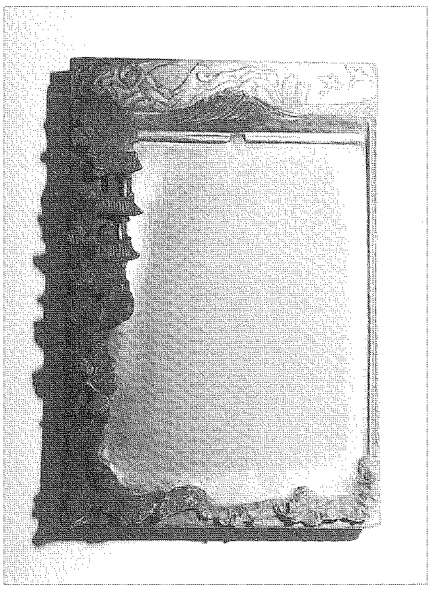
또 어떤이에게서 한 장의 금사라문연(金沙羅文硯)을 본적이 있는데 그 문양의 절반은 금, 절반은 검고 광채는 보통의 것과 달랐다. 대략 천여장의 벼루를 보았지만 색이 와전(瓦塼)과 같아서 평가가 높지 않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청주 청석이나 도연 등 이십여종의 벼루돌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지면상 생략하고 이어서 벼루의 성품에 대한 것을 간략히 기술한다. 이르기를 대개 방형의 벼루가 발묵하고 오래써도 무뎌지지 않는 것은 돌이 약간 연하고 두드리면 소리에 낮은 울림이 있다. 세월이 지남과 함께 벼루바닥이 파여진다.
발묵하지 않는 것은 돌이 단단하며 두드리면 울림을 낸다. 일단 사용하게 되면 거울위에 먹을 가는 것 같이 된다. 본인의 품평은 실제 눈으로 보아 직접 수장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들은 것은 많지만 의심스러운 것을 전하지 않기로 한다. 옛날 벼루는 좋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기술했듯이 벼루에 대한 사심없는 생각을 옮기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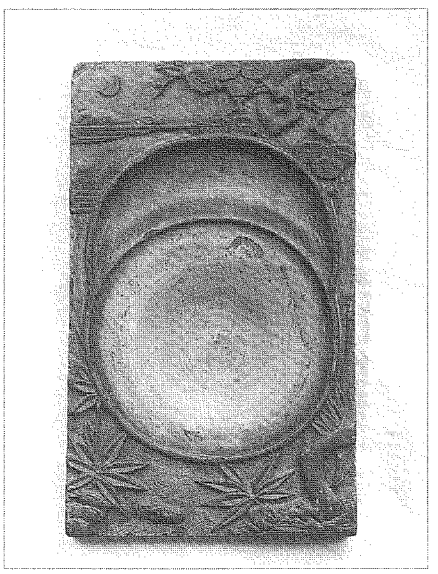
끝으로 연사의 말미에는 자신이 보았던 벼루와 수장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려연(高麗硯)이라는 대목의 문구를 보면 "고려연은 치밀해서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발묵하며, 푸른빛에 흰색을 머금었으며 금성(金星)이 있다"라고 호평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벼루에 대한 식견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푸른빛에 흰색을 머금은 우리 벼루가 어느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주석(海州石) 계통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중에 서유구의 임원십육지에 남포석(사진4)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서유구는 이 글에서 "남포석은 금사문(金沙文)이 으뜸이고 은사문(銀沙文)이 그 다음이고 화초문(花草文)이 또 그 다음이다. 돌의 질은 경질로 먹물을 빨아들여 엉키게 하지 않으며 적당하고, 돌의 결이 각박하면 먹색이 탁하고 돌의 결이 경질이면 묵색이 맑고 윤기가 있어 아름다운 색을 가진 남포석은 먹과 같다"라고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나 "좋은 돌은 단계연이나 흡주연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남포에 있는 성주산에서 나오는 금사나 은사문 벼루는 매우 귀하여 일반인이 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알지 못할 일이다.



〈사진 4〉 南浦石 洞天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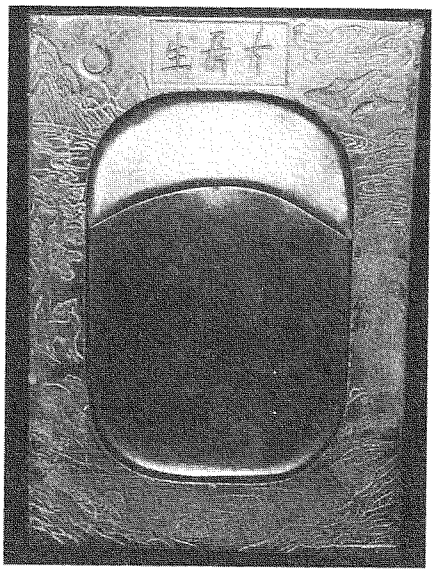


〈사진 5〉 渭原花草石 日月松竹硯

또 우리나라에서는 벼루의 산지로 유명하며 좋은 돌이 나오는 곳이 수십곳에 이르지만 지금은 벼루를 만드는 사람이 적어 옛날과 같이 좋은 벼루를 얻기는 힘들다.

지금은 갈 수 없는 이북의 평안북도 위원 화초석(사진5)과 자석, 청석은 매우 아름다운 돌이며 그 밖에 함경북도 종성군의 종성석, 평양

의 대동강석 등이 있고 이남에는 파주의 회청석,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 나오는 화석이 깔린 화석연, 평창의 자석과 진천의 회청석, 단양의 자석, 안동의 자석(사진6) 등 많은 곳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은 벼루를 만드는 사람이 적고 돌의 질과 모양에 따라 품격높은 벼루를 생산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으며, 대개가 기계로 깍아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6〉 紫石 十長生硯

V. 벼루의 사용에 대하여

송대의 당적이 지은 흡주연보에 벼루를 만드는 법과 간수하는 법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벼루의 내부와 외부에 납(蠟)을 바른다고 했다. 이는 돌에 좋기 때문이며, 돌은 온윤광결(溫潤光潔)해서 가히 사랑할 만하다. 그래도 돌은 손상되지 않으며, 먹이 앙금져도 달라붙지 않고 닦기에도 편하다". 또 이를기를 "처음부터 생강의 즙을 먹을 가는 곳에 발라두면 착묵(着墨)이 좋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알지 못해 단지 돌의 병든 곳을 그저 묵납만 가지고 덮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먹의 빛을 낼 때도 처음 먹을 갈 때에 조금의 납을 첨가하지 않으면 먹색을 막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3~5번 하면 이점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했으며, 또 "손의 기름기에 닿으면 반드시 흔적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 납을 사용한다. 이것은 그 염려를 면하기 위해서이다. 벼루는 매일 씻어 그 쌓인 먹물을 깨끗이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먹빛이 영택하게 된다"고 한 말처럼 서예가가 좋은 작품을 쓰기위해서는 마땅히 벼루 사용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알아두고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벼루를 만들어 큰 솥에다 수증기로 쪄서 뜨거운 벼루에 봉밀을 칠하면 녹아서 깊이 스며들고 그것이 식을 때까지 계속 문질러서 광택이 나도록 하

지만, 요즘은 석유불에 구워서 하기도 하는데 이는 돌에 변화가 생겨 좋지 못한 방법이다.

봉밀을 칠하는 이유는 본래 돌 자체에 광택이 없으므로 밀을 발라 돌표면에 막을 형성시켜 검은 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또 벼루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연민 선생의 작품에 세연경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 벼루는 날마다 씻어야 한다. 만일 씻지 않은 채 2~3일이 지나면 곧 먹빛이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또 날마다 씻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은 자주 갈아야 한다. 봄이나 여름철에 먹물을 오랫동안 벼루에 두면 아교기운이 어려서 쓸 수 없을 것인바 자주 씻어야 한다. 뜨거운 물이나 헝겁, 종이 등도 좋지 않다. 다만, 연방(蓮房)과 고탄(枯炭)으로 씻는 것이 좋다. 또 단계에는 세연석이 있으며 반하(半夏)를 쪼개어 씻어도 좋다"고 한 내용은 벼루를 아끼는 모든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다만 요즘 서가들은 벼루에 봉망이 무뎌지거나 상처가 났을 때 미세한 연마용돌로 물에서 가볍게 갈아주기도 하는데, 연방이나 고탄, 반하 등을 사용해도 좋지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연마석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VI.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송대 미불의 연사를 중점으로 벼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즘 서가들은 벼루를 아끼기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그 품격에 대해서 완미할 여유도 없는 듯 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먹물을 사용하고 그 빛깔에 대해서도 유행처럼 중국화선지에 흐릿하거나 푸른 것을 선호하는 듯 하지만 자신의 취향에 알맞는 벼루와 또 그 벼루에 알맞는 먹의 사용으로 자신의 글씨에 품격이 더해진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지금은 수출입이 자유로와 중국의 문방이나 일본의 문방이 많이 들어오지만 좋은 것을 찾기란 또한 쉽지않고 먹이나 붓도 삼국이 공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겠다. 먹은 중국이 그을음과 아교의 비율이 100 : 120, 일본은 100 : 60 정도이고 우리는 그 중간에 속해 흔히 중국 먹은 건조해지면 터지기 일쑤다, 붓도 중국은 유필로 어지간한 사람이 쓰면 흐느적거리며, 일본 붓은 호필이 많아 강하지만 우리나라 붓은 먹과 같이 중간이다. 만약, 우리의 남포 금사문벼루에 중국 송연을

간다면 간혹 먹에 섞인 이물질로 서걱서걱해서 벼루 바닥에 흠집이 나고 많은 아교 성분으로 인해 붓이 잘 나가지 않게 되듯이 벼루와 먹의 궁합이 중요함을 알아야겠다.

참고문헌

1. 이가원, 묵선첩, 연문사, 1980
2. 벼루장, 문화재관리국, 1988
3. 권도홍, 벼루, 대원사, 1989
4. 최열, 근대수묵 채색화감상법, 대원사, 1996
5. 中田勇次郎, 文房清玩四, 二玄社, 1976
6. 서화 재료의 길잡이, 송지방, 1991
7. 조르주 장 지음, 이종인 옮김, 문자의 역사, 시공사, 1995

여 백

Ⅱ. 사업내용

1. 전　　시

1) 상설전시

2) 특별전시

2. 연구조사 및 학술활동

3. 소장품 관리

4. 행사 및 사회교육

5. 출판 보급

6. 대외 협력

7. 위원회 활동

8. 박물관 동정

여 백

1. 전시

1) 상설전시

특정유물에 있어 장기간 전시로 인한 유물의 피로도를 감안하고 가급적 경기도 관련 유물을 전시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추진되었다. 기존의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전시자료만 교체하되 총 154점의 유물을 격납하고 총 149점의 유물을 추가전시함으로써 교체전 유물수 총 777점에서 교체후 유물수는 872점으로 증가하였다. 각 전시실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고고미술실

전시자료는 도내 출토지가 명확한 유물을 중심으로 교체하였으며 파티션과 쇼케이스 7개를 추가 설치하여 전시실 구성이 좀더 짜임새 있도록 하였다. 별도 쇼케이스를 제작설치하여 포천 영송리 부뚜막 유구를 복원전시하였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한자위주인 기존의 네임택을 보완하여 우리말로 쉽게 풀어쓴 것을 배치하였다.

(2) 문헌자료실

탁본 전시코너를 문방사우 전시코너로 대체하였다.

(3) 민속생활실

기존의 민속생활실은 경기도의 민속과 생활문화를 알리기위한 방편으로 전시기법상 모형과 영상을 주로 활용하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문화의 실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쇼케이스 2개를 새로이 배치하여 장신구류 중심의 유물을 보완전시하였다.

(4) 한국의 문양 시리즈

전시실 사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양을 시리즈로 전시하는 코너를 신설하였다. 고고미술실과 문헌자료실 간 통행로의 벽면상에 "호랑이 무늬"에 관한 소형패널 6매를 제작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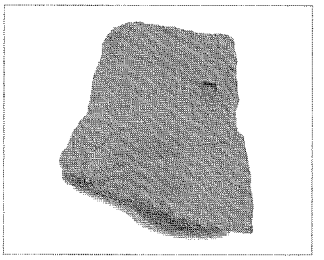
(5) 사이드보드판

자연스러운 동선유도를 위하여 고고미술실과 문헌자료실 그리고 민속생활실 앞에는 사인보드판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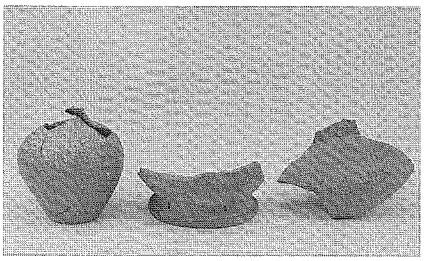
2) 특별전시회

(1) 지정문화재 순례 Ⅰ : 회암사와 봉업사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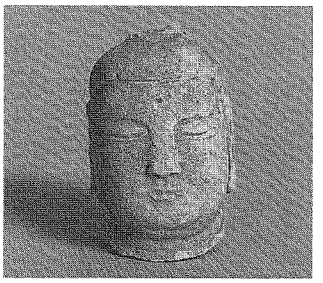
도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정 문화재들을 찾아보기 위하여 지정 문화재 순례전시 시리즈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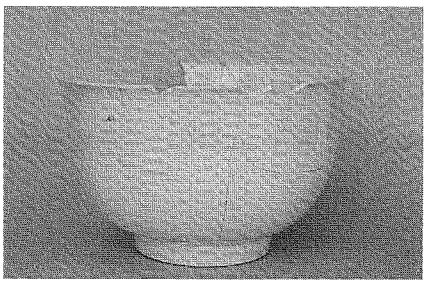
'귄귄'명 기와 편-봉업사지 출토



토기(土器)-봉업사지 출토



불두(佛頭)-회암사지 출토



백자발(白磁鉢)-회암사지 출토

그 첫 번째 전시로 도내의 지정문화재 가운데 우리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고 있는 회암사와 봉업사에 관련된 석조물을 주제로 하여, 새로이 발굴된 다량의 유물들을 처음으로 공개 전시하였다.

가. 전시기간 : '98. 4. 1 - '98. 5. 31

나. 전시장소 : 중앙홀

(2) '98 기획전 : 지역문화탐방 Ⅰ - '근대를 향한 꿈' 수원 · 용인 · 오산 · 화성

경기문화의 제양상을 권역별로 전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조명하기 위하여 지역문화를 찾아 특성을 조명해 보는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 특별전시회로서 200년전 근대화를 향해 꿈을 키워가던 당시 수원 · 용인 · 오산 · 화성 지역의 문화를 조명해 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맞아 현재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과거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실학의 이상을 담은 문헌들과 일종의 준공보고서로서 화성 축조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화성성역의궤 그리고 화성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관련된 유물 등이 전시되었다. 전시내용의 이해를 돕고 폭넓은 안목으로 전시를 관람토록 하기 위하여 연극공



지역문화탐방 I "근대를 향한 꿈" 장경호 관장 주요초청 인사 전시유물 설명

연('한중록')과 VTR 상영('역사추리 - 수원성') 및 명사 초청강연 등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가. 전시기간 : '98. 7. 21 - '98. 9. 20

나. 전시장소 : 기획전시실 및 로비, 중앙홀

다. 전시수량 : 화성성역의궤, 체재공 영정 등 150여점

(3) 지정문화재 순례 Ⅱ : 아픔의 땅, 잊혀진 발자취 -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재 -

도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정 문화재들을 찾아보기 위한 두 번째 전시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지역인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재를 주제로 하였다. 지정문화재와 더불어 그간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발굴이나 지표조사를 통하여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이들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시와 관련하여 문화재외에도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민통선의 자연과 풍물을 슬라이드로 감상하며 설명을 듣는 '사진가 이지누의 민통선 기행' 특별강연회도 개최되었다.

가. 전시기간 : '98. 12. 22 - '99. 2. 21

나. 전시장소 : 기획전시실

다. 전시수량 : 파주 서곡리 벽화무덤 출토품, 허목영정 등 80여점



파주 서곡리 무덤벽화

2. 연구조사 및 학술활동

1) 학술세미나

(1) 지역문화탐방 I 문예부흥과 화성

'98년도 특별전시회-지역문화탐방 I 「근대를 향한 꿈」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새로이 조명하고 그간의 학술성과를 모아보기 위하여 事前 세미나 「문예부흥과 화성」을 마련하였다.

가. 기 간 : '98. 2. 27(금) 10:30~17:00

나. 장 소 : 박물관 강당

다. 발표자 및 발표내용

○발표자:한영우

○주 제:정조와 화성

○발표내용

- 정조는 양반 중심의 붕당정치를 극복하고, 상공업의 발달에 맞는 국가 경제체제를 재편하며, 상업발달에서 초래되는 사치와 빈부의 격차를 억제하기 위한 개혁 단행
- 화성에서 정조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자신이 덕을 가진 성인이요, 화성은 덕을 기르는 도시·성인의 도시였다. 즉 화성은 유교적 관념에서의 이상도시이지만, 축성의 측면에서는 당시로서는 동서고금의 지혜가 모아진 첨단의 성곽도시, 즉 중국과 우리나라 성제의 장점을 절충하고, 여기에 수원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적 성제의 모델을 창조. 즉 화성은 군·사·민이 함께 창조한 실학의 도시.
- 정조의 화성 능행은 백성과 임금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민원을 직접 상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아울러 능행은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고 지방의

풍속을 교화하고, 지방의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고, 수도권의 방위를 점검하며,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로도 활용, 즉 수도권 지역 주민의 사기를 높여주고 갈등을 해결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왕권의 은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

○발표자:최홍규

○주 제:18세기 화성지방의 번영과 사회상

○발표내용

- 정조는 화성을 중부지방의 대도회, 상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유통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산업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각도의 특혜를 통한 민인모취책을 강구
- 18세기말 수원은 서남쪽으로 남양만과, 동남쪽으로는 용인·양지·이천·죽산·안성·진위 등 곡창지대를 무대로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서 특히 쌀·어염·소 등의 교역량이 많았고, 남문밖 남시장과 북문안 북시장은 상설화가 추진되어 수원부를 중심축으로 인근 열읍의 5일 장시가 증설, 교외 읍민에게 주곡의 상품화와 미나리·배추·무 등 상업적 농업을 촉진케 하는 계기가 됨
- 이읍과 성역시의 급가모군에 의한 역사 방법은 당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농민분해 현상이 일어나, 농촌에서 이탈된 농업인구를 임노동인구로 활용한 것은 이후 도시화의 진전·상업의 활성화와 함께 상주 임노동자층과 행상·보상 등 영세한 소상인층을 형성하는 계기가 됨

○발표자:유봉학

○주 제:화성성역과 화성의 문화유산

○발표내용

- 화성은 단순히 수원성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곽으로 둘러싸인 수원 신도시 전체로 화성은 전장 6㎞에 달하는 성곽은 물론 6백 칸에 달하였던 거창한 규모의 화성행궁, 그리고 화성 신도시의 수많은 도시기반 시설, 생산시설까지 포함한 팔달산 기슭의 신도시 전체를 지칭함

- 정조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육순이 되는 1794년에 10년 계획으로 화성 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그 후 10년후인 1804년에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아들로 하여금 사도세자를 국왕의 위격으로 추숭토록 하고 자신은 화성 신도시를 건설하여 전위 후 자신의 근거지로 삼으려 화성을 계획하였다.
- 장차 국왕이 머무를 도시로서 복합적 기능의 신도시를 지향하였던 화성성역에서는 각 시설물이 유사시와 평상시의 실용성이 고려되어 항상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되도록 설계되었고 기능성과 아름다운 외관이 겸비되도록 조성.

○발표자:김동욱

○주 제:화성축성에 활용된 자재 운반기구에 대하여

○발표내용

- 화성축성시 자재운반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고안될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부터 지속된 실학자들의 제안이 사상적 바탕이 되었고, 건설공사에서 임금고용이 정착함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줄일 필요성이 대두된 사회경제 요인
- 화성축성시 활용된 자재 운반기구는 이전의 기구들과는 다른 혁신적인 새로움이 있었음.
- 다산 정약용에 의해 고안된 거중기는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활차의 사용과 물레를 실제의 기구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과학적 성과가 높이 평가됨. 다산은 새로운 기구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서적을 참고하였지만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고 18세기 조선의 기술적 여건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고안.

○발표자:오주석

○주 제:정조년간의 회화

○발표내용

- 정조년간에 제작된 회화를 그린 화가는 김홍도.이인문.이명기 등 3인의 화원과 문인화가로는 당대 예원의 총수라는 평이 있었던 강세황 등이 있음.
- 화성성역의궤.원행을묘정리의궤는 화성건설과 국왕의 원행차와 의식의 전과정



학술세미나 토론

을 기록하고 목판화가 첨부되어 있어 훌륭한 전시 작품임.

- 화성성역과 을묘원행시 김홍도가 참가하지 않았다고 인지되어 왔으나 화성성역의궤나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명단이 실린 화원들은 주로 기록화나 단청 제작 등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김홍도의 경우는 보다 고도의 예술적 역량이 요구되는 작업 즉 화성 행궁에 소요되었던 감상화 병풍 제작 등이 그의 몫이었을 것으로 추측됨.
- 금번 전시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점은 ①도난되었거나 소재 불명이 된 작품의 발굴 및 회수 ②원행을묘정리의궤, 채제공 영정 등 여러 벌의 작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비교 연구 ③당시 3대화가 중 이명기가 이제까지 조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 좋은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됨.

라. 토의사항

- 실학의 총체적 집결체가 화성이므로 실학을 문화사적으로 전시
  - 다산을 포함한 실학자의 서화 작품
  - 실학자의 문집 등 저서
  - 실학자 인물 부각

• 사도세자와 관련된 문헌 전시
  - 1933년에 쓰여진 「장헌세자실기」 (수원 선경도서관 소장)
  - 1938년에 조준경이 제작한 「장헌세자실기」
• 화성성역의궤 .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의 모든 관련 문헌
• 화성행궁내에 현존하는 각종 현판 전시
• 화성축성 전후의 화성 변화상
  - 규장각의 수원부 지도와 화성 축성 이후의 지도 비교 전시
• 용인을 부각시킬수 있는 자료 전시
  - 근대화와 관련하여 천주교 성지 부각
  - 이의리에서 행해지던 두레 발굴
• 산업문화와 관련된 자료 전시
  - 점막.시장 등을 지리적으로 고증하고 전시
  - 대유둔 등 집단 농장 등을 디오라마 등으로 연출
  - 각종 농기구 등 전시
• 기타
  - 화성축성모습 디오라마(국립과학관 전시)
  - 사진자료 전시(이종학 소장)

2) 특별강연회

(1) 명사초청강연회 I 진경시대의 미술

특별전시회 「근대를 향한 꿈」과 연계하여 최완수 선생의 「진경시대의 미술」 특별강연회를 마련하였다.

가. 기 간 : '98. 7. 24(금) 14:00~16:00

나. 장 소 : 박물관 강당

다. 발표자 및 발표내용

발표자	주 제	내 용
최완수	진경시대의 문화	• 진경시대의 개념정리와 진경시대의 활동한 인물에 대한 소개 및 계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진경시대의 서예	• 진경시대에 제작된 미술품등 슬라이드를 통하여 소개



특별전시회 명사 초청 강연회 (최완수)

(2) 명사초청강연회 Ⅱ 우리의 땅문화

특별전시회 「근대를 향한 꿈」에 연계하여 최창조 선생의 「우리의 땅 문화」 특별강연회를 마련하였다.

가. 기 간 : '98. 9. 11(금) 14:00

나. 장 소 : 박물관 강당

다. 발표자 및 발표내용

발표자	주 제	내 용
최창조	우리의 땅문화 경기도편	• 자생풍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중국 풍수와의 비교와 함께 유탁이 과연 후손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의견 설명, 유탁에 있어 반드시 피하여야 할 점과 북한의 산천 답사기를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



특별전시회 명사 초청 강연회 (최창조)

(3) 특별강연회 "사진작가 이지누의 민통선기행"

특별전시회「아픔의 땅, 잊혀진 발자취 - 민통선 부근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재」와 연계하여 마련되었다.

가. 일시 : '99. 1. 29(금) 14:00

나. 장소 : 박물관 강당

다. 발표자 및 발표내용

발표자	주 제	내 용
이지누	슬라이드로 보는 민통선의 문화	• 사진가가 직접 민통선 지역을 답사하면서 찍은 꽃, 강 등 자연환경과 풍물, 분단상황, 문화재 등을 슬라이드로 설명

3) 워크샵

(1) 박물관 전문직 입문 - 초보 박물관 직장인을 위한 워크샵 -

박물관 전문직들을 위한 재연수 기회로써,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전국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5일간에 걸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가. 일 시 : '98. 9. 14(월)~ 9. 18(금)

나. 초청강사 : Prof. Philip Spiess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박물관학 담당교수)
Mrs. Laura Mckie (미국 스미스소니안국립자연사박물관 교육부 주임)

다. 장 소 : 박물관 회의실

라. 후 원 : 미국 Asian Cultural Council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마. 수료인원 : 54명 (전국 박물관 및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신청자 중에서 선정)

바. 강연자 및 강연내용

발표자	주 제	내 용
이인숙	국제박물관협의회 제정 직업윤리요강	• 한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 국제박물관협의회 제정 직업윤리요강의 해석과 설명
Philip Spiess	박물관의 본질	• 박물관의 역사 • 박물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 · 유형
	소장품 관리	• 소장품 수집에 대한 방법 등 이론적 설명 • 수집된 소장품에 대한 문서화 기록의 실습 • 박물관의 환경에 대한 설명 - 습도, 온도, 병충, 인간, 먼지, 공기, 조명, 취급등
	물건취급시의 기본수칙	• 유물취급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그룹별로 토의하고 해석하며 설명 • 물건 보관의 기본수칙에 대한 설명

발표자	주 제	내 용
Laura Mckie	해석	• 수집된 소장품을 해석하기 위하여 샘플을 제시하고 그룹별로 토의 및 해석 • 박물관을 찾는 관객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그들을 분석하고 전시 방안 제시
	전시회 준비	•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전시회 사례 분석 • 관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보여주고 설명
	사회교육	• 박물관에서 사회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 •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소개



박물관 전문직 입문 연수교육

4) 학술 · 조사활동

(1) 양주 회암사지 1차 발굴조사

가. 조사지역 :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1번지(회암사지 7, 8단지 일대)

나. 조사기간 : '98. 8. 27~'99. 6. 30

다. 조 사 단

- 조사단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 김성태(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송만영 · 이경미 · 김영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라. 조사내용

'97년도에 경기도박물관에서 시굴조사한 양주 회암사지 발굴의 장기계획 중 1차년도 발굴을 실시 하였다.

1차 발굴조사 지역은 회암사지 8단지를 중심으로 하되, 부도탑 주변지역과 7단지 일부지역이 조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8단지 내에서 건물지 5개소를 확인 조사하였으며, 7단지 내에서는 건물지 3개소를 확인하여 이 가운데 1개소의 건물지를 전면 조사하고 나머지 2개소의 건물지는 일부만이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사역의 외곽을 감싸는 석축단 시설 및 담장지와 8단지 내의 내부 담장지, 배수로, 계단 시설 등이 확인 조사되었다. 한편, 부도탑의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시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부도탑 내의 출토유물을 통해서,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무너져 있던 부도탑을 해방전후에 다시 세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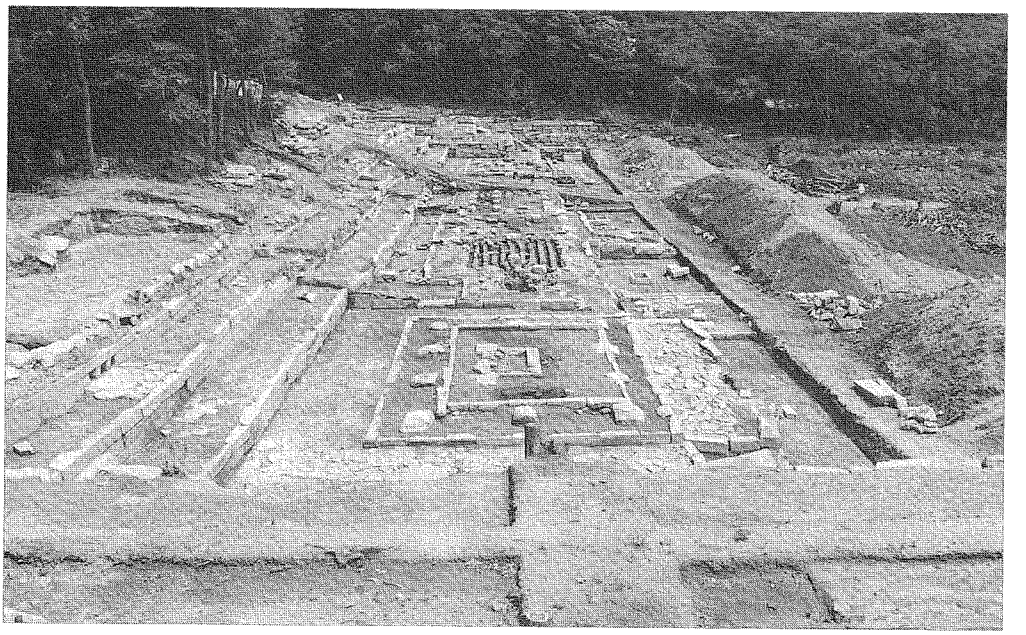
이번 회암사지 7 · 8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발굴조사에서 얻은 조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단지 및 7단지에서 노출된 건물지의 배치가 목은이 회암사의 전각배치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8단지에서 조사한 건물지 5개소는 문헌에 보이는 정청, 동 · 서방장, 대장전, 나한전 등의 건물지와 배치 및 규모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또한 7단지의 경우에도 서방장지와 동방장지 남쪽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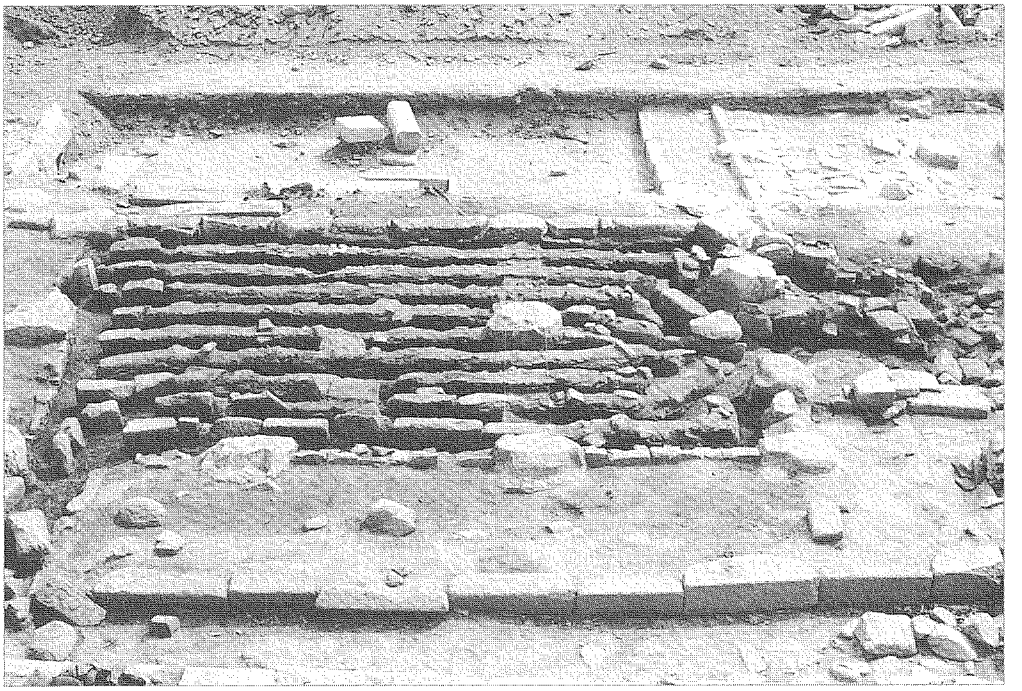
노출된 건물지 2개소가 남북으로 긴 건물지임을 감안할 때, 문헌상의 시자료, 입실료 등의 건물지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7, 8단지의 전각배치는 고려말 중창시의 전각배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선 성종대에 이루어진 중창불사의 흔적도 확인되고 있는데, 가령 각 석축단 내지 북쪽 담장석들이 자연석에서 치석된 석재로 교체된 흔적이 그것이다. 이는 문헌에서도 건물지의 형태는 크게 바꾸지 않고 築壇과 石壁, 基壇, 階砌만이 중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고려 말의 전각배치는 조선 전기의 중창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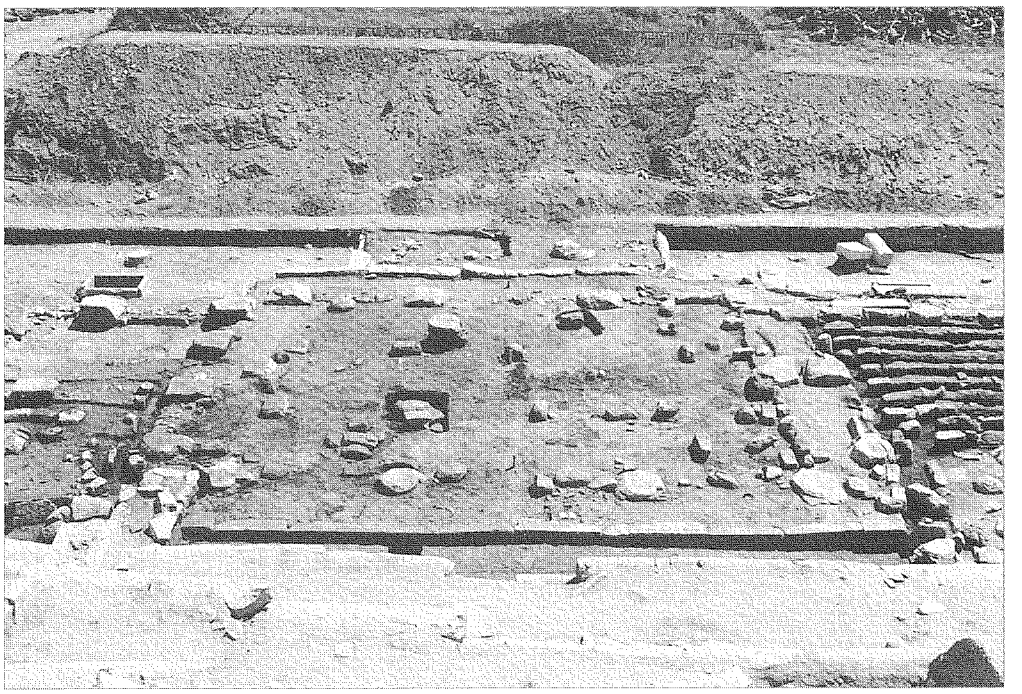
둘째로는 조사된 건물지 및 담장지, 석축단, 배수시설 등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남아 있어 향후 회암사의 상부구조를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단지에서 노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지는 화재로 폐기된 이후에 그대로 흙이 덮힌 상태이며, 그 이후의 인위적인 유적 점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절터가 후대의 교란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변형된 점



회암사지 7 · 8단지 조사후 전경



서방장지 조사후 전경



정청지 조사후 전경

을 고려하면, 회암사의 잔존 상태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고려 사찰 건축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방장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조사된 온돌시설은 이 시기 온돌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판단된다.

셋째로 이미 97년도 시굴조사시에 부분적으로 확인된 사항이지만, 회암사지의 범위가 담장지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기간 중에 밝혀졌다. 북동쪽 담장지 외곽 20여m 지점에서 확인된 석렬유구는 현재로써는 담장지로 보이는데, 북쪽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어 담장시설이 필요한 어떠한 건물지 내지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1단지 남서쪽 35m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도 연못지로 추정되는 석축시설이 확인되고 있어, 현재의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사역이 조성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청기와, 상품 백자, 막새기와와 같은 유물을 통해 당시 회암사의 국찰로서의 높은 寺格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7, 8단지에서 출토된 4점의 청기와는 번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조선 왕실과 諫官의 마찰이 표면화될 정도로 호화로움의 면모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7·8단지 출토 석제 불상편

(2) 여주 고달사지 시굴 및 발굴조사

가. 조사지역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98. 7. 27~'99. 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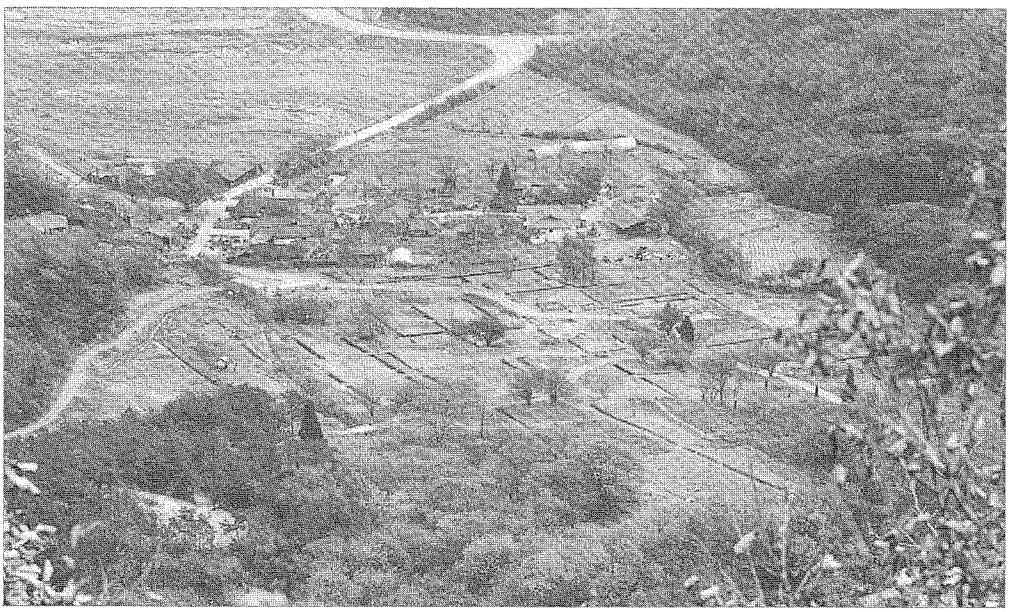
다. 조 사 단

- 조사단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 김성태(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김규상 · 백종오 · 심영선(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라.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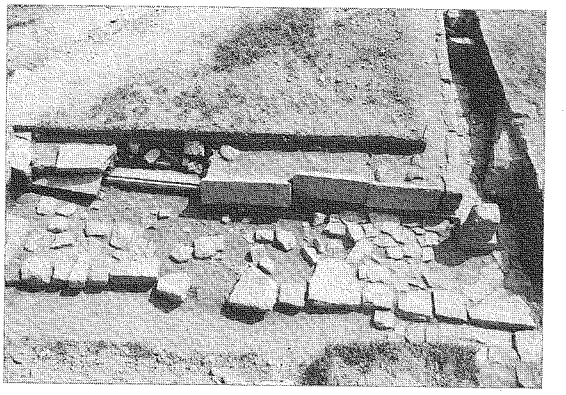
여주 고달사지 위치한 지역은 옛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인근의 神勒寺를 비롯하여 南漢江 水系를 중심으로 居頓寺址, 法泉寺址, 興法寺址, 覺林寺址, 文珠寺址 등 羅末麗初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절터들이 자리한다. 이외에 고달산 정상부 능선 서족의 一名 '山上寺址'라 불리는 건물지가 잘 남아 있으며 이런 건물지 외에 인근에 기와, 백자 가마터가 확인되고 있다.

고달사지에 대한 관련 문헌이나 금석문등을 살펴봤을 때 9C말~10C말경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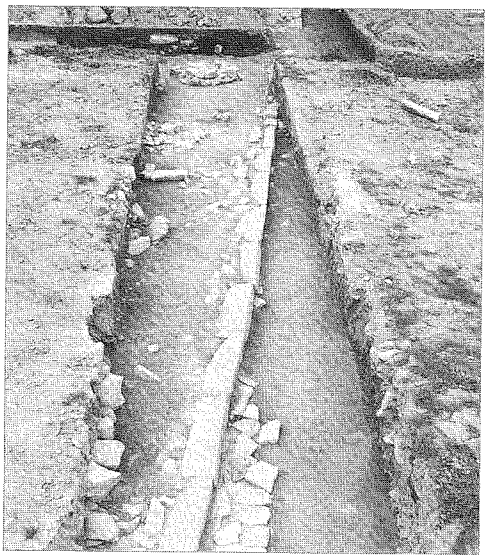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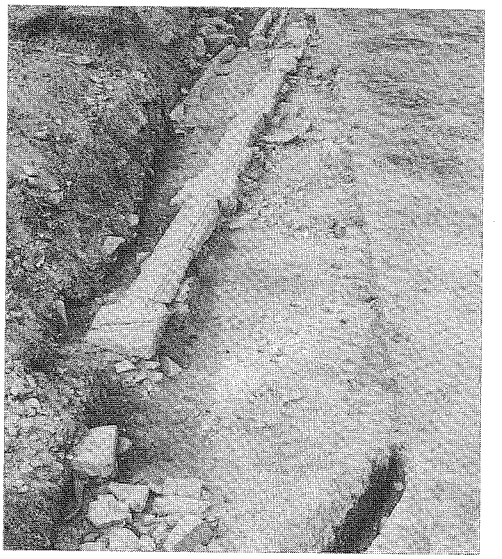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원경

융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후 기록은 매우 소략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단편적으로나마 그 실체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제1건물지 북쪽기단

대체적으로 유물·유구등을 봤을 때 나말여초에 걸쳐 고달사가 번창하였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부 분청사기, 백자편 등을 봤을 때 조선시대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건물지 동쪽기단


제3건물지 서쪽기단

조사결과 건물지 8개소, 담장석렬 2개소, 推定碑閣址, 推定石燈址, 推定石塔址 등이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史蹟으로 지정된 지역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적인 규모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3)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에 따른 현지조사

가. 조사지역 : 경기남부 13개시, 1군

(수원・안양・부천・광명・평택・안산・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용인・안성시, 화성군)

나. 조사기간 : '98. 1~'98. 12

다. 조 사 자 : • 유적목록 수정 및 보완 : 곽창호, 이소희

• 현지조사 : 곽창호, 이소희, 장덕호, 홍원의, 장문철, 이경미, 백종오, 심영신, 김규상

라. 조사내용

경기문화유적지도는 도내에 소재한 문화유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 관련 학술・문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각종 개발 사업시 발생되는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을 예방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3개 지역으로 나눠 제1차년도('98)에는 경기남부인 수원・안양・부천・광명・평택・안산・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용인・안성시, 화성군, 2차년도('99)에는 경기중부인 성남・고양・구리・남양주・하남・이천・김포시, 여주・광주・양평군, 3차년도(2000)에는 경기북부인 의정부・파주・동두천시, 연천・포천・가평・양주군에 대한 문화유적지도가 제작된다.

「경기문화유적지도Ⅰ」은 1945년 이전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경기남부에 소재한 지정문화재 및 현재까지 조사된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비지정 부동산 문화재와 이번 현지조사시 새로 찾은 유적을 포함시켰다. 조사방법은 각 시군지와 각종 학술보고서등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유적의 목록과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목록을 제작하였다. 대상유적에 대한 현지조사는 지도 제작사에 의한 비교적 파악하기 쉬운 유적을 중심으로 한 1차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보완 및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유적의 위치와 범위를 1:5,000 기본도에 표기, 칼라와 슬라이드 두 종류의 자료사진 촬영, 휴대용 GPS로 유적의 현지 좌표를 측정하였다.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적목록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실시하고 1:5,000 기본도에 표기된 유적위치를 1:25,000도에 이기하였다.

앞으로 귀중한 도내 각종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나아가 전 도민에게 우리도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4) 평택관방유적 정밀지표조사

가. 조사지역 : 평택시 청북면.안중면.현덕면.포승면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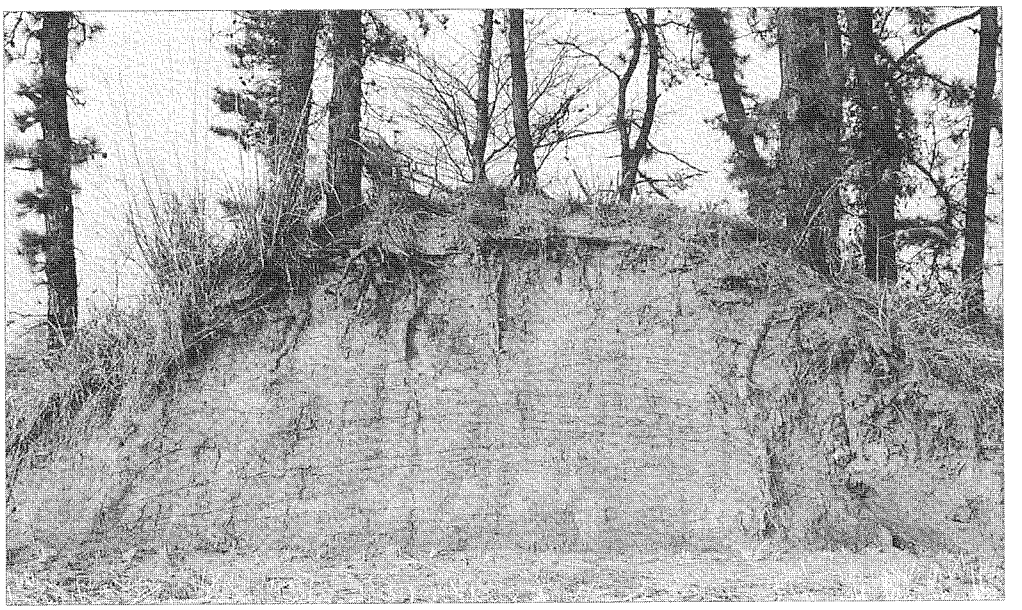
나. 조사기간 : '98. 9. 14~'99. 9. 31

다. 조 사 단

- 조사단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 최근성(경기도박물관 민속미술부장)
  김성태(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백종오 · 김규상 · 이소희(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라. 조사내용

평택 서부지역은 백제, 고구려의 상홀 · 상홀현이었으며, 통일신라의 거성현, 고려의 용성현 · 광덕현이 설치되었고, 동쪽으로는 안성 · 평택, 북쪽으로는 화성 · 수원, 서쪽으로는 서해 · 당진, 남쪽으로는 천안 · 아산 · 예산지역까지 한눈에 조망되는 전략적 요청지에 입지하고 있어 군사 · 문화상에 있어 중요거점으로 활용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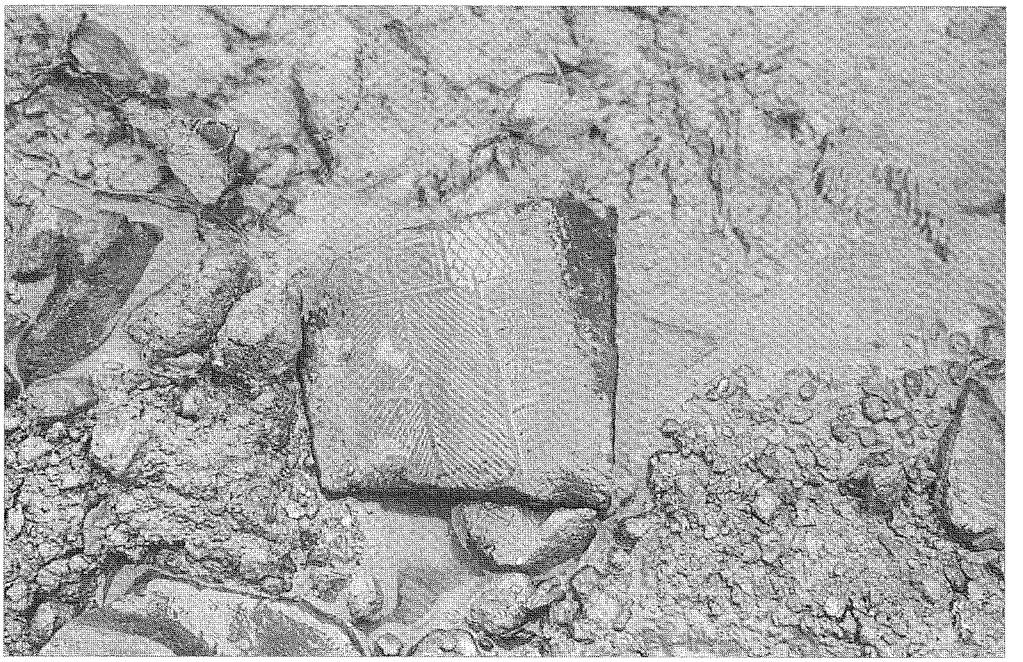
덕목리성 서벽 판축층 상태 -경작지 조성으로 파괴던 서벽단면 정리후 상태-

이번 조사는 평택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성곽 5개소(산성 3개소, 평지성 2개소)와 봉수대 1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삼국시대에 토기류를 비롯하여 명문기와 등 다량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조사결과, 자미산성의 내성과 부성, 용성리 강길마을성을 새롭게 발견하여 평택 서부지역의 관방체계의 규명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들 유적은 반경 1㎞ 범위에 6개소의 성곽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켜 준다. 이러한 밀집분포는 경기, 강원, 충청지방을 통틀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대 산성의 분포 및 상황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자미산성에서는 진입로 단애면에 노출된 내성 외벽 축석부와 백제시대 주거지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비파산성 동벽에서는 성벽 판축층과 외벽 기초석렬의 양상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며 판축층 하부에서는 축성시기를 반영하여 주는 고려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토성의 판축공법은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괴대봉수는 남쪽의 직산 망해산봉수와 면천 창택곶봉수가 합쳐져 북쪽의



비파산성 "乾德三年" 명문기와 노출상태

화성 홍천산봉수와 응하는 조선시대 제5로의 직봉이었다. 봉수대의 단면형태는 凸자 모양의 이단식 구조로, 하단대지는 239m, 상단대지는 138m의 둘레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기존에 보고된 다른 봉수유적과 비교하여 경기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대규모를 가진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채집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류, 백제시대의 타날문토기류, 삼국시대의 막새편과 각종 평기와류·토기류,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류·평기와류, 고려시대의 평기와류·명문기와·토제품·석제품 등 다양한 유물을 채집하여 이 지역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로부터 삼국시대로 연결되는 삼한시기 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자료의 확인을 기대할 수 있다.

비파산성 동벽에서 채집된 "乾德三年" 명문기와는 고려 광종 7년(965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는 동벽 판축층에서 출토된 기와편과 함께 비파산성의 축조시기를 규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5) 평택문화유적지표조사

가. 조사지역 : 평택시 전지역

나. 조사기간 : '98. 1~'99. 12

다. 조 사 단

- 조사단장 : 이인숙(학예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최근성, 김성환, 김성태
- 조사원 : 장문철, 장덕호, 이경미, 백종오, 이소희, 홍원의, 김지욱, 김준권, 심영신, 김규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기태(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최석원(공주대학교 지질자원학과 교수), 박경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이상열(한국문화행정연구소 연구원)
- 조사보조원 : 이재섭, 한준영, 한혜선(이상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현남주(아주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유승혁(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이관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라. 조사내용

이 조사는 1998년 현재 평택시 전역에 남아있는 자연환경과 민속을 포함한 각종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 「문화유적총람」의 분류안에 근거하여 조사팀을 구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지정.보호되고 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살핌과 동시에 현지조사시 탐문을 통해 새로운 유적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지도와 1:25,000 지도에 각 유적의 위치표기를 충실히 기록하는 역점을 두었고, 사진자료와 유물을 수습 확보하는데에도 충실을 기하였다.

조사는 크게 문화유적분야와 민속분야로 나눠 실시하였다. 문화유적분야는 「문화유적총람」의 분류안을 선사.고고유적과 역사유적으로 대분류하고 기타유적에 보호수를 추가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사시대의 석기를 비롯한 유물과 유물산포지, 백제초기의 유물이 보이는 자미산성, 무성산성등 테뫼식의 백제산성, 남산리사지, 방축리사지 등의 절터와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신앙되던 대불의 영향을 보이는 남산리사지의 석조불상, 54개소의 선현모역과 33개의 비, 조선후기 재지사족층의 생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심의보 가옥

활상과 가옥형태를 알려주는 심의보 가옥등 148개의 달하는 유적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민속분야는 지명유래, 동족마을, 민속신앙, 세시풍속, 평생의례, 생업기술, 구비전승, 민속놀이, 장시유통으로 나눠 마을단위의 조사를 실시하여 평택지역에 대한 폭넓은 실태파악을 우선으로 하여 이 지역에 대한 특징적이고도 가시적인 민속자료를 폭넓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조사는 평택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을 누락없이 확인하는데 우선하였으므로 향후 이 조사결과가 평택의 문화보존대책 마련과 각종 개발에 따른 훼손 예방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6) 고양 벽제관지 발굴조사

가. 조사지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98. 9. 11~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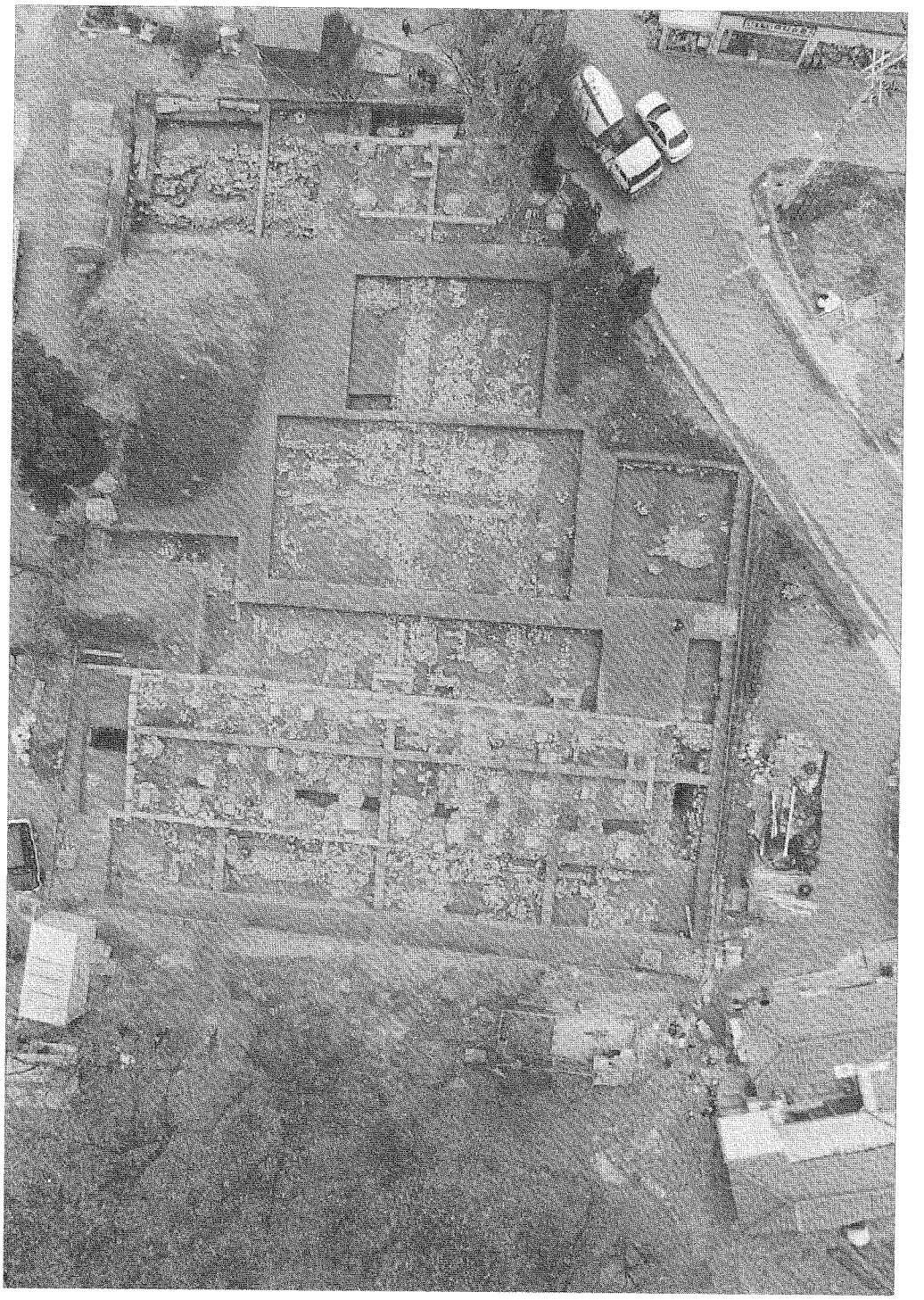
다. 조 사 자 : 김성우(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태(경기도박물관 유물관리부장)

라. 조사내용

벽제관(사적 제144호)은 조선 성종7년(1476) 8월에 기공하여 동왕 10년(1479) 11월에 준공되었다.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關西大路, 義州路, 燕行路에는 10여곳의 驛館이 있었다. 그중 碧蹄館은 한양 입성전에 머무는 客舍로서, 또 역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國王이 齊陵(태조비 신의왕후등) 親祭時에 숙소로 이용되기도 하여 어느 정도는 行宮的인 의미와 규모를 갖는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위치는 인조3년(1625)에 고양군의 邑治를 옮길 때 새로 세운 客館으로 당시 규모는 면적 1,265평(4,182㎡)에 건물지는 601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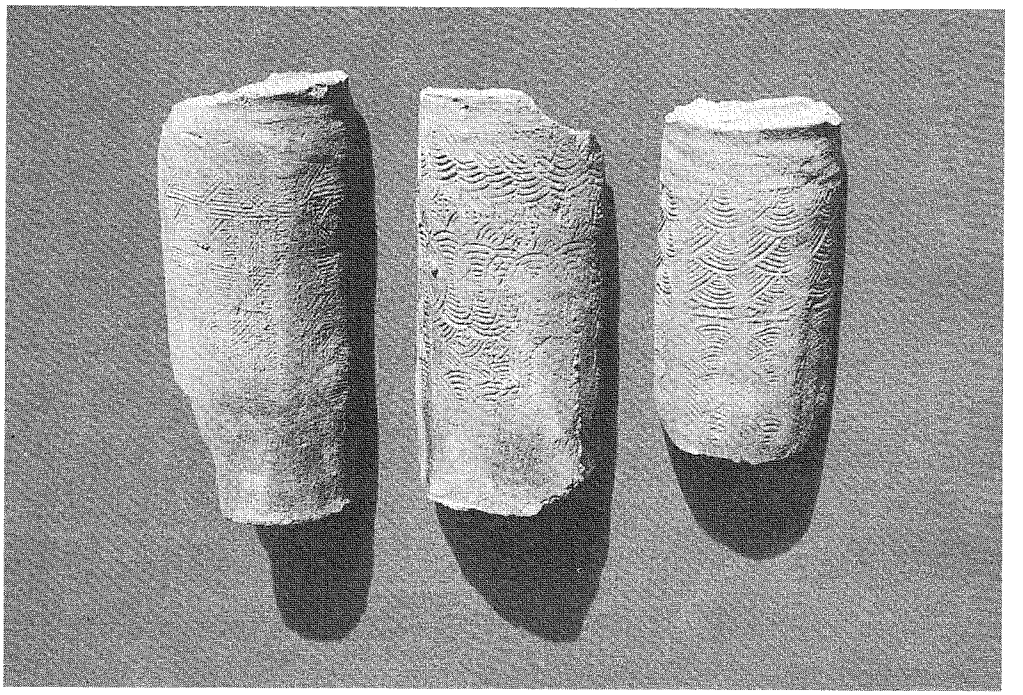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건물지 2개소와 부속지반시설들이다. 건물지는 기존에 알려진 조선시대 객사건축의 전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주건물지는 전청 3칸 및 동·서익헌 각각 3칸씩의 건물로 확인되었고, 문지 역시 3칸 건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건물지에서의 연도·지반 판축기법등의 확인도 중요한 발굴성과에 해당



벽제관 공중촬영 전경



문지 앞 동쪽 계단 위에서 노출된 '蹄'자 석물



수키와

된다. 한편, 부속지반시설은 보도석렬, 월대·박석 및 문지옆 온돌유구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지반시설로서 객사건축에서의 환경정비방식의 확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객사의 배치와 공간구성, 기능을 알려주므로 조선후기 객사건축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7) 평택 지제동 유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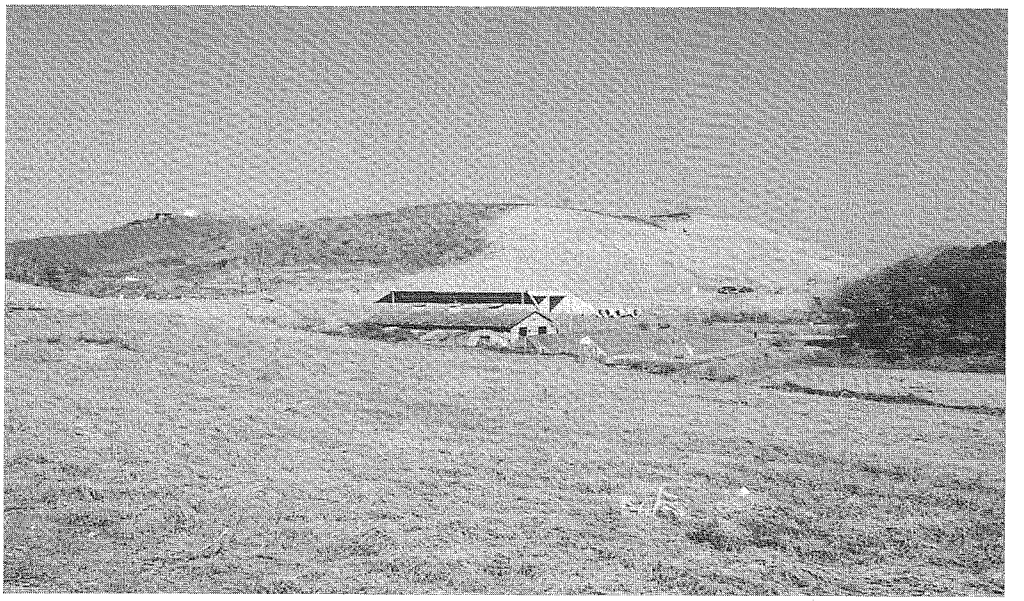
가. 조사지역 : 평택시 고덕면 지제동 44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98. 11. 18~1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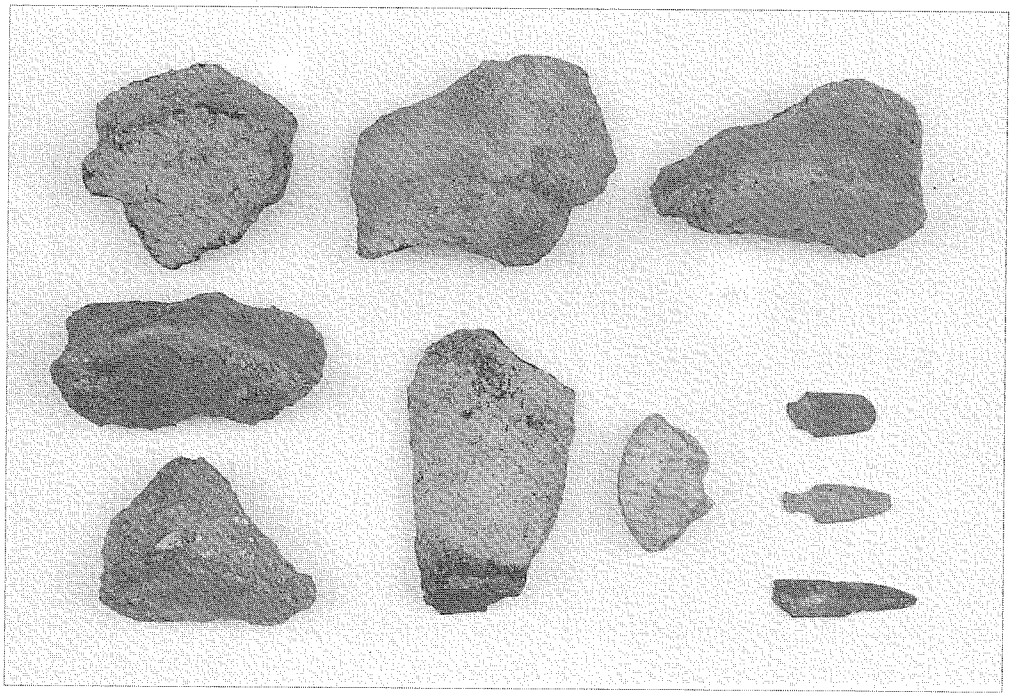
다 조 사 자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관)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기태(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라. 조사내용 :

평택문화유적 조사의 일환으로 고덕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던중 국토관리청의 평택-이동간 국도 개설공사로 인하여 절개된 능선부 경사면에 주거지 일



조사지역 전경



채집유물(무문토기편, 방추차편, 마제석촉)

부와 청동기시대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지역은 도로개설로 구릉의 대부분이 절단되어 암반층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며, 유적은 해발 6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마제석촉, 방추차편과 구순각목문토기, 공열문토기, 점토대토기등 청동기시대 전반에 걸치는 다량의 무문토기류가 채집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북동사면의 고속도로 개설구간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발굴 조사되고 있으며, 지제동 건너말과 방축리 등지에서 무문토기편과 마제석검·석부·석촉·석도 등의 매장문화재가 신고된 적이 있다. 이로 보아 지제동 일대는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경기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8) 포천 영평천 유역 지표조사

가. 조사지역 : 포천군 소재 영평천 일대

나. 조사기간 : '98. 5. 18~ 6. 1

다. 조 사 단

- 조사단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 김성태(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송만영 · 김영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라. 조사내용

이번 포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유적 2개소, 원삼국시대 유적 2개소, 초기백제시대 유적 1개소, 삼국시대유적 2개소, 조선시대 백자가마터 1개소 등 전체 8개소의 유적을 새로 확인하였다. 유적의 성격별로 살펴보면, 생활유적이 7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타 1개소의 생산유적이 확인되었다. 영평천 유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향후 이 지역에 있어 초기백제의 성립 및 성장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판단되며,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영송리유적만이 알려진 포천 지역에서 선사 및 역사유적을 새로 발견함으로써 경기 동북부의 역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포천 성동리유적 긴급발굴조사

가. 조사지역 : 포천군 영중면 성동5리 644-1, 644-2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98. 7. 23~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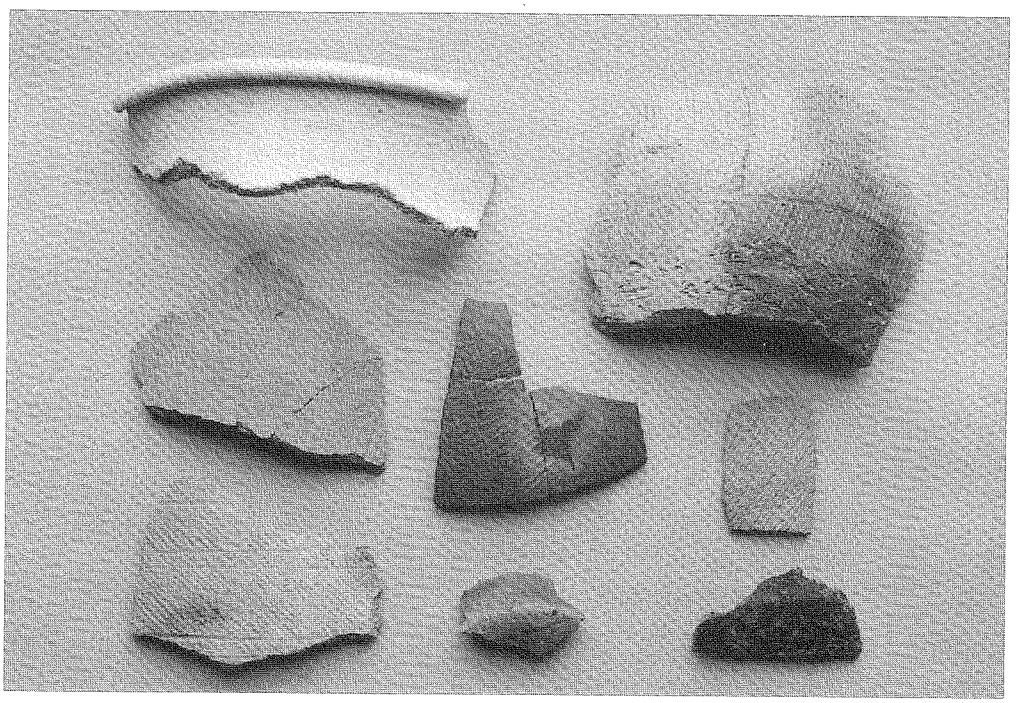
다. 조 사 단

- 조사단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 김성태(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송만영 · 김영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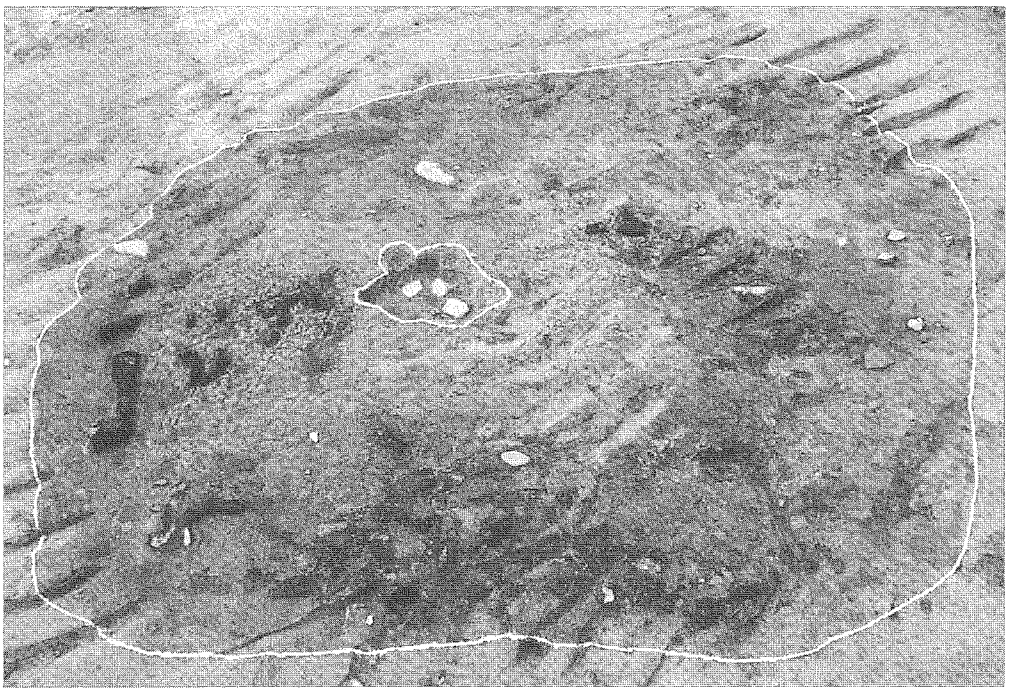
라. 조사내용 : 포천 성동리유적은 경기도박물관에서 포천 영평천 일대의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확인된 마을유적으로, 이 가운데 토사 채취로 노출된 지역(500여 평)에 대한 긴급구제발굴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원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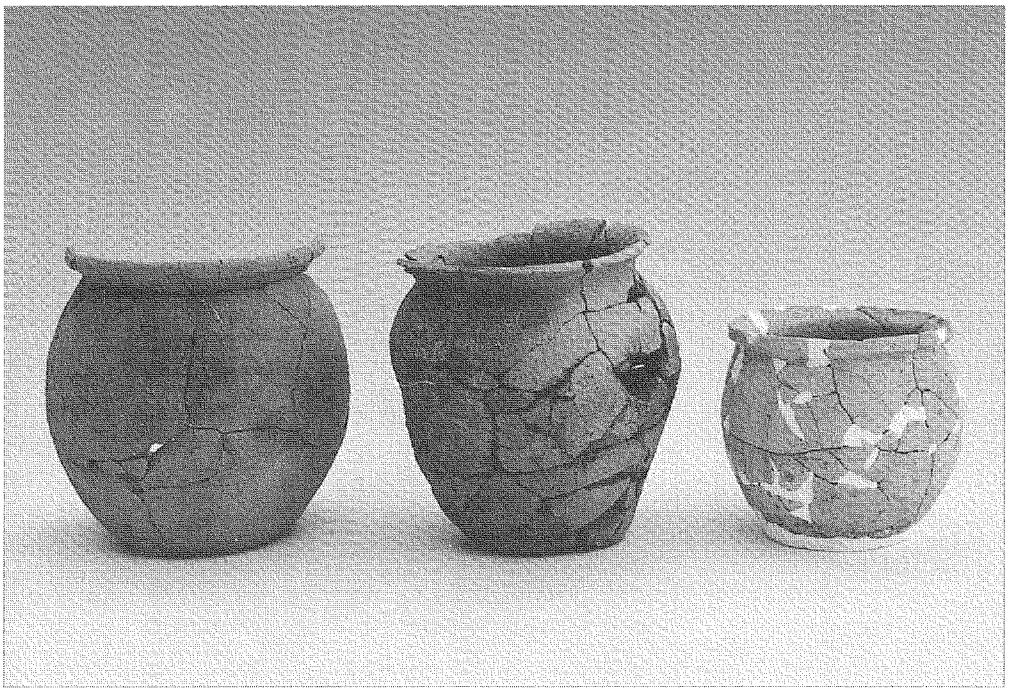
포천 성동리 유적 단애면상 주거지 노출상태



포천 성동리 유적 지표채집 백제토기 및 철기편



포천 성동리 유적 8호 주거지 노출 전경



포천 성동리 유적 출토 신라토기

시대 주거지 1기와 함께 삼국시대 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으며, 기타 삼국시대 소형유구 45기, 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민묘 2기 등이 확인 조사되었다. 삼국시대의 주거지 및 소형유구는 크게 초기백제시대와 신라시대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라시대의 소형유구들이 백제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개 타원형이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소량이지만,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와 같은 실생활용기가 많다. 고배, 삼족기, 직구광견호와 같은 몽촌유형의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중심 연대는 3세기 중반경으로 생각된다.

성동리유적에서 조사된 신라시대의 마을유적은 한강유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세력권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적잖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대부분의 문화유적이 고분 내지 산성이었기 때문에 실제 한강유역에 진출한 신라 세력의 문화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포천 성동리유적의 발굴자료는 향후 경기북부지역으로의 신라의 세력 확장과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대구 시지동유적과 함께 신라 취락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소장품 관리

소장품 수집은 구입, 기증, 위탁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1998년에는 구입과 기증을 받아 소장품을 수집하였다. 여러 분야에 걸쳐 수집된 유물현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다.

계	구 입	기 증	수 집	위 탁	비 고
3,774	2,441	1,144	7	182	

1) 소장품 현황

(1) 등록유물

('98. 12. 31. 현재)

구 분	계	구 입	기 증	수 집	위 탁
계	3,774	2,441	1,144	7	182
석 기	92	81	8	2	1
토 기	326	310	14		2
청 동 기	130	124	5	1	
도 자 기	453	418	24	2	9
와 전	60	51	9		
문 방 구	210	204	2		4
철 기	7	7			
민 속	915	622	239	2	52
고 문 서	977	387	519		71
전 적	453	121	297		35
탁 본	16		16		
서 화	131	114	9		8
현대미술	2	2			
기 타	2	1	1		

(2) 지정문화재 현황

지정별	지 정 구 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수 량	보관처	비 고
계				13건 43점		
국 가 지 정	국보· 보 물	256	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일	1건 1점	경기도 박물관	
		903	궤장 및 사궤장연회도첩	1건 6점		
		1052	천태사교의	1건 1점		
		1053	진언권공	1건 1점		
		1174	청원군이중노정사공신교서	1건 1점		
		1175	청원군심대호성공신교서	1건 1점		
		941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1건 3점		
		1177	오명항영정·사무공신교서	1건 2점		
도지정	유 형 문화재	129	조영복영정	1건 2점	경기도 박물관	
		134	연행일록 연행별장외명현간찰	1건 3점		
		136	서거정지석	1건 19점		
		163	박세채영정	1건 2점		
		169	현수제승법수	1건 1점		

2) '98년도 신수유물

(1) 기증유물

'98년도에 우리 박물관이 기증받은 유물은 모두 21건 50점이다.

長水 黃氏 沙鷹宗中이 기증하신 黃喜 影幀은 18세기 영·정조 연간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당시 초상화의 제작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윤주씨가 기증하신 論語 7책 완본은 1777년(정조1)에 주조한 정유자로 인쇄 한 갑인자계 동활자본이다. 규장각 내사본으로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최순석씨가 기증하신 京畿道觀察使 關文, 水原府 準戶口, 華城府 準戶口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기 수원, 화성 지역 사회경제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천에서 활동중인 전통 옥새장 민홍규씨는 조선시대의 '어보의궤'인《寶印符信總數》를 기본으로 하여 복원제작한 전통 옥새 5과(顆)를 기증하셨다. 이 옥새는 대한제국기에 사용하다가 분실된 8과중 大韓國璽·皇帝之寶·勅命之寶·內閣之印·內閣總理大臣章의 다섯 개를 복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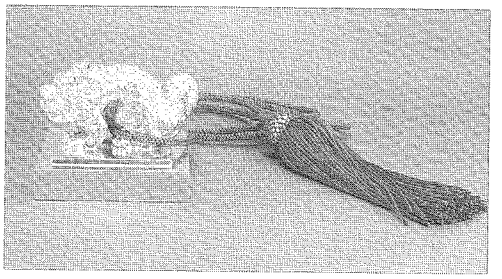
원로학자이신 황수영 선생님은 삼국에서 통일신라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瓦當 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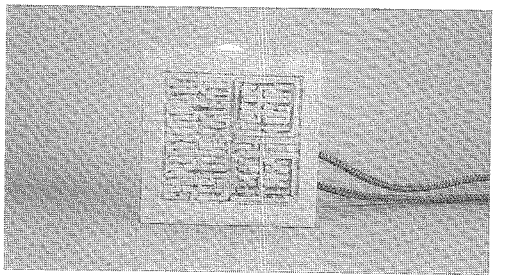
'98년도 기증유물 목록

번호	유 물 명 칭	수 량	시 대	기 증 장	기증일자	비 고
계		21건 50점				
1	黃喜 影幀	1	18세기	長水黃氏沙鷹宗中	2. 14	
2	論語	7책	1777	李玧柱	3. 29	
3	關門	1	1861	崔舜錫	7. 16	京畿道管察使
4	準戶口	1	1786			水原府
5	準戶口	1	1801			華城府
6	大韓國璽	1	1998	閔弘圭	8. 18	復元品
7	皇帝之寶	1				
8	內閣之印	1				
9	勅令之寶	1				
10	內閣總理大臣章	1				
11	蓮花文 圓瓦當	1	현대	黃壽永	8. 14	
12	〃	1				
13	〃	1				
14	〃	1				
15	〃	1				
16	〃	1				
17	〃	1				
18	寶相唐草文 平瓦當	1				
19	百濟金銅大香爐	1				複製品
20	新羅禪林院鐘	1				
21	木棺	24(일괄)	17세기	鄭相鳳	9. 9	

과 복제품을 기증하셨다.

정상봉씨는 정광경 부부묘역에서 나온 목관 및 부수물을 기증하셨다. 이 목관은 17세기 양반가에서 매장시 사용한 목관의 내곽과 외곽의 온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민홍규씨 기증 대한국새

(2) 구입유물

번호	소장번호	소 장 품 명 칭	수 량	시 대	비 고
계			9건		
1	3593	조석진영모도	일괄(10폭병풍)	〃	구입
2	3594	선무원종공신록	1	〃	〃
3	3609	이원복백자지석	일괄(5)	〃	〃
4	3610	어해도	일괄(8폭)	〃	〃
5	3611	니금사원형삼작노리개	일괄(3)	〃	〃
6	3612	도금방아다리삼작노리개	일괄(3)	〃	〃
7	3613	마고자단추	일괄(2)	〃	〃
8	3614	립영	1	〃	〃
9	3615	화성능행도(모사도)	1(8폭병풍)	현대	〃

(3) 위탁유물 - 개인소장 위탁 유품현황

구 분	수 량
계	182
일 반	77
고 문 서	71
전 적	34

3) 소장품 등록 · 관리

소장품을 재질별,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장고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구보관 · 관리하고 기초자료를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유물정리를 위한 기본방침은 199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온 유물분류 표준화방안을 적용하였다. 유물의 안전을 위해 유물이동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유물카드 및 대장을 저본으로 새로 카드와 대장을 재작성하고 있다. 위탁, 대여, 수집, 탁본, 기념품, 복제유물은 별도로 카드와 대장을 작성하고 유물카드에는 유물의 학술적인 가치, 참고문헌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유물 1점당 유물이름표를 부착시키고 유물정리에 필요한 오동나무박스를 제작하였고 서화유물에 필요한 커버를 청바지천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고문서는 중성지로 포장한 후 보관하고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 방안에 맞추어 전체 소장품 카드를 재작성하였다. 소장품카드는 분류별로 면장철에 100장씩 끼워서 책장에 보관하고 있다. 98년도에는 토기유물 등 약 600여점을 사진촬영한 후 수장고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분류 보관하고 있고 소장품을 촬영한 필름자료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장품 목록간행시 활용할 계획이다.

4) 보존관리

(1) 개 요

본고의 내용은 '98년도 발굴 출토된 금속유물과 소장품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가장 쉽게 손상을 받는 금속유물을 중심으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한 결과 및 현황과 이들 유물에 대한 과학적인 재질분석과 X-선투과검사 등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다.

(2) '98년도 주요추진 업무

가. 보존처리

'98년도 보존처리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소장품 및 발굴출토 유물 등 398점을 보존처리 완료하였다. 보존처리 방법은 일반적인 금속유물 보존처리 공정인 예비조사-Cleaning작업-안정화처리-강화처리-접합 및 복원-마무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수탁유물 중 경희대학교 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여주 하거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가위에서는 X-선 투과조사에서 당초문 상감이 발견되었다(사진1).

발굴 유물 중 가위에 상감을 한 예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국내에서 출토되었던 철제환두대도 등 여러 가지 상감 유물들의 보존처리 및 일본의 '稻荷山古墳發見 鐵劍象嵌銘'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상감 표출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사진2). 이 외에 주목되는 것으로는 금동태환장식 및 은도금 청동방울들이다(사진3). 특히 금동태환장식의 경우 반파된 것이 있어 태환장식의 제작기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것으로 사료된다(사진4, 5).

안성 봉업사지 출토 유물 중 청동 발에 대하여는 보존처리 후 "봉업사지 출토 청동발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본 연보에 게재하였다.

〈표〉 '98년도 보존처리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보존처리	소장유물	두루마기(수의) 등 6점	171점
	발굴출토 유물	○ 용인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 137점 ○ 파주 주월리 2차 발굴 출토 철부 등 24점 ○ 안성 봉업사지 출토 유물 4점	
성분분석 및 내부구조조사	소장유물 및 발굴출토 유물등	○ 성분분석 - 금동불상 등 58건 ○ 내부구조 조사 - 철제상감가위 등 103건	161점
수탁유물 보존처리	발굴출토 유물	○ 여주 하거리 출토 금동태환장식 등 22점(경희대) ○ 오산 양산동 출토 철제단검 등 50점(한신대) ○ 용인 상갈리 출토 청동발 등 149점(명지대)	221점
훈증소독	수장고	612㎡	1회

나. 성분분석

발굴 출토 유물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보존처리하고 그 유물의 재질이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분석과 관찰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토유물의 조사에 있어서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귀중한 문화재자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파괴적 방법에 의해 조사 연구하고 있다. 우리 보존과학실에서는 '97년도 경기도박물관 연보'에서 간단히 소개한바 있는 EDXRF(에너지분산형 형광X선분석기, 모델명:OMICRON, 제작사:KEVEX)등을 활용하여 앞의 표('98년도 보존처리 현황)에서와 같이 불상 등 58건의 유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분분석유물 중 철제은상감가위에 대한 분석 데이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제 상감 가위의 상감 재료는 은(Ag)으로 나타났다.

다. 유물의 내부구조 조사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되는 금속제품의 대부분은 흙이나 녹으로 덮혀있기때문에 외형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출토유물에 대해 내부의 구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관찰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X선을 사용하여 내부를 투과 촬영하는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우리 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도 X-선촬영장치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여주 하거리 출토 철제상감가위도 X-선 촬영에 의해 상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사진1 참고).

라. 보존환경조사 및 훈증소독

소장품 및 전시유물 중 특히 지류, 목재, 복식류 등 각종 해충 및 미생물의 피해를 받기 쉬운 유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7년에 이어 98년 10월에도 수장고 용적 3,456㎥, 소장품 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 256호)등 2,700여점에 대하여 19~20℃의 조건하에서 72시간 밀폐훈증처리를 실시하였다.

훈증약제로는 Gas Fumigation(메칠브로마이드 86%+에칠렌옥사이드 14% 혼합가스)을 사용하였으며, 기준투약량은 100g/㎥이며, 투약방법은 간열 기화기에 의한 투약을 실시하였다. 훈증효과 판정을 위해 Aspergillus niger 1AM 3001(검은 곰팡이) 및 Sitophilus oryzae(쌀 바구미)를 테스트 샘플로 설치하고 '숙명여자대학교 환경과학연구센터'에 훈증효과 판정을 의뢰하여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사진6).

또한 서화실 전시유물의 보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시케이스를 밀폐형으로 보완하는 등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외 강화군의 요청에 의해 전등사 철종(보물 제393호) 및 강화동종(보물 제11호)에 대한 보존상태를 조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상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연수교육

98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EDXRF(형광X-선분석기)의 조작기술 습득을 위하여 보존과학실 직원이 미국 캘리포니아 리우드에 있는 KEVEX사에서 연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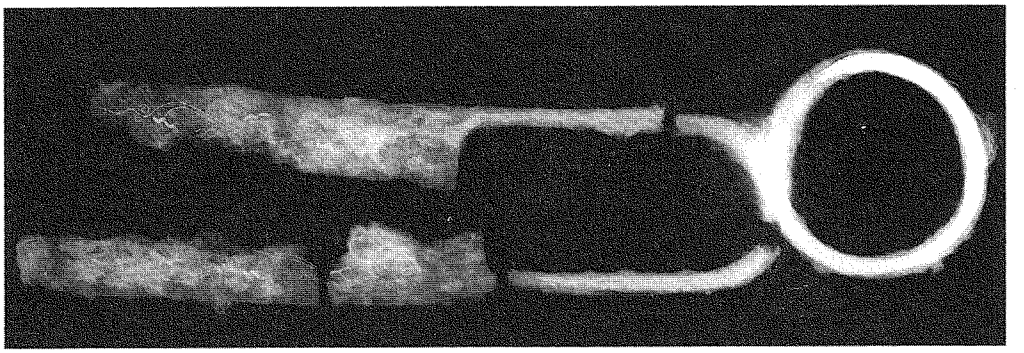
이 밖에 문화재 보존관련 교육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98년도 보존과학 기초연수교육」을 우리 박물관에 유치하여 '98년 7월 6일~10일(5일간)실시되었으며, 우리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백종오, 이헌재, 연구원 박학수 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박현욱은 우리 박물관의 보존과학실에서 '98년 9월 28일부터 '99년 3월 28일까지(6개월간)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다.

바.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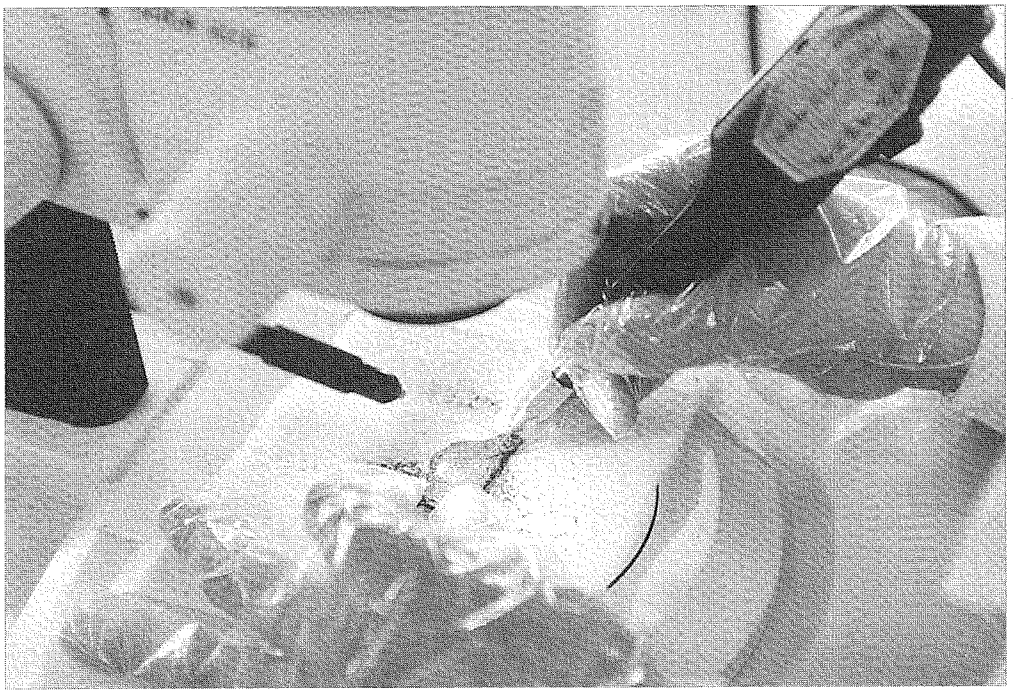
우리 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온·습도계에 대하여 기상청에 의뢰하여 성능을 점거하였으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필증'을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또한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과 기초지식 등의 습득을 위해 '98년 3월 20일에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98년 11월 4일에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학생 20명, 12월 8일에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학생 10명이 보존과학실을 견학하였다.

한편 12월 14일에는 외부에서 의뢰 받는 유물의 보존처리 및 자체 보존처리를 위한 '경기도박물관 보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다.



〈사진 1〉 철제은상감가위의 X-Ray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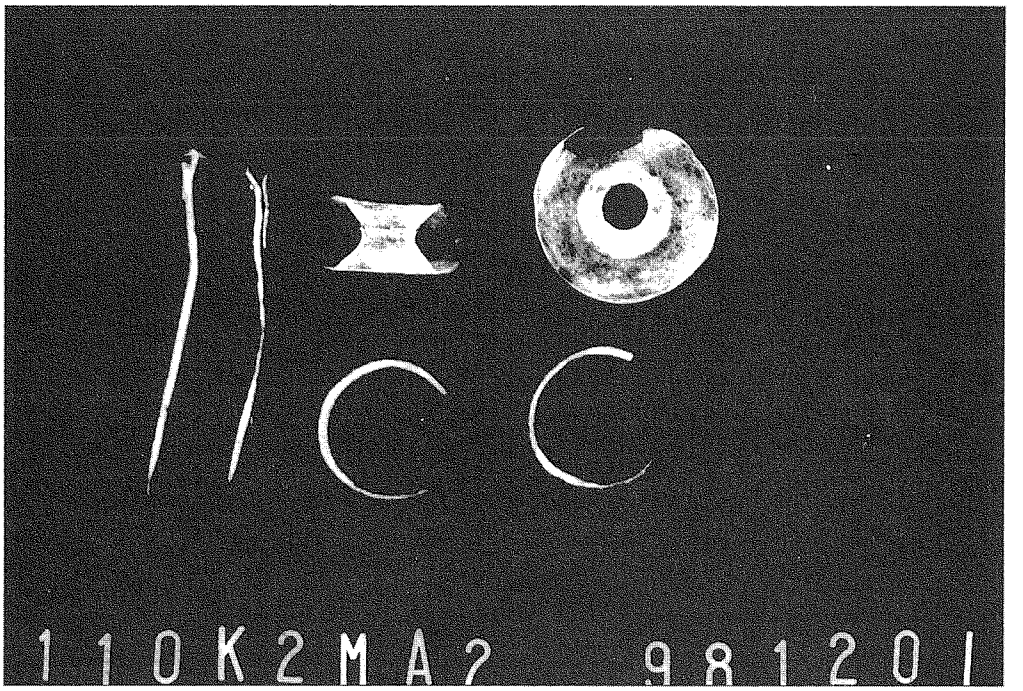
〈사진 2〉 철제은상감가위의 상감표출 작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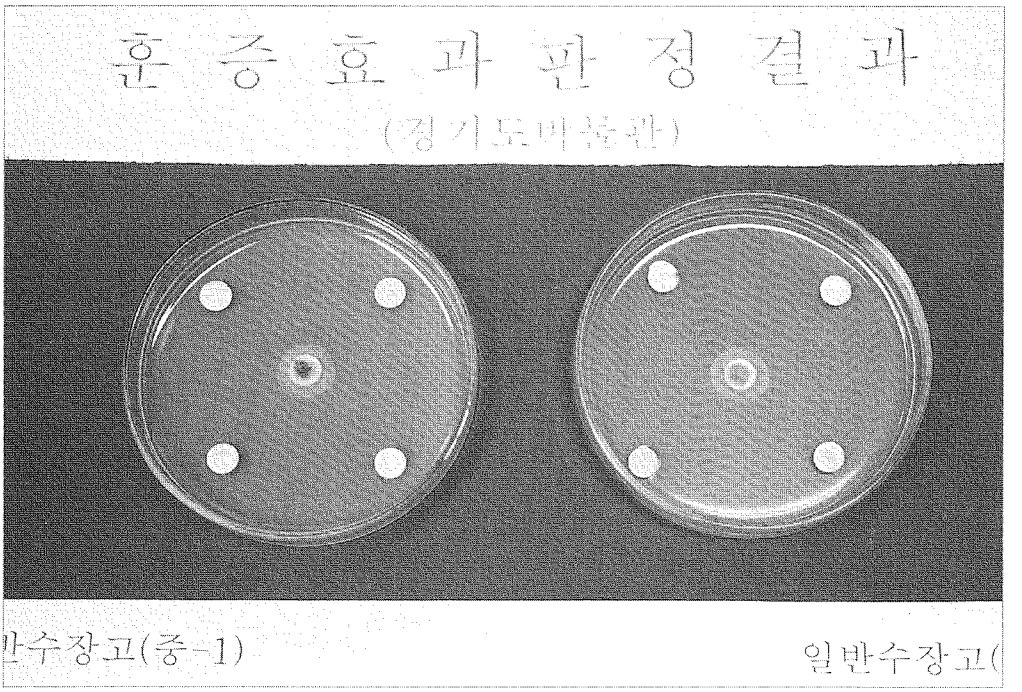
〈사진 3〉 은도금청동방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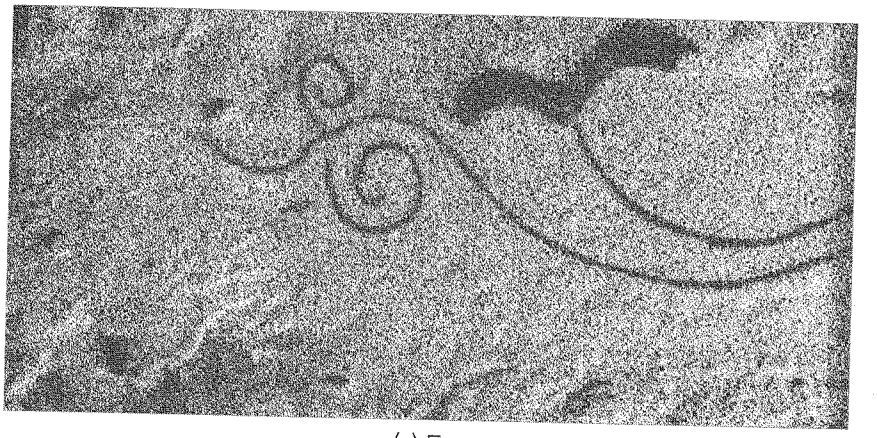
〈사진 4〉 금동태환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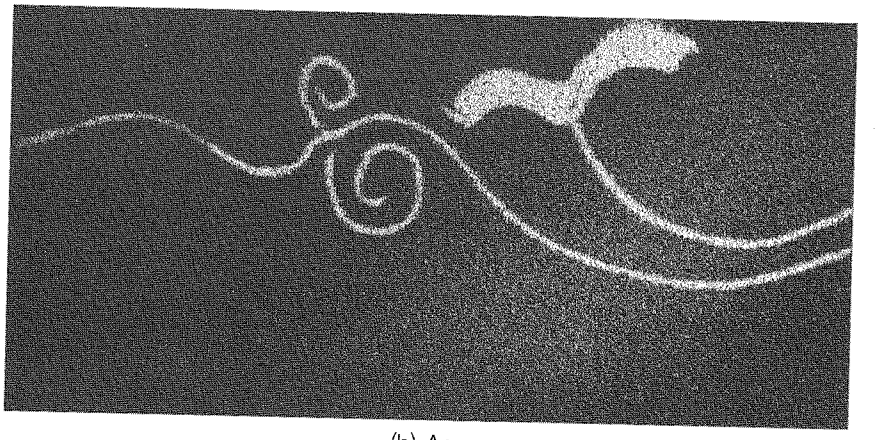
〈사진 5〉 금동태환장식의 X-Ray 사진



〈사진 6〉 훈증효과 판정 결과



(a) Fe



(b) Ag

〈그림 1〉 철제은상감가위의 X-선 Mapping 상태

4. 행사 및 사회교육

박물관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전통문화를 선양, 보급하기 위한 대중성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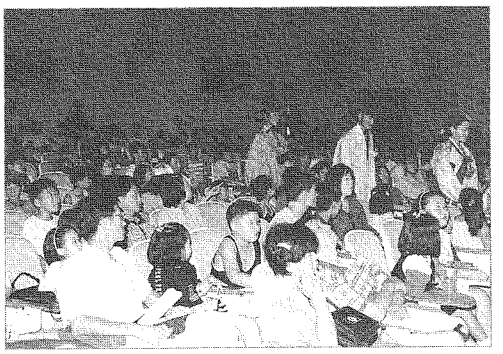
1) 공연 · 행사

(1) 초등학생 문화재그림그리기 대회 기념 전통민속공연 -봉산탈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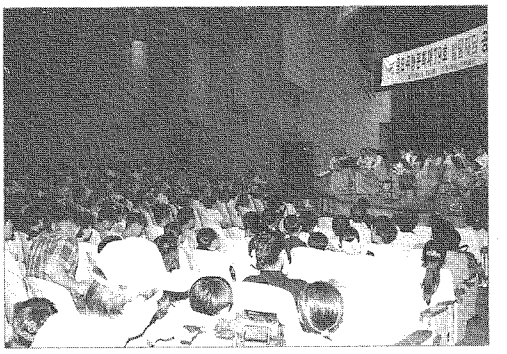
파계승, 몰락한 양반과 그 하인, 무당, 서민들을 등장시켜 무속과 불교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폭로와 권선징악을 익살과 풍자로 표현한 탈춤

가. 일　　시 : '98. 5. 11

나. 공연단체 : 봉산탈춤 보존회



봉산탈춤



발탈

(2) 경기도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 공연 -발탈-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연출하는 가무극으로 탈꾼, 어릿광대, 여자역을 등장시켜 춤과 노래, 재담으로 이루어진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풍자, 해학극. 안산시립국악

단의 전통음악과 함께 어울어졌다.

가. 일　　시 : '98.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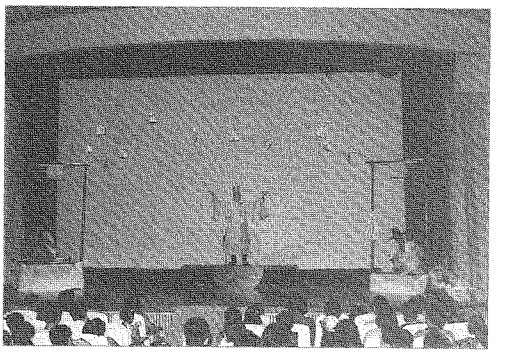
나. 공연단체 : 박해일(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안산시립국악단

(3) '98 특별전 "근대를 향한 꿈" 기념공연 -연극 "한중록"-

정조와 혜경궁홍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가. 일　　시 : '98. 8. 30

나. 공연단체 : 극단 "성"



극단 "성" 한중록

2)사회교육

(1) 문화영화상영

한국의 전통과 생활문화, 자연과 역사 및 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한 비디오 프로그램. 어린이가 보는 시간에는 즐거운 박물관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화영화, 가족영화 등을 상영하였으며, 일반인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주제에 상응하는 작품을 상영하였다.

가. 상 영 일 : 매주 화 · 목 · 토 · 일요일

나. 내　　용

	매주화요일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및 국 · 공휴일	
	(11:00~12:30)	(11:00~12:30)	(14:00~15:00)	1회 (12:00)	2회 (14:10)
3	헤라클레스	드레곤투카	고대탐사 단군	쇼생크탈출	쥬라기공원
4	난중일기	101마리강아지	수수께끼왕국 발해	베트맨과 로빈	서편제
5	전사라이안	월레스와 그로밋	망하지 않는 고구려, 백제, 신라	아름다운 비행	레인보우
6	코드와 코퍼	토이스토리	규장각1	폴리스몽키	마이크로코스모스
7	인어공주	돌아온영웅홍길동	규장각2	마이걸2	혼자도는 바람개비

	매주 화요일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및 국·공휴일	
	(11:00~12:30)	(11:00~12:30)	(14:00~15:00)	1회 (12:00)	2회 (14:10)
8	아기공룡 둘리	미녀와 야수	규장각3	나홀로 집에	체인지
9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티몬과 품바	고구려의 고분벽화	노틀담의 곱추	로빈훗
10	정글북	마스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101마리의 달마시안	사운드오브뮤직
11	마법의 성	공룡시대	양주별산대	후크	컷스로드아일랜드
12	표류일기	알라딘	수원성	34번가의 기적	인디아나존스

(2) 제3기 박물관대학

경기도박물관의 성인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박물관대학'은 '기전문화(畿甸文化)'와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쌓아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안목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8주~9주간(매주 수요일)의 단기특강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전반기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기전문화의 이해를, 후반기는 한국 문화사의 분야별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 강의 전에 VTR 상영을 통해 강의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본 강좌는 전반기 강좌로, '경기문화의 이해'에 이어 경기의 선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3기 박물관대학 기념

가.주제 : 경기도의 선사문화

나.일시 : '98. 4. 1~5. 20 (매주 수요일 13:00~17:00)

다.참가인원 : 80명

라.수료인원 : 60명

날짜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1주 (4. 1)	11:00~12:00	개강식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13:00~14:50	인류의 기원과 진화	박선주(충북재 교수)
	15:00~17:00	한반도 황해 분지의 제4기 후기 환경	박용안(서울대 교수)
2주 (4. 8)	13:00~14:50	한국의 구석기 문화	한창균(한남대 교수)
	15:00~17:00	한탄강·임진강 주변 구석기인들의 생활	최무장(건국대 교수)
3주 (4. 15)	13:00~14:50	신석기시대 문화와 한반도	임효재(서울대 교수)
	15:00~17:00	서해안지역 신석기인의 생활 모습	신숙정(서울대박물관 특별연구원)
4주 (4. 22)	13:00~14:50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생활상	최몽룡(서울대 교수)
	15:00~17:00	청동기의 등장과 계급의 형성	박양진(충남대 교수)
5주 (4. 29)	현장답사	문화유적 답사(연천 전곡리 유적, 파주 당하리·다율리 유적)	하문식(충북대)
6주 (5. 6)	13:00~14:50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	이남규(한신대 교수)
	15:00~17:00	한강유역 선사시대의 토기	박순발(충남대 교수)
7주 (5. 13)	13:00~14:50	선사시대의 매장 풍습과 고인돌	이영문(목포대 교수)
	15:00~17:00	선사시대인의 삶과 예술	이융조(충북대 교수)
8주 (5. 20)	13:00~14:50	경기도 선사문화의 복원 -신앙생활과 의식주생활을 중심으로-	김병모(한양대 교수)
	15:00~17:00	수료식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3) 제4기 박물관대학

경기도박물관의 성인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박물관대학'은 '기전문화(畿甸文化)'와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쌓아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안목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8주~9주간(매주 수용일)의 단기특강으로, 매년 2



제4기 박물관대학 개막인사

회에 걸쳐 전반기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기전문화의 이해를, 후반기는 한국 문화사의 분야별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 강의 전에 VTR 상영을 통해 강의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본 강좌는 후반기 강좌로, '한국의 불교문화'에 이어 한국의 회화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금번 박물관대학은 전통회화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강의로 수강생들의 호응이 컸다.

가. 주　　제 : 한국의 전통회화

나. 일　　시 : '98. 9. 30~11. 18(매주 수요일 13:00~17:00)

다. 참가인원 : 200명

라. 수료인원 : 137명

날짜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1주	13:00~14:50	한국전통회화의 흐름	안휘준(서울대 교수)
(9. 30)	15:00~17:00	선사시대의 암각화	임세권(안동대 교수)
2주	13:00~14:50	고구려 고분벽화	전호태(울산대 교수)
(10. 7)	15:00~17:00	고려시대의 불교회화	정우택(경주대 교수)
3주	13:00~14:50	조선시대의 불교회화	김정희(원광대 교수)
(10.14)	15:00~17:00	조선시대의 영모화	이원복(국립중앙박물관)
4주	13:00~14:50	겸재정선과 진경산수화	최완수(간송미술관 실장)
(10.21)	15:00~17:00	단원김홍도과 정조	오주석(서울대)
5주 (10.28)	현장답사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이수미(국립중앙박물관) 조인수(호암미술관)
6주	13:00~14:50	조선시대의 풍속화	정병모(경주대 교수)
(11. 4)	15:00~17:00	한국의 남종문인화	한정희(홍익대 교수)
7주	13:00~14:50	전통회화 읽는 법	조용진(서울교대 교수)
(11.11)	15:00~17:00	조선시대의 의궤도	이성미(정신문화연구원)
8주	13:00~14:50	한국의 민화	허영환(성신여대 교수)
(11.18)	15:00~17:00	조선후기의 초상화	강관식(한성대 교수)

(4) 초 · 중학생 겨울문화학교

경기도박물관의 청소년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초 · 중학생 문화학교'는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방학 기간 2~3일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민속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만들기, 날리기 등 실습과 놀이 위주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초·중학생 겨울문화학교 연날리기

가. 주제 : 경기도의 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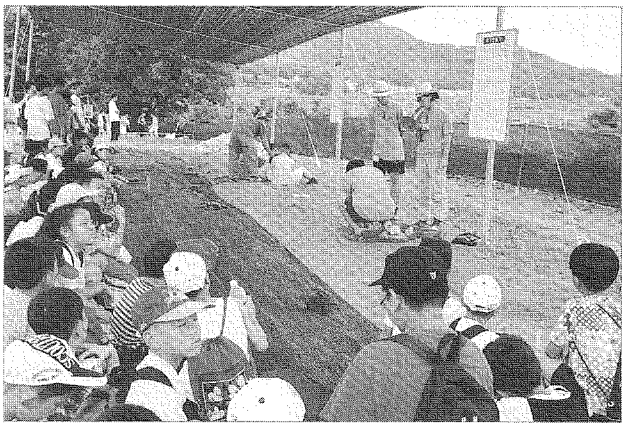
나. 일시 : '98. 1. 13~15 (초등학생)

'98. 1. 20~23 (중학생)

다. 참가인원 : 초·중학생 각 100명

초 등 학 생			
날짜	시간	강의내용	강사
1일 (1. 13)	11:00~12:00	전시실 관람	
	13:00~14:00	경기도의 전설	강현모(용인대)
	14:00~15:00	경기도의 민속놀이	김시덕(국립민속박물관)
2일 (1. 14)	10:00~12:00	연만들기	노유상(서울시 무형문화재)
	13:00~15:00	연날리기	
3일 (1. 15)		현장학습	한국민속촌
중 학 생			
1일 (1. 20)	11:00~12:00	전시실 관람	강현모(용인대)
	13:00~14:00	경기도의 전설	장철수(정신문화연구원 교수)
	14:00~15:00	우리나라 제사풍습	
2일 (1. 21)	11:00~12:00	연만들기	노유상(서울시 무형문화재)
	13:00~15:00	연만들기	노유상(서울시 무형문화재)
3일 (1. 22)	11:00~12:00	경기도의 민속놀이	김시덕(국립민속박물관)
	13:00~15:00	대보름놀이	
4일 (1. 23)		현장학습	한국민속촌

(5)초등학생 여름문화학교


초등학생 여름 문화학교 현장학습

경기도박물관의 청소년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초·중학생 문화학교'는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방학기간 2~3일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선사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실습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 주　　제 : 선사문화체험

나. 일　　시 : '98. 7. 28~30

다. 참가인원 : 258명

날짜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1일 (7. 28)	11:00~12:00	전시실 관람	
	13:00~14:00	선사시대란	강현모(용인대)
	14:00~15:00	선사인의 생활과 기술	김시덕(국립민속박물관)
	15:00~16:00	경기도의 선사유적지	
2일 (7. 29)		토기만들기	이천 남당도예원
3일 (7. 30)		현장학습	강화도 선사유적지 고인돌 축제

(6)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그림그리기 대회

우리 어린이들이 유년시절부터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이다. 그림의 주제를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로 한정하여 문화재의 상세한 모양과 의의를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입상된 작품은 박물관에 전시한 후, 영구 보존한다.

가. 일　　시 : '98. 5. 11(월) 13:00~18:00

나. 장　　소 :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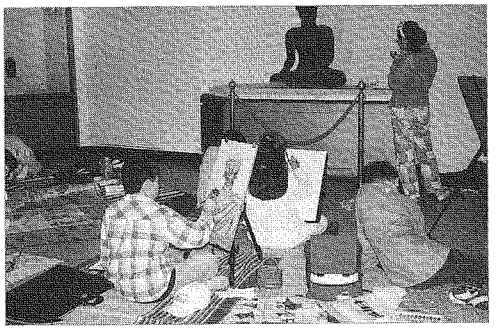
다. 참가자격 : 도내 초등학생 5학년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라. 참가인원 : 총 410명(142개교 남학생 77명, 여학생 333명)

마. 수상내용 : 총 112명(학생 106명, 지도교사 6명)

※대상 1, 금상 5, 은상 10, 동상 20, 우수상 30, 장려상 40, 지도교사상 6

입상작은 박물관에서 '98. 6. 10~8. 10까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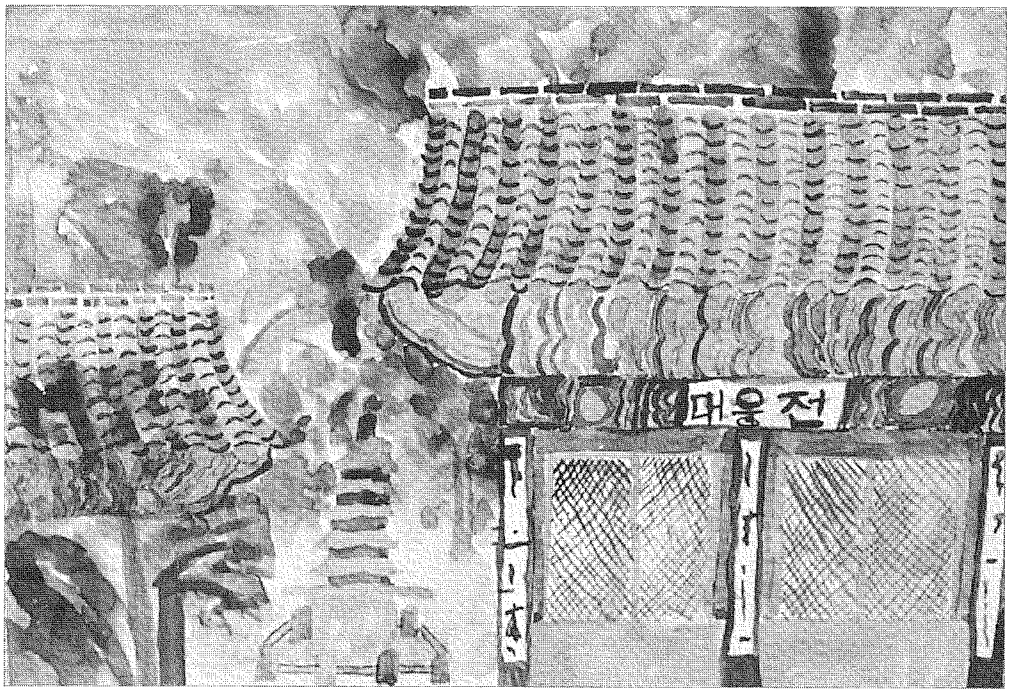
전시장 안에서 그림 그리기



입상작 심사



금상 "사천왕상" (김정욱)



금상 "대웅전이 있는 풍경" (비산초등학교 이혜지)



금상 "굿" (귀인초등학교 김영현)



금상 "봉산탈춤" (창영초등학교 마수영)



금상 "석탑도 우리의 유물" (안중초등학교 조화영)

바. 입상(수상)자 명단

수상 구분	수상 대상	성 명	작 품 명	학교명	지도교사	비 고 (시상자)
계	112명					
대상	1명	신 실 이	양주별산대놀이	곡 란	한 민	경기도지사상
금상	5명	김 정 욱	사천왕상	금 상	김 나 희	경 기 도 지 사 상
		이 혜 지	대웅전이 있는 풍경	비 산	이 용 애	
		김 영 현	굿	귀 인	김 현 희	
		마 수 영	봉산탈춤	창 영	양 혜 숙	
		조 라 영	석탑도 우리의 유물	안 중	김 혜 랑	
은상	10명	홍 서 호	팔각정	송 정	윤 화 정	경 기 도 지 사 상
		이 송 희	마을장승	금 상	김 나 희	
		권 수 현	팔각정	비 산	이 용 애	
		최 옹 식	사천왕상	민 백	김 문 주	
		최 유 미	윤장대	심 원	송 경 님	
		김 현 주	석등	광 명 북	송 기 열	
		정 휘 진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안 중	김 혜 랑	
		정 지 예	씨름	의왕 부곡	금 혜 성	
		한 윤 정	양주별산대놀이	구 성	임 기 숙	
		임 정 화	장승·솟대·성황당	봉 담	최 재 숙	
동상	20명	정 다 운	나옹선사부도·석등	세 류	이 순 옥	경 기 도 지 사 상
		류 승 규	신라 문무왕	수원 선일	김 영 순	
		이 은 영	박물관을 돌아보며	율 전	정 은 영	
		김 단 비	사천왕상	중 원	권 은 경	
		김 선 주	신륵사보제존자석종	서 현	이 재 우	
		박 선 애	화방	성남 매송	정 승 미	
		조 민 영	도당굿	성남 매송	정 승 미	
		천 해 선	즐거운 정자	의정부중앙	송 봉 순	
		이 현 선	전등사 약사전	의정부신곡	박 금 미	
		윤 주 영	장승	비 산	미 용 애	
		정 형 아	양주별산대놀이	범 계	김 미 순	
		윤 은 혜	회암사지부도	안양 양지	조 윤 정	
		한 수 영	초가집과 물레방아	광 명 북	김 송 호	
		강 수 환	양주별산대놀이	광 명 동	유 경 복	

수상 구분	수상 대상	성 명	작 품 명	학교명	지도교사	비 고 (사상자)
동상	20명	김 지 현	청동범종	안산 부곡	김 성 신	경 기 도 지 사 상
		박 윤 경	거중기	무 원	김 경 란	
		김 예 나	우리의 자랑스런 멋	도 림	이 희 정	
		김 정 은	고려백자 가마터	덕 소	안 숙 영	
		김 대 환	윤장대	검 산		
		박 소 연	길목	우 정	남 기 원	
우수상	30명	신 진 아	구석기 시대	산 의	임 미 애	경 기 도 박물관장상
		박 상 아	나옹선사 부도	매 탄	김 재 희	
		류 현 일	물레방아	세 곡	이 경 례	
		김 소 라	북치는 소년	선 남	채 명 순	
		진 비 정	정자	신 풍	박 경 희	
		이 재 희	신석기시대	영 화	박 귀 옥	
		홍 은 혜	대왕가마	조 원	박 승 란	
		안 예 지	기와집	조 원	박 승 란	
		윤 소 윤	탈춤	불 곡	정 경 현	
		서 철 웅	철제여래좌상	상 원	양 순 실	
		윤 정 인	고달사지부도	중 원	이 은 주	
		이 수 민	거중기	서 현	이 재 우	
		정 민 화	건고	귀 인	김 현 희	
		조 계 주	사천왕상	민 백	정 호 남	
		김 현 정	병선	민 백	박 종 구	
		박 영 주	서낭당	부 천 서	장 명 희	
		이 영 선	청동기문화	광명 광덕	이 순 례	
		이 세 미	구석기문화	화 랑	안 혜 경	
		이 현 경	신석기문화	화 랑	김 현 숙	
		정 세 희	시내풍경	화 랑	최 영 숙	
		구 본 희	탈춤놀이	시 화	김 명 주	
		김 유 진	팔각정과 야외스케치	광 정	박 정 숙	
		온 지 원	양주별산대놀이	산 본	박 미 숙	
		원 은 지	양주별산대놀이	구 성	임 기 숙	
		최 꽃 님	정자와 물레방아	오 학	김 은 경	

수상 구분	수상 대상	성 명	작 품 명	학교명	지도교사	비 고 (시상자)
우수상		류 하 람	기와집	화 산	윤 유 선	경 기 도 박물관장상
		김 수 지	장승	우 정	남 기 원	
		정 인 영	팔각정	신 장	이 해 리	
		안 솔	청화백자운용문호	안 성	정 희 진	
		박 수 진	거중기	비 룡	이 재 철	
장려상	40명	명 경 식	물레방아	송 정	윤 화 정	경 기 도 박물관장상
		홍 지 혜	양주별산대놀이	송 정	윤 화 정	
		유 보 현	양주별산대놀이	매 산	김 창 희	
		박 영 선	구석기문화	세 곡	이 경 례	
		최 현 지	건고와 탈	칠 보	곽 은 순	
		김 수 지	물레방앗간	수원 선일	김 영 순	
		박 세 화	탈춤	지 동	윤 순 엽	
		배 상 호	고달사지부도	신 풍	박 경 희	
		이 지 연	물레방아	신 풍	박 경 희	
		윤 소 은	신석기문화	영 화	김 벽 동	
		이 정 하	혼천의	구 운	박 경 순	
		김 소 슬	물레방아	불 정	송 미 경	
		이 나 리	회암사지부도	불 정		
		서 영 돈	정수사법당	명 학	김 효 선	
		조 원 준	쌍사자석등	문 원	김 정 림	
		고 운 정	오두막과 물레방아	문 원	김 정 림	
		신 미 란	회암사지석등·정자	하 일	한 춘 자	
		신 진 규	초가집과 정자	하 일	한 춘 자	
		권 주 리	용문사정지국사부도	광 정	김 정 숙	
		박 화 진	건고	내 손	임 현 숙	
		소 재 현	건고	내 손	임 현 숙	
		피 수 진	민화	내 손	임 현 숙	
		황 시 원	옛날 살던 시절	산 본	박 미 순	
		최 상 민	사천왕상	오 금	김 지 연	
		조 수 진	건고	궁 내	김 정 경	
		성 진 선	회암사지부도	무 원	김 경 란	

수상 구분	수상 대상	성 명	작 품 명	학교명	지도교사	비 고 (시상자)
장려상		장 윤 진	윤장대	토 월	정 해 조	경 기 도 박물관장상
		손 혜 진	윤장대	토 월	정 해 조	
		김 지 민	서낭당	풍 덕	한 인 애	
		남 상 우	조운선	풍 덕	한 인 애	
		함 혜 림	건고	왕 산		
		한 용 일	양주별산대놀이	보 라	손 명 자	
		방 다 영	흔천의	구 갈	권 순 영	
		박 윤 경	청룡사 대웅전	수 지	엄 정 애	
		김 보 희	삼국시대문화	화 성	김 은 주	
		유 태 두	윤장대	성 호	허 지 혜	
		김 보 나	물레방앗간	우 정	남 기 원	
		김 효 정	서낭당	비 룡	이 재 철	
		정 태 산	장승	비 룡	이 재 철	
		곽 보 영	휴식처인 정자	화 남	이 명 자	

	성 명	학교명		
지 도 교사상 (6명)	한 민	곡 란	대상입상자 지도교사	경기도지사 표 창
	김 나 희	금 상	금상 입상자 지도교사	
	이 용 애	비 산		
	김 현 희	귀 인		
	양 혜 숙	창 영		
	김 혜 랑	안 중		

(7) 문화유적답사

경기도내의 주요 유적지 또는 경기도박물관의 유적지 발굴현장중에서 일반인들의 역사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정하여 1년 2회(춘계, 추계)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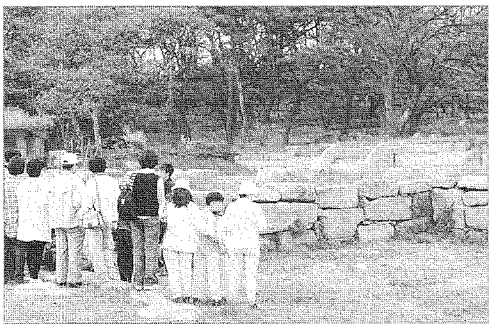
가. 운영기간 : 연 2회

나. 대　　상 : 누구나

다. 장　　소 : 선사, 역사, 민속유적지 답사 또는 유적 발굴현장 견학

라. 답사일정

일　　시	답　　사　　지	강　　사	참석인원
'98. 4. 26(일)	포천 반월산성, 양주 회암사지	정만규 (포천시 문화공보실)	40명
'98. 10. 4(일)	독립기념관, 유관순 생가	양상훈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90명



춘계문화유적답사



추계문화유적답사

(8) 박물관연수제도(Internship) 운영

박물관 관련학과 학생, 대학원생, 박물관 전문직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관련학문과 박물관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유물에 대한 접근, 자료의 취급방법과 훈련을 거쳐 체계적으로 박물관 업무를 습득시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연수과정

- 단기과정
- 장기과정

나. 연수내용

• 역사민속분야 – 문헌자료 정리방법, 민속자료 정리, 탁본, 촬영, 녹취, 사진정리, 현지조사 실습, 수습자료의 취급 · 보존

• 고고미술분야 – 문화재 조사방법, 발굴, 현장조사 실습, 수습 · 출토유물 정리보

존, 실측, 촬영

• 유물관리분야-수장고 관리, 유물취급, 유물의 정리-넘버링, 실측, 촬영, 보관, 대장작성, 정리, 등록, 보존과학

• 전시교육분야-전시방법, 전시실관리 · 운영, 홍보,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기획 · 운영

다. 연수생 관리 : 연수경력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해당학교의 교과목과 연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학점 이수 가능.

이 름	현 직(학교)	연 수 기 간	연수부서	비 고
조 효 정	상명대 사학과 졸	'98.1.6~6.5	전시교육부	전시기획
서 지 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98.2.2~2.14	전 부서	유물복원 · 실측위주
최 인 경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98.2.2~2.14	전 부서	유물복원 · 실축위주
김 영 옥	대전보건대 박물관과	'98.7.22~8.22	전 부서	
김 영 희	대전보건대 박물관과	'98.7.22~8.22	전 부서	
홍 소 림	대전보건대 박물관과	'98.7.22~8.22	전 부서	
조 규 상	대전보건대 박물관과	'98.7.22~8.22	고고미술부	발굴
박 현 욱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	'98.9.28~('99.3.28)	유물관리부	보존과학
남 영 곤	경희대 대학원 화학공학과	'98.11.25~('99.5.25)	유물관리부	보존과학
김 지 연	경희대 화학공학과 재학	'98.11.25~('99.5.25)	유물관리부	
임 진 아	성균관대 사학과 졸	'98.11.23~('99.2.28)	유물관리부	
이 희 인	성균관대 사학과 졸	'98.11.23~('99.2.28)	유물관리부	

(9) 박물관회원제도 운영

박물관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하여, 박물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인력 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무료입장의 특혜와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1기에서 4기까지 수료한 박물관 대학 수강생은 자동으로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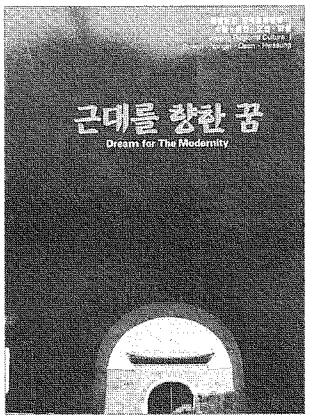
박물관 회원 중에서 지원 · 신청을 받아 특별전시회 기간 중에는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5. 출판 · 보급

1) 도록 · 연보

(1) 도록《근대를 향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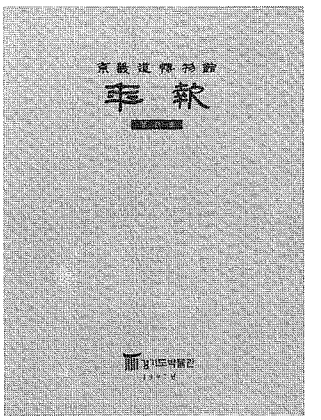
특별전시 지역문화탐방II -수원, 용인, 오산, 화성-



"경기도 지역문화탐방"이라는 테마로 도내의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발굴하여 그 정체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특별전시회 「근대를 향한 꿈」의 전시회 도록이다. 조선 영 · 정조시대에 꽃피운 실학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정점된 화성문화를 중심으로 수원 · 용인 · 오산 등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펼쳐 보이고, 그 이면에 담긴 근대화의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유물을 위주로 한 사진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싣고 있다.

가. 규　　격 : 국배판
나. 분　　량 : 172쪽
다. 색　　상 : 칼라
라. 발 행 일 : '98. 7
마. 발행부수 : 1,0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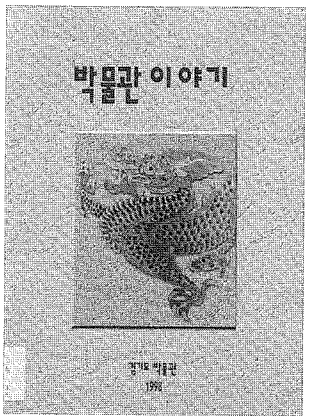
(2) '97연보(창간호)



경기도박물관이 '96년 개관후부터 '97년까지 진행해 온 연구실적과 사업성과를 정리하여, 보다 나은 사업을 계획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창조적인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경기도박물관 年報」를 창간하였다.

가. 규　　격 : 4×6 배판
나. 분　　량 : 219쪽
다. 색　　상 : 칼라
라. 발 행 일 : '98. 12
마. 발행부수 : 1,000부

(3) 박물관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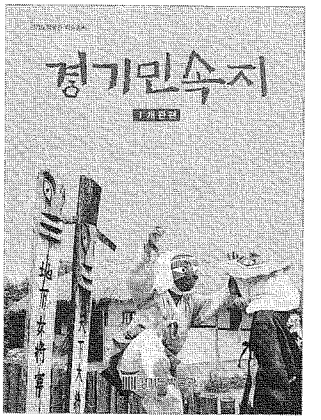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로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박물관을 알기 쉽도록 유물사진과 설명위주로 제작

가. 규　　격 : 국배판
나. 분　　량 : 63쪽
다. 발 행 일 : '98. 2

2) 학술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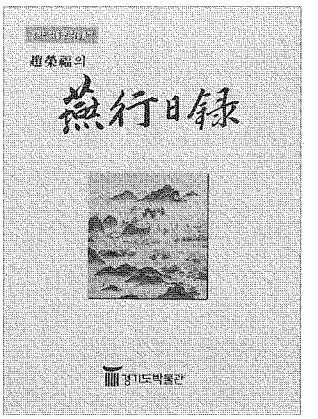
(1) 경기민속지 I　－개관편－



경기도 민속종합보고서 8개년 간행시리즈의 첫번째로, 제1권 개관편은 경기도의 민속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경기민속지 분류편의 연차적 간행에 앞서 간행으로 이어질 것임.

가. 규　　격 : 국배판
나. 분　　량 : 1,000쪽
다. 발 행 일 : '98. 7
라. 발행부수 : 1,700부

(2) 조영복의 연행일록



경기도박물관 국역사업의 일환으로 간행한 이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연행일록 및 연행별장을 국역, 이 자료는 조선후기 연행에 대한 기록으로 조선후기 사회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도판 및 상세한 국역과 필사 원문을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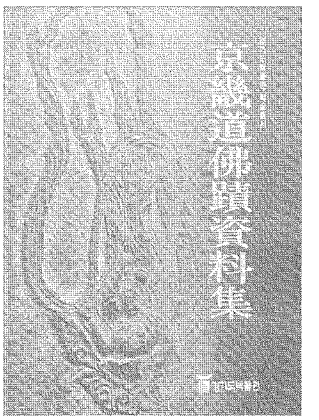
가. 규　　격 : 국배판

나. 분　　량 : 510쪽

다. 발 행 일 : '98. 12

라. 발행부수 : 1,000부

(3) 경기도 불적자료집



경기도와 관련된 미술사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간행코자 계획한 첫 번째 자료집이다. 경기도내에 산재한 불교유적에 관련된 문헌자료집으로서 여러 관련 문헌사료를 발췌, 수록한 종합 학술 조사지

가. 규　　격 : 국배판

나. 분　　량 : 804쪽

다. 발 행 일 : '98. 12

라. 발행부수 : 1,000부

3) 학술조사보고서

(1)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시의 문화유적과 민속문화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모아 간행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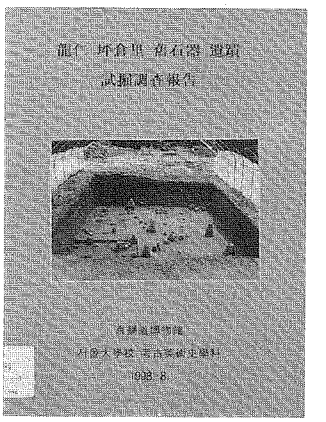
가. 규　　격 : 국배판

나. 분　　량 : 548쪽

다. 발 행 일 : '98. 12

라. 발행부수 : 1,000부

(2) 용인 평창리 구석기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과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가 공동으로 조사한 용인 평창리 구석기 유적에 대한 시굴 조사 약보고서

가. 규　　격 : 국배판

나. 분　　량 : 68쪽

다. 발 행 일 : '9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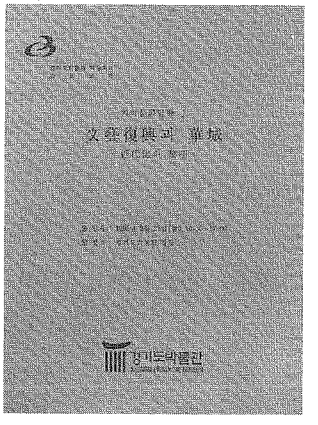
4) 발표문

(1) 학술세미나《문예 부흥과 화성-근대화의 여명-》

가. 규　　격 : B5 유인물

나. 분　　량 : 61쪽

다. 발 행 일 : '9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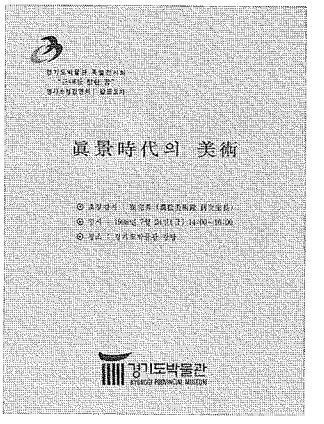


(2) 명사초청강연회 -진경시대의 미술-

가. 규　　격 : B5 유인물

나. 분　　량 : 33쪽

다. 발 행 일 : '9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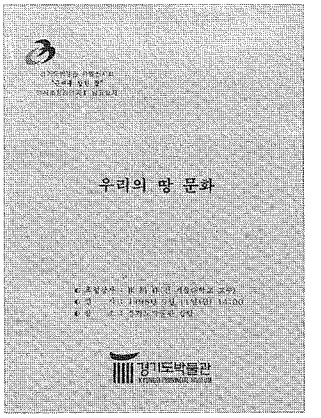


(3) 명사초청강연회 -우리의 땅 문화-

가. 규　　격 : A4 유인물

나. 분　　량 : 64쪽

다. 발 행 일 : '9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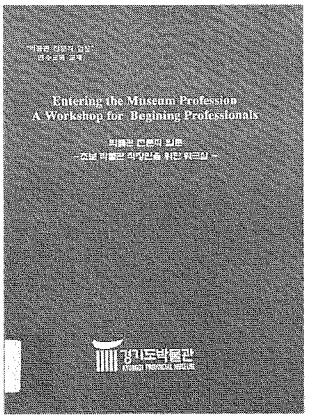
5) 사회교육 교재

(1) 박물관 전문직 입문
-초보박물관 직장인을 위한 워크샵-

가. 규　　격 : B5 유인물

나. 분　　량 : 88쪽

다. 발 행 일 : '98. 9



(2) 초등학생 여름문화학교

가. 규　　격 : A4 유인물

나. 분　　량 : 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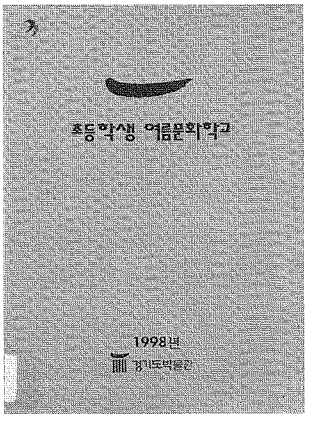
다. 발 행 일 : '9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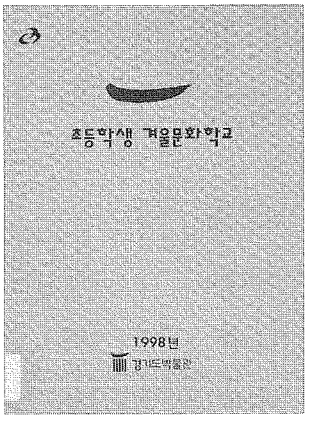
(3) 초등학생 겨울문화학교

가. 규　　격 : A4 유인물

나. 분　　량 : 54쪽

다. 발 행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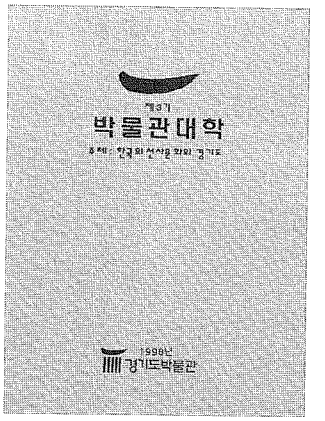


(4) 제3기 박물관대학
-한국선사문화와 경기도-

가. 규　　격 : B5 유인물

나. 분　　량 : 245쪽

다. 발 행 일 : '9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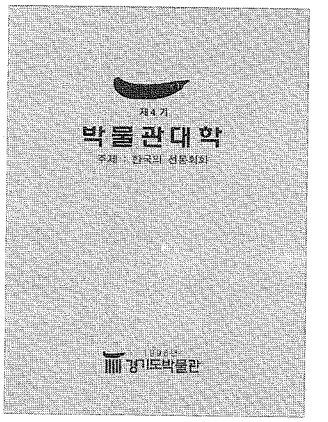


(5) 제4기 박물관대학
-한국의 전통회화-

가. 규　　격 : B5 유인물

나. 분　　량 : 277쪽

다. 발 행 일 : '98. 9



6. 대외 협력

1) 소장품 대여

우리 박물관은 국내외 박물관과 시·군 향토사료실등에 소장품을 대여하고 있다. 유물 부족으로 전시가 어려운 곳에 대여 전시함으로써 시·군 향토사료실등에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데 보다 나은 자료를 제공,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소장품 대여현황

대여기관	유물명칭	수량	비고
여주군 향토사료실	공열문토기	1	복제품
	무문토기발	1	〃
	동경	1	〃
	공검	1	〃
	식옥	1	〃
	갑옷	1	〃
	투구	1	〃
	금동팔찌	일괄(2점)	〃
	측우대	1	〃
	지구의	1	〃
군포시민회관 향토사료실	간돌창		
	돌화살촉	1	
	돌화살촉	1	
	돌화살촉	1	
	돌화살촉	1	
	찌르개	1	
	찌르개	1	
	찌르개	1	
	간돌도끼	1	
	간돌창	1	

2) 시설 대여

우리박물관은 강당 등 박물관 시설 사용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주고 있다.

도내 유관단체 및 기관은 물론 개인에게도 시설물을 대여하여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시회.음악회등 문화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설 대여를 하고 있다.

시설대여 현황

이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이용시설	참 여
신갈고등학교	음악부 학습활동	강 당	100여명
용인 챔버오케스트라	전통음악공연	강 당	400여명
신갈고등학교	나사렛대음악회	강 당	400여명
한국서예문화원 화홍서학회	학술세미나	회의실	200여명
용인 예총미술협회	미술협회 회원전	전시실	800여명

7. 위원회 활동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보다 내실있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한 자문기구인 운영자문위원회 및 유물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1)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는 박물관 운영의 전반적인 자문기구로서 정책 수립, 전시기획 및

성 명	직 위	전문분야
최 영 희	한림대교수	한국사
이 태 진	서울대교수	한국사
장 철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민속학
한 병 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고고학
김 병 모	한양대 교수	고고학
이 태 녕	서울대 명예교수	보존과학
정 양 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미술사(공예)
안 휘 준	서울대 교수	미술사(회화)
서 상 우	국민대 교수	박물관건축
박 영 복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유물관리
이 인 규	서울대 교수	생물학(해양식물)
백 승 길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문화계
서 희 건	월간조선 부장	한국사(언론)
안 익 승	유네스코 경기도협회장	향토사
장 영 남	경기도문화공보위원	
이 용 우	경기도문화공보위원	
이 인 재	경기도문화관광국장	당연직
장 경 호	경기도박물관장	고건축(당연직)

설치, 연구활동, 사회교육 홍보등 전방면의 자문을 하고 있다. 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분야 1~2인의 사계 전문가등 저명인사로 위촉하였다.

'98년도에는 2차에 걸친 운영자문활동을 한 바 있으며,

- 제1차 위원회의는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한병삼 위원장의 주재로 4월14일 본 박물관 회의실에서 있었다.

  안건으로는, '98 박물관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으로 특히 '98 기획전 지역문화탐방 I, 문화유적발굴지표조사, 유물보존관리등 전반적인 박물관 운영 자문이 있었다.

- 제2차 위원회의는 한림대교수 최영희 임시위원장하에 12월 4일 역시 본 박물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안건은 학술연구분야, 소장품 수집·관리, 전시, 사회교육, 세미나 등 다양했으며, 특히 경기민속지 발간, 각종 지표조사, 특별전 개최에 따른 자료등 박물관 운영 전체에 걸친 자문이 있었다.

2) 유물감정위원회

현재 박물관 유물감정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8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거쳐 4회의 평가회를 실시하였으며, 매도신청유물에 대한 평가대상유물 선정자문 및 구입대상 유물에 대한 감정을 받아 『조석진 영모도』등 총 9건 43점의 유물을 구입하였다.

특히 경기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박물관 유물감정위원으로부터 신청대상유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지정 신청하여『賢首諸乘法數』가 경기도유형문화재(제169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박물관 유물감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유물감정(수집)위원

성 명	전공분야	현 직(경력)	비 고
계	13명		
한 병 삼	고고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운영자문위겸임
한 영 희	고고학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하 효 길	민 속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김 삼대자	민 속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	
고 부 자	복 식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장	경기도 문화재위원
안 휘 준	회 화	서울대교수, 중앙문화재위원	박물관운영자문위겸임 경기도 문화재위원
이 원 복	회 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천 혜 봉	서지학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기도 문화재위원
이 정 섭	전 적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황 수 영	불교미술	(전) 동국대 총장	
이 호 관	불교미술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정 양 모	도자사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운영자문위겸임
강 경 숙	도자사	충북대 교수	

8. 박물관 동정

1) 시 상

'98년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 문화기반시설 책임자대회('98. 12. 18~12. 19)에서 경기도박물관은 박물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587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로서, 향후 문화시대에 걸맞는 국제적인 문화기반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우수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시상식에서 우리 경기도박물관은 개관 2년여만에 영예의 우수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장려상에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특별상에는 호암미술관이, 격려상에는 부산시립박물관이 수상했다.



2) 학예직 동정 - 연구간행

(1) 장경호 (경기도박물관장)

① 「여름과 주거」,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네 여름 이야기〉 특별전 도록, 1998. 7.

② 「한국의 전통건축과 교육」, 〈한국 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33호,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98. 9.

(2) 이인숙 (학예연구실장)

① 지역박물관의 활성화, 양양문화원, 국제심포지엄, 1997. 3

② Early Glass in Korean Archaeological Site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Vo. 8, No. 1/2, Spring/ Summer. 1997

③ 철기시대의 유물 - 유리공예, 「한국사」,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7. 12

④ Kyonggi Provincial Museum - A New Museum Movement Launches in Korea. The 4th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1998. 5. Vancouver, Canada.
(新박물관 운동의 시작-경기도박물관의 위상, 「경기도박물관 연보-창간호」에 수록)

⑤ 金과 유리-4~5세기 고대 한국과 실크로드의 遺寶. 「중앙아시아연구」 No. 2. 1998

⑥ 「Ancient Jade Decorative Objects of Korea」, 東西玉器, East Asian Jade ; Symbol of Excellence.
Center for Chinese Archaeology and Ar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1998. 11

⑦ Comparison of Prehistorie Glass Beads from Korea and Thailand.
ICOM Glass Committee. Melbourne, Australia. 1998. 10.

(3) 김지욱 (학예연구사)

① 『경기민속지』 제1권 개관편,경기도박물관, 1998. 7/세시풍속편

②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도박물관. 평택시, 1998/민속신앙, 세시풍속편

③ 『경기문화재대관』, 경기도, 1998/무형문화재 민속편

④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8/민속신앙편

⑤ 『경기도의 전통마을:육지로바뀐 섬마을』, 전국향토사연구협의회, 1998/민속신앙편

⑥ 『이천시의 문화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이천시, 1998/민속신앙편

⑦ 「경기지역 민속신앙의 실제 - 이천시 용면리 현지조사보고 - 」, 『경기향토사연구』,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1998. 12

⑧ "경기도 향토지 편찬 현황과 방향" 세미나 발표, 경기문화재단 주최 「'98. 제2차 향토사연수」, '98. 9. 24.

(4) 장문철 (학예연구사)

① - 자료소개 - 「서거정 묘지」, 경기도박물관 연보 창간호, 1998.

(5) 심영신 (학예연구사)

① 「고달시지부도」, 경기도박물관 연보 창간호, 1998.

(6) 김선덕(별정 7급), 박학수

① 「금동당초문과대의 제작기법 연구」, 경기도박물관 연보 창간호, 1998.

여 백

Ⅲ. 조직과 운영

1. 기구 및 정·현원

2. 직원 인명부 및 역대 직원 명단

3. 예 산

4. 시설 유지관리

5. 도서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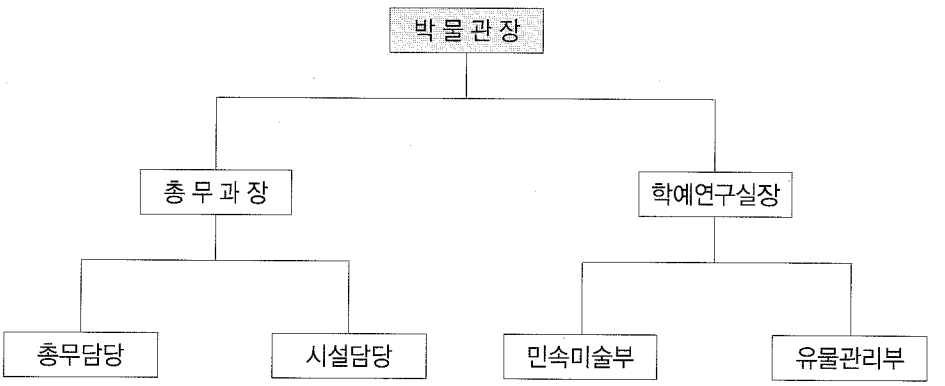
6. 관람객 현황

여 백

1. 기구 및 정·현원

경기도박물관에는 개관시 1과2계, 1실4부(역사민속부, 고고미술부, 유물관리부, 전시교육부) 체제이던 기구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 '98년 9월 14일 조직개편에서 1과2담당 1실2부로 조정되었다. 정원도 60명에서 52명으로 감축되었다.

1) 기구 : 1과 2담당, 1실 2부



2) 정·현원 : 52명(일반직 및 별정직 12명, 연구직 17명, 기능직 23명)

구분	계	일반직 및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7급	8급	9급	10급
정원	52	12	1	3	8		17	4	13	23	3	2	5	13
현원	55	11	1	3	5	2	20	4	16	24	3	2	6	13

※ 청원경찰 10명 별도

2. 직원 인명부 및 역대 직원명단

1) 직원 인명부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비 고
총 무 과	관 장	張慶浩	'96. 12. 14	
	총무과장(행정5급)	徐俊源	'98. 10. 8	
	총무담당(행정6급)	柳志宣	'98. 10. 10	
	시설담당(기계6급)	羅基晶	'97. 2. 1	
	행정주사보	馬順興	'99. 3. 10	
	행정주사보	崔珉植	'98. 10. 10	
	기계주사보	安忠基	'97. 8. 9	
	건축서기	裵江源	'97. 3. 7	
	전기서기	李南熙	'97. 12. 31	
	난방7급	金秉喆	'95. 11. 23	
	전기7급	朴晃植	'95. 11. 23	
	기계7급	林熙水	'96. 3. 1	
	위생8급	劉仁淑	'96. 5. 1	
	전기8급	黃煥植	'95. 11. 23	
	기계8급	李昌林	'96. 3. 1	
	난방9급	曺劉鍾	'96. 3. 1	
	통신9급	陳廣載	'97. 12. 22	
	방호9급	孔榮範	'96. 5. 1	
	영림9급	李昌溶	'96. 5. 1	
	사역9급	權奉源	'95. 12. 26	
	타자10급	吳明淑	'95. 11. 23	
	타자9급	劉憲羅	'95. 11. 23	
	조무10급	南美淑	'95. 12. 26	
	운전10급	柳海烈	'96. 3. 1	
	운전10급	韓成敎	'96. 5. 1	
	사역10급	李蕙聖	'95. 12. 26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비 고
	사역10급	崔美京	'95. 12. 26	
	〃	申貞愛	'95. 12. 26	
	〃	金孝淑	'96. 10. 1	
	방호10급	李仙熙	'96. 5. 1	
	〃	孫美姬	'96. 5. 1	
	〃	徐敬淑	'96. 5. 1	
	〃	金珍淑	'96. 5. 1	
	〃	柳容茂	'96. 5. 1	
학 예 연 구 실	학예연구실장(전문직)	李仁淑	'96. 9. 20	
	민속미술부장(학예연구관)	崔根成	'95. 11. 15	
	유물관리부장(학예연구관)	金成煥	'95. 11. 15	
	(학예연구관)	金性泰	'97. 4. 4	
	학예연구사	張德浩	'95. 11. 15	
	〃	張文哲	'95. 12. 22	
	〃	李憲載	'95. 12. 22	
	〃	金志昱	'95. 12. 22	
	〃	沈盈伸	'96. 4. 22	
	〃	梁尙勳	'96. 4. 22	
	〃	金圭相	'96. 4. 22	
	〃	白種伍	'96. 4. 22	
	〃	金俊權	'96. 4. 22	
	〃	李卿美	'96. 4. 22	
	〃	郭昌浩	'96. 4. 22	
	〃	洪湲儀	'96. 4. 22	
	〃	宋滿榮	'96. 4. 22	
	〃	金泳美	'96. 4. 22	
	〃	李笑熙	'96. 4. 22	
	〃	金銀善	'96. 4. 22	
	사서서기	朴惠蘭	'98. 10. 10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비 고
학 예	별정6급	張世勳	'96. 2. 15	
연 구 실	전산7급	金榮林	'98. 1. 14	
	별정7급	金善德	'96. 9. 10	
	별정8급	朴泳輝	'95. 11. 15	
	영사8급	朴秉南	'96. 3. 1	
	타자10급	朴貴蘭	'95. 5. 1	

2) 역대 직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급	직 위	근무시간	비 고
	강대욱	별정4급	관장	'98.11.23 ~ '96. 7.15	
학예연구실	박홍국	별정5급	학예연구실장	'95.11.15 ~ '96. 7.19	
〃	정기정	별정7급		'96. 3.21 ~ '96. 7.25	
총 무 과	홍완표	지방행정5급	총무과장	'95.11.15 ~ '96. 7.19	
〃	김수만	지방행정5급	총무과장	'96.11.15 ~ '97.12.29	
〃	한인교	지방행정6급	총무계장	'95.11.15 ~ '97. 2.13	
〃	여성구	지방건축6급	시설계장	'95.11.15 ~ '97. 2. 1	
학 예 실	구승서	지방사서8급		'96. 7.16 ~ '98.10. 9	
〃	라경자	지방전산7급		'96.12.10 ~ '98. 1.14	
총 무 과	정훈교	지방행정6급		'97. 2.13 ~ '98.10. 9	
〃	김진섭	지방행정7급		'97. 2.13 ~ '98.10. 9	

3.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98 예산	'98 결산
세 입	입장료수입	60,000	29,934
	사용료	13,000	9,610
	계	73,000	39,594
세 출	인건비	1,159,000	934,372
	관서운영비	51,000	40,868
	경상예산	1,388,813	1,296,421
	주요사업예산	482,932	471,039
	계	3,081,745	2,742,700

4. 시설유지 및 관리

박물관의 시설유지.관리는 이용관람객의 안전과 편리에 우선 역점을 두고 적절한 관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알찬 전시유물의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어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 사 명	기 간	공 사 내 용	비 고
위생배관 보강공사	'98. 4. 6~ 4. 15	식당 오·폐수 배관을 화장실 배관에 접속	전시실에 악취 유입 차단
야외 휴게공간 조성	'98. 5. 22~ 6. 26	놀이마당에 차양 및 긴 의자 설치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 확보
베란다 샷시 설치공사	'98. 11. 12~11. 30	빈 발코니 공간에 샷시유리 설치	작업실 확보
베란다 냉난방 설치공사	'98. 12. 5~12. 12	발코니 공간에 냉·난방시설 설치	발코니에 냉난방 확보

5. 도서실 현황

도서실에는 여러분야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자료는 대부분 학술자료와 일반단행본, 각종 보고서등으로 구비되어 있고, 올해 수집된 자료로는 기증자료 1,222권과 구입자료 135권 등으로 총 1,357권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대　상 : 도민 전체

나. 이 용 료 : 무　료

다. 대출 책수 및 기간 : 1회 2권 (10일간)

라. 개·폐 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일요일 및 공휴일	비　고
하 절 기	09:30~17:30	09:30~12:00	폐　실	중식시간(12:00~13:00)은 휴식
동 절 기	09:30~16:30	09:30~12:00	폐　실	

('98. 12. 31 현재)

자료구분	입수방법	계	총 류	철 학	종 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 술	어 학	문 학	역 사	비 고
합 계	계	1,357	127	34	44	79	5	17	267	7	78	699	
	구입	135	19	1	27	12	1	3	12	3	1	56	
	기증	1,222	108	33	17	67	4	14	255	4	77	643	
단행본	계	763	41	30	40	64	2	12	144	2	78	350	
	구입	106	19	1	26	12		3	9	1	1	34	
	기증	657	22	29	14	52	2	9	135	1	77	316	
정 기 간행물 합 계	계	166	32	4	2	3		1	18			106	
	구입	4										4	
	기증	162	32	4	2	3		1	18			102	
대형본	계	103					2		49			52	
	구입	13							2			11	
	기증	90					2		47			41	
보고서	계	246	10		1	12		1	41			181	
	구입	3										3	
	기증	243	10		1	12		1	41			178	
참 고 도 서	계	79	44		1		1	3	15	5		10	
	구입	9			1		1		1	2		4	
	기증	70	44					3	14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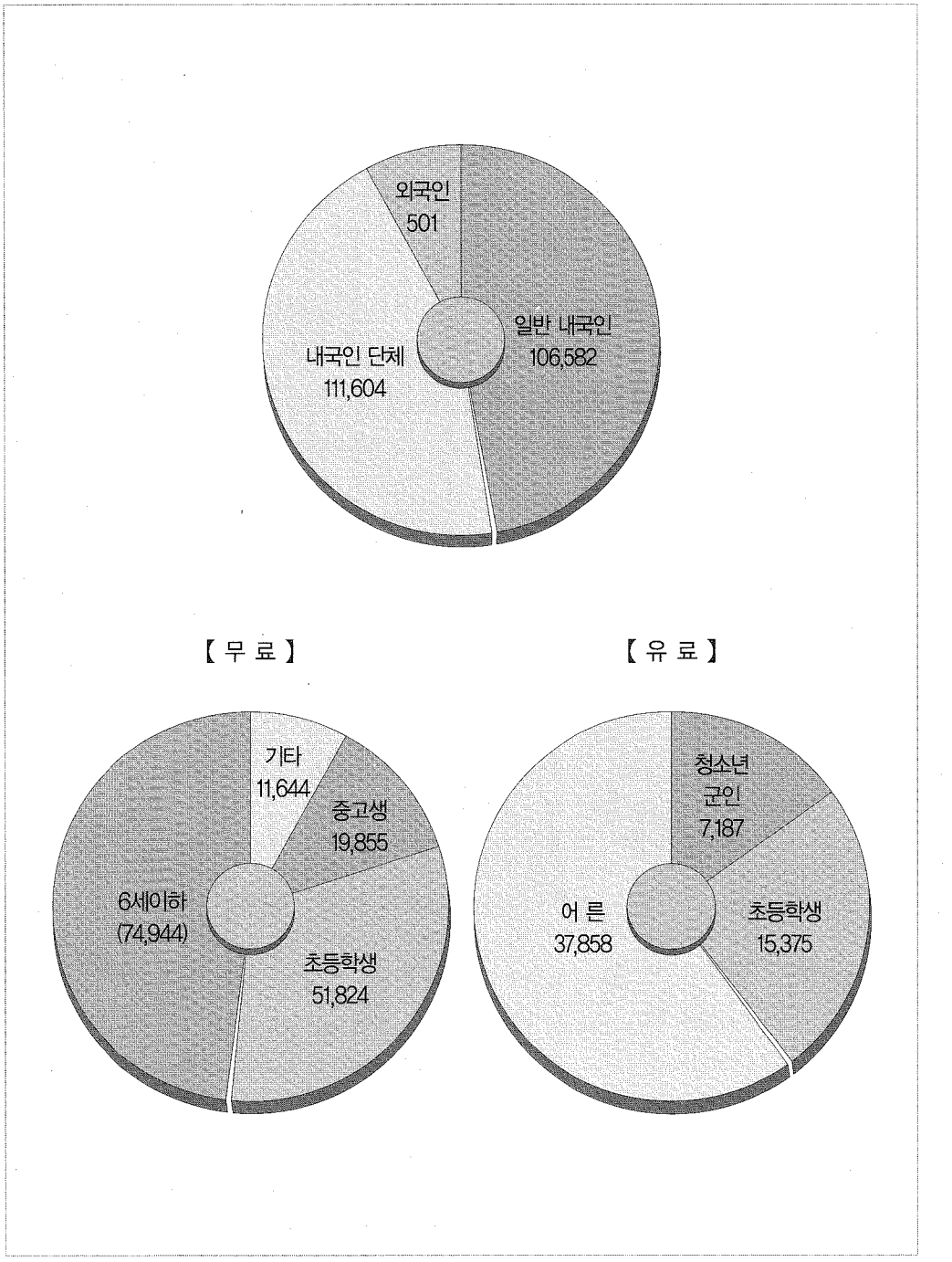
6. 관람객 현황

1997년도 총 관람인원은 181,199명으로 월 평균 15,000명을 기록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총 관람객 37,500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월 평균 3,000여명이 웃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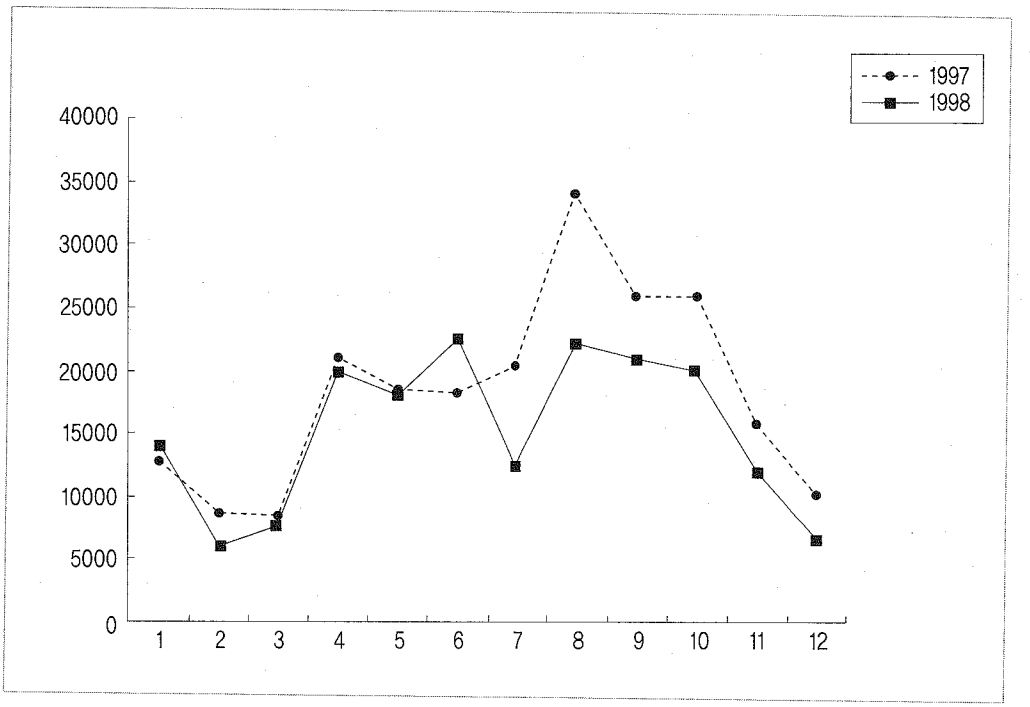
월별 관람객 추이는 4월에서 10월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으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름방학기간을 전후로 한 8월~10월까지가 가장 많았고, 12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계	유료				무료					비고
		소계	어른	청소년 군 인	초등 학생	소계	6세 이하	초등 학생	중고생	기타	
총계	218,687	60,420	37,858	7,187	15,375	158,267	74,944	51,824	19,855	11,644	
1월	12,743	10,830	5,120	967	4,743	1,913	1,697	–	–	216	
2월	8,566	6,270	2,366	1,884	2,020	2,296	1,780	–	–	516	
3월	8,627	4,933	2,456	1,026	1,451	3,694	3,039	–	–	655	
4월	21,039	10,034	2,565	1,684	5,785	11,005	10,132	–	–	873	
5월	18,304	5,544	3,496	672	1,376	12,760	6,858	2,306	628	2,968	
6월	18,217	2,470	2,370	100	–	15,747	8,230	4,866	1,037	1,614	
7월	20,245	2,914	2,815	99	–	17,331	6,207	6,504	3,317	1,303	
8월	33,907	9,075	8,766	309	–	24,382	6,812	11,303	5,671	1,046	
9월	25,622	2,943	2,752	191	–	22,679	9,629	10,755	846	1,449	
10월	25,711	2,158	2,070	88	–	23,553	10,818	9,433	2,822	480	
11월	15,717	1,587	1,475	112	–	14,130	7,371	4,619	1,838	302	
12월	9,989	1,662	1,607	55	–	8,327	2,371	2,038	3,696	222	

○ 관람자 현황 도표


외국인
501
일반 내국인
106,582
내국인 단체
111,604
【 무 료 】
【 유 료 】
기타
11,644
중고생
19,855
6세이하
(74,944)
초등학생
51,824
청소년
군인
7,187
어 른
37,858
초등학생
15,375

○ 관람객 추이


1997
1998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 백

Ⅳ. 부 록

1. 일 지

2. 법 규

여 백

1. 일 지

□ 1998년

월 일	내 용
1. 2	시 무 식
1. 5	소더비 구입품 인수 (청화백자 팔각접시 1점)
1. 7	오·폐수 방류구 표시판 설치
1. 9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제출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 이행에 따른 쓰레기 처리내용 신고
	박물관 홍보기사-경기일보 (도 박물관 올핸 이렇게)
1. 10	'98년 추진업무, 세부계획 수립
	'98년 예산집행계획 작성
	겨울문화학교 수강생 접수 마감
1. 12	주요 단체 방문 관람 (용인 시립도서관 및 수원대 어린이캠프 100명)
1. 13	'98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겨울문화학교 개강 및 민속촌 답사
1. 14	겨울문화학교 연 만들기
1. 15	겨울문화학교 한국민속촌 답사
	파주 주월리 발굴조사 현장 지도위원회의
	• 유구실측 및 16 유구(凸자형) 주거 확인작업
	기획전을 위한 용인·화성·오산·수원지역 시·군회의 개최
	'97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 관리카드 제출 (처리요구사항 3, 건의사항 6)
1. 17	중학생 문화학교 접수 마감
	용인 마북리 고분출토 동경 1점 외 30점 보존처리 카드 작성
1. 20	한복착용 관람객 무료입장 실시
	주요 단체 방문 관람(장영실 과학교실 및 YMCA등 94명)
	중학생 문화학교 개강 및 민속촌 답사
1. 21	중학생 문화학교 연 만들기
	박물관 홍보기사-현대불교(장경호 관장 인터뷰 "회암사 복원에 국민의지 결집하자")

월 일	내 용
1. 22	중학생 문화학교 대보름놀이
	'98 문화영화 상영계획 홍보
	• 대상 : 31개 시군, 24개 시군 교육청, 도내 소재 유치원 723개소
	구입유물 인수 (백자호등 4점)
	박물관 홍보기사-동아일보 (조상들 모습 모형으로 재현)
1. 23	중학생 문화학교 한국민속촌 답사
1. 26	설연휴 관람객을 위한 전통민속놀이 기구 설치
2. 4	주요 단체 방문 관람 (동탄 영재학원 및 과천 문원중학교 346명)
2. 5	대왕가마 지붕 설치 완료
2. 11	정월 대보름 행사 실시
2. 12	주요단체 방문관람 (용인시청 및 동수원중학교 688명)
2. 13	전시실 분진 측정
2. 14	학회 가입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중앙아시아학회)
2. 15	주요단체 방문 관람 (영남대학 및 매원중학교 62명)
2. 16	기증유물 인수 (장수황씨 문중 : 황희영정 1점)
	용인 마북리 출토 총통 보존처리 완료
2. 18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도의회)
	학예연구실 학술회의 발표
	• 김선덕 : 수장고 및 전시실의 보존 환경
	하남 하사창동 긴급 시굴조사
	• 구간내 시굴조사 완료 (유적 없음)
	'98년 예산집행계획 작성
2. 20	박물관 홍보기사-경기일보 (정조가 꽃피운 "조선문화" 재조명)
	-경인일보, 중부일보 ("문예부흥과 화성" 학술세미나)
2. 24	박물관 홍보기사-경인일보 (우리문화재를 수집합니다.)
2. 27	기획전 학술세미나 개최 (130여명 참석)
	주요단체 방문 관람 (고양 YMCA 및 경방필 백화점 81명)
	'97 경기도 박물관 발굴조사 개보 발간
3. 2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박물관 부지내 옹벽 및 절개지등)
	박물관 홍보기사 - 주간경기 (경기도박물관 :우리문화재를 수집합니다")

월 일	내 용
3. 3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온가족 손잡고 문화영화 나들이)
3. 4	헌혈운동 참여 (참여인원 25명)
	주요단체 방문 관람 (도의회 손학규의원등 40명)
3. 6	양주 회암사지 발굴 조사
	• 1단지 전방지역 시굴조사 및 지도위원회 개최
	명지대 보존처리 의뢰 유물 인수
	박물관 홍보기사 - 경인일보, 경기일보 ("방촌 황희선생 영정" 도 박물관 안치)
3. 8	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 (파주반구정)
3. 9	박물관 홍보기사 - 중부일보, 경기일보 (양주, 회암사지 시굴조사)
3. 11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명사 초대석 "경기도박물관장" 인터뷰)
3. 13	도로표지판 박물관 표기
	• 신갈 오거리, 수원 톨게이트 입구
	분진측정결과 분석
	• 분진측정 평균치 20㎍/㎥
	주요기관 방문 관람 (공무원교육원 및 경희대 293명)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양주 회암사지 베일을 벗다)
3. 14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 순찰
	• 등산로등 취약지역 순찰 및 산불예방 캠페인 (전직원)
3. 17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 심의 가결
	• 18세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무료 입장
	• 화상정보검색실등 이용료 조항 삭제
	경기문화유적지도 사업설명회 개최
	• 표기용 색상, 기호분류안 및 관방유적 정리등
	박물관 홍보기사 - 경인일보 (경기도 박물관 내달 1일 "박물관대학" 개강)
3. 21	명지대 보존처리 의뢰 유물 136점 예비 조사
3. 27	경기민속지 제작 주요 집필자회의 (장철수 외 3인)
	• 조사집필 방침등 논의
	주요단체 방문 관람 (용인문화원 및 공무원교육원 275명)
3. 28	박물관 홍보기사 - 경인일보 (안성 봉업사지 고려유물 대량 발굴)
3. 29	제3회 서학술 세미나 개최 (참여인원 200여명)

월 일	내 용
3. 29	• 주최 : 한국서예문화원 화홍서학회
	• 관람객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훈써주기 실시
3. 30	제3기 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참여인원 200여명)
3. 31	도서해안지방 조사
	• 조사지역 : 제부도, 서신면 일대
	• 조사결과 :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1개소 확인
	기증유물 인수 (기증자 : 이윤주)
	• 논어전 7책 (내사본)
	주요단체 방문 관람 (충북대 박물관 및 서산문화원 80명)
	박물관 홍보기사-경인일보, 중부일보 (도내 지정 문화재 순례)
4. 1	제3기 박물관대학 개강식 및 강좌 (강사 박선주, 박용안)
	박물관 회원을 위한 유적답사 접수 (4. 1~ 4. 24)
	경기도 지정문화재 순례 I 전시 개막
	• 회암사와 봉업사를 찾아
4. 6	평택 문화유적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부분)
	• 대상 : 서탄면, 진위면 일대
	• 성과 : 고분 4, 지석묘 2, 유물산포지 1, 성지 4 확인)
	주요단체 방문 관람 (용인문화원 및 공무원교육원 142명)
	용인 공동주택 신축부지 사전 지표조사
	• 조사결과 : 명기 1점 확인
4. 8	박물관대학 2주차 강좌 (강사 한창균, 최무장)
4. 13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현장 철수 (복토작업)
	주요단체 방문 관람 (한미연합사 및 보라초등학교 154명)
	평택 문화유적 지표조사
	• 대상 : 진위면 일대
	• 성과 : 건물지 1, 민묘 1, 성터 1, 백로서식지 2, 절터 1, 돌무덤 1
	박물관 홍보기사-경기일보 (1000년전 "고려신비"를 벗다)
4. 15	박물관대학 3주차 강좌 (강사 임효재, 신숙정)
4. 16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현장 답사
4. 21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석
	후원금 5만원 기탁

월 일	내 용
4. 22	박물관대학 4주차 강좌 (강사 최몽룡, 박양진)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고려,조선 국찰 베일 벗는다)
4. 24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자문위원 13명 참석)
	주요단체 방문 관람 (한광여중 및 마장중학교 549명)
	박물관 홍보기사 - 조선일보 (양주 회암사전시)
4. 25	박물관 회원을 위한 유적답사 실시 (전곡리등)
4. 27	평택 문화유적 지표조사
	• 대상 : 평택 동북부지역
	• 성과 : 유물 산포지등 매장문화재 7개소 확인
4. 29	포천 영송리 부뚜막 유구 해체 경화 처리
	박물관대학 제5주차 유적 답사 (강사 하문식)
	• 연천 전곡리, 파주 당하리, 다율리
4. 30	중국 요녕성 경기도 구매상품단 방문 (32명)
5. 1	주요단체 방문 관람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및 중국 요녕성 관계자 165명)
5. 2	봄철 체육행사 실시 (박물관 체육공원)
5. 5	XRF 운용을 위한 기술연수 완료 (4. 26~5. 5)
5. 6	박물관대학 제6주차 강좌 (강사 : 이남규, 박순발)
5. 8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 심의
	고달사지 발굴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임진강유역 생활유적 지표조사 (15일)
	주요단체 방문관람 (공군 제6639부대 및 에바다학교 112명)
5. 9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전통 민속놀이 공연 "탈춤장단에 엉덩이 들썩")
5. 11	제2회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410명)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기념 전통 민속공연 (봉산탈춤보존회)
5. 13	박물관대학 7주차 강좌 (강사 : 이영문, 이융조)
	기증유물 인수 : 백제 금동 대향로(복제품) 황수영 기증
	평택 문화유적 지표조사
	• 유물 산포지 2, 폐고분 1, 절터 3 확인
	주요단체 방문 관람 (일양약품 및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171명)
	박물관 홍보기사 - 포토경기 (경기도 문화재 우수성을 선보인다)

월 일	내 용
5. 19	주요단체 방문 관람 (분당 YMCA 및 시민선교원 306명)
	상설전 포천 영송리 부뚜막 유구 설치
5. 20	박물관대학 8주차 강좌 및 수료식 (강사 : 김병모)
	제2회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심사
	경기넷 홈페이지 등록 유물 분류작업
	명지대 보존처리 의뢰 유물 동전 125점 서체 확인 완료
5. 23	평택 문화유적 지표조사 (안중면 및 서해안 지역)
	• 고분 2, 폐고분 1, 유물 산포지 1 확인
5. 24	스넥코너 사용 허가 ('98. 5. 24~2000. 5. 23)
5. 25	박물관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문화관광부)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여주 고달사지 "신비의 역사" 벗긴다)
5. 26	매장문화재 신고유물 인수
	• 양주군 남면 출토 고려백자 3점
	양주 울대리 백자가마터 조사
	• 조선시대 중기 가마터로 확인 (철화백자편등 수습)
	용인 마북리 건물지 조사
	• 조선 전기 건물터 1개소, 조선시대 건물지 1개소 확인
	박물관 기념엽서 제작 판매
5. 27	박물관 홍보기사 - 경인일보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5. 28	도서해안지방 조사
	송산 · 서신면 일대 (패총 2, 유물산포지 3 확인)
5. 29	주요단체 방문 관람 (신갈 JC 및 광주 민속박물관 380명)
6. 2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전직원 73명
6. 5	주요단체 방문 관람 (경기도 여성회관 주부대학생 및 용인대 57명)
6. 7	상설전시를 위한 대여 유물 인수
	• 건국대 25건 37점
6. 8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인 양지면 전원주택 예정지)
	구석기 시대 유적 확인
6. 10	제2회 문화재 그림그리개대회 시상 및 입상작 전시

월 일	내 용
6. 10	• 곡란초교 신실이 외 105명
	주요단체 방문 관람 (대한적십자사 및 우만초등학교 385명)
	금동 당초문 과대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완료
6. 11	박물관 홍보기사 – 경인일보 (경기도박물관 제2회 초등학생 문화재그리기대회 시상식)
6. 12	주요단체 방문 관람 (공무원교육원 및 여주군 부인회등 284명)
6. 15	여름 문화학교 접수 (6. 15~6. 30)
	상설전시 대여 유물 인수
	한 • 림대 박물관 외 8건 8점
	기획전시 대여 유물 인수
	• 김상학등 5인 24건 77점
	큐레이터 연수 교육 참가 (6. 15~6. 19)
	• 참가자 : 곽창호, 김지욱, 백종오
6. 16	박물관 편의시설 설치공사 (6. 16~6. 20)
6. 19	주요단체 방문 관람 (양천구 노인회 및 광명초등학교 790명)
6. 20	개관 2주년기념 공연 "발탈" (박해일 –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여름문화학교 강좌)
	– 경기일보 (박해일씨 발탈 공연 "발로 추는 탈춤 풍자 한마당")
6. 22	기획전 전시유물 인수
	• 정신문화연구원등 6개소 51건 66점
	상설전 대여유물 인수
	• 경희대 박물관등 2개 기관 18건 25점
	소방훈련 및 교육 (전직원)
	• 용인소방서 기흥파출소장 (화재예방 및 소화기 작동)
6. 23	박물관 홍보기사 – 조선일보, 새한일보 (여름문화학교 개강)
6. 25	풍덕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협의
	신고 유물 접수
	• 안성도기동 출토 철창 1점, 도자기 1점
6. 26	주요단체 방문 관람 (남촌초등학교 및 풍덕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180명)
6. 30	여름문화학교 접수 마감 (270여명)
7. 1	소장품 평가 자문 및 감정위원회 개최 (천혜봉 외 3명)
	풍덕초등학교 현장 실습 (180여명)

월 일	내 용
7. 2	포천 성동리 유적 긴급 발굴조사
	• 문화재관리국 발굴 허가신청
	용인 평창리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
	• 시굴갱 6개소 설치 및 조사
7. 3	주요단체 방문 관람 (이천 YMCA 및 강릉 시립박물관 132명)
7. 4	여름문화학교 중학생 접수 (7. 4~7. 15)
	복식유물 보존처리 의뢰 (상복 1점, 수원대 배상경)
7. 8	풍덕초등학교 현장 실습 (180명)
7. 10	주요단체 방문 관람 (보존과학 기초 연수생, 재미교포 청소년캠프, 국학연구소 144명)
7. 12	기증유물 인수
	• 기증자 : 최순식 (경기도 관찰사관문등 3건 3점)
	• 기증자 : 황수영 (동종 1점)
	위탁 유물 인수 (한음 이덕형 영정 1점)
7. 16	기획전 대여 유물 인수 완료 (국립중앙박물관 외 24개소)
7. 17	주요단체 방문 관람 (용인문화원 및 안양시청 130명)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중부일보 (도 박물관 특별전 "화성을 알고프세요?")
7. 18	박물관 홍보기사 – 경향신문 (수원 화성 통해 본 "근대화 꿈")
7. 20	기획전 「근대를 향한 꿈」 개막식
	박물관 홍보기사 – 조선일보 (실학 관련 문화유적전)
	– 경인일보 (근대화의 첫발 "화성" 재조명)
7. 24	공무원 센서스 총 조사 (61명)
	주요단체 방문 관람 (황곡초등학교 및 용인도서관 178명)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 (최완수 :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7. 26	기증 유물 인수
	• 한상경 영정
7. 27	박물관 홈페이지 메뉴별 서브항목 디자인 작성
7. 27	고달사지 현장 발굴 조사 착수
7. 28	여름문화학교 개강
7. 29	여름문화학교 토기 실습 (이천 남당도예원)

월 일	내 용
7. 30	여름문화학교 답사 (강화 고인돌 공원)
7. 30	포천 성동리 긴급 발굴조사
	• 주거지 7개소, 소형 원형 유구 30개소 확인
	• 4세기말 5세기초 백제 주거지로 추정
7. 31	주요단체 방문 관람 (분당구청 청소년 어울마당등 3단체 85명)
	상설전 교체 전시 완료 (고고미술실)
	• 대여유물 141점, 소장품 208점
	안성 봉업사지 출토유물 보존처리 실시 (342점 외 일괄)
8. 1	「경기민속지」 발간 (1,700부)
8. 5	경기도 수해복구 현장 지원 (1일 5명씩)
8. 6	고달사지 발굴조사 개토제 실시
	박물관 홍보기사-경인일보 (여주 고달사지 본격 발굴)
8. 7	주요단체 방문 관람 (용인문화원 주부대학등 2단체 85명)
	박물관 홍보기사-중부일보 (여주 고달사지 실체 벗긴다)
8. 9	보존처리 의뢰 접수 (한신대 박물관)
8. 10	상설전 교체 전시 (문헌사료실)
	• 진열장 교체 및 불경, 문방사우류등 총 65점
	박물관 홍보기사-경기일보 (장경호 관장 인터뷰)
8. 12	고달사지 발굴조사 유물 수습
	• 연화문 수막새편 및 묵서명 조질 청자 접시등
8. 13	박물관 홍보기사-경인일보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제1권 "경기민속지" 펴내)
8. 14	주요단체 방문 관람 (유네스코 경기지부등 3단체 122명)
	수재의연금 모금 (71명 406,000원)
8. 15	박물관 전문직 연수과정 접수 (46명)
8. 17	용인 평창리 구석기 발굴조사 시굴조사보고서 발간 및 배포
	박물관 홍보기사-경기일보 (경기민속지 발간)
8. 18	기증 유물 인수 (옥새 5과, 기증자 민홍규)
	박물관 홍보기사-중부일보 (도내 민속문화 현황 집대성 "경기민속지")

월 일	내 용
8. 20	'98 모범 청소년 문화 탐방 (126명)
	상설전 교체 전시 (문헌사료실)
	• 전적 고문서류 20점 교체등 총 84점 전시
8. 20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전통 옥새 장인 민홍규씨 대한제국 "옥새" 복원 기증)
8. 26	포천 성동리 유적 긴급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최
8. 27	학회 가입 (한국 사학회)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중부일보 (포천 성동리 한강유역 대단위 신라 취락지 발굴)
8. 28	주요단체 방문 관람 (춘천교육대 및 YMCA 스포츠단 154명)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수원 극단성 "한중록" 도 박물관 무대 선다)
8. 30	'98 기획전 "근대를 향한 꿈" 기념공연 (극단 城)
	"한중록" 연극 공연
9. 3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업무보고 (박물관 회의실)
9. 4	주요단체 방문 관람 (풍덕초등학교 및 수원 YMCA 354명)
	고달사지 발굴조사
	• 원중대사부도 이수편등 유물 40여점 수습
	컴퓨터 2000년 문제 정비
	박물관 홍보기사 - 동아일보 (구한말 고종 사용 옥새 5과 재현 기증)
9. 7	박물관대학 접수 (9. 7~9. 21)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 방문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장 전수 (박영휘)
9. 8	회암사지 발굴조사 개토제 실시
9. 9	기증유물 인수 (정광경 출토 목관 2점, 17C)
	용인 향교 유물 위탁 (백자호준등 2점)
9. 11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 (최창조 : 우리의 땅 문화)
	평택 문화유적 지표조사 (산성 1개소, 보루성 2개소 새로 발견)
9. 14	박물관 전문직 연수 실시 (9. 14~ 9. 19)
	• 연수생 43명, 청강생 4명 수료
	• 강사 : 로라맥키, 필립스피스등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경기도박물관 30일부터 "박물관대학")

월 일	내 용
9. 18	주요단체 방문 관람 (충북대 사학과등 3단체 320명)
9. 21	박물관 홍보기사-문화일보 (경기도박물관 국내 첫 교육프로그램 개설"박물관 전문직 양성 서둘때")
9. 22	「근대를 향한 꿈」 전시 철거 및 유물 반환
	• 고려대학교 박물관등 23개처
9. 25	주요단체 방문 관람 (용인문화원등 3 단체 380명)
	풍덕초등학교 현장학습 보고회
9. 26	강화 "전등사 철종" 실태조사보고
9. 26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 서거정묘지석, 조영복 영정
9. 27	유문형 소장품 인수 (훈증처리 및 상설전시)
	한신대 의뢰 금속유물 49점 보존 처리 (한신대 박현욱 파견)
9. 29	박물관 홍보기사-경기일보 (경기도박물관 추계 문화유적 답사)
9. 30	제4기 박물관 대학 개강식 및 강좌 (128명 수강, 강사 : 안휘준, 임세권)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 정광경 부부묘 출토품 일괄
	사이버 문화관 관리자 지침 회의 참석 (김영임)
10. 2	사회교육관 건립 기본연구 용역에 따른 연속회의
	• 한국 교육개발연구진 5명, 박물관 간부등
	주요단체 방문 관람 (용인노인대학등 2단체 300명)
10. 7	박물관대학 2주차 강좌 (강사 전호태, 정우택)
10. 8	문화유적 답사 접수 마감 (90명)
	소장 유물 훈증 소독 (10. 8~10.19)
10. 9	주요단체 방문 관람 (한국매듭연구회등 3단체 501명)
10. 13	중국 요녕성 신문 판공실처장 외 4명 방문
10. 14	평택지역 관방유적 조사 출토유물 수습
	• 건덕 3년명 기와등 수습
	박물관대학 3주차 강좌 (강사 김정희, 이원복)

월 일	내 용
10. 16	주요단체 방문 관람 (성일정보산업고등학교등 2단체 800여명)
10. 18	문화유적답사 90명 참가
10. 20	수장고 훈증소독 효과 판정 완료
	• 숙명여대 환경과학연구센터
10. 21	박물관대학 4주차 강좌유적답사 (강사 최완수, 오주석)
10. 23	주요단체 방문 관람 (도의회 신우회등 3단체 428명)
10. 26	추계 체육대회 (박물관체육공원)
10. 28	박물관대학 5주차 강좌 (강사 이수미, 조인수)
10. 30	주요단체 방문 관람 (평택 노인회등 2단체 346명)
11. 2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11. 4	박물관대학 6주차 강좌 (강사 정병모, 한정희)
11. 5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11. 5~11. 6)
11. 6	주요단체 방문 관람 (성균관대등 4단체 105명)
11. 10	박물관 홍보기사-중부일보 ("생생한 역사현장" 도민앞에서 활짝)
11. 11	물레방아 초가지붕 이엉 작업 (11. 11~11. 12)
	박물관대학 7주차 강좌 (강사 조용진, 이성미)
	박물관 홍보기사-중부일보 (우수박물관 평가 "분발 다짐")
11. 13	주요단체 방문 관람 (경기도 평통자문위원등 2단체 415명)
11. 17	유물감정위원회 유물감정 (안휘준 외 5명)
11. 18	박물관대학 8주차 강좌 및 수료식 (강사 허영환, 강관식)
	• 수료자 : 137명
11. 20	주요단체 방문 관람 (영덕고등학교등 2단체 232명)
11. 24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1. 26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최영희 위원 외 5명)
	• 박물관 대학 추가 답사 (여주 고달사지, 이천 파사산성)
	박물관 홍보기사-문화일보 (고려 여주 고달사지터서 유구·유물등 대량 발굴)
11. 27	주요단체 방문 관람 (수지고등학교등 2단체 430명)
	박물관 홍보기사-중부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여주 고달사지 유물 다량 출토)

월 일	내 용
12. 1	중국 광동성 인민대표 대회 우호교류단 방문
	• 방문단 부주임 외 10명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현지조사
	• 조사자 : 천혜봉 외 4명
12. 2	박물관 홍보기사 - 용인 연합신문 (도 박물관 양지면 평창리 유물 대량 발굴)
	- 용인 연합신문 (장경호 관장 인터뷰)
12. 3	'99 세입 · 세출예산 도의회 심의
12. 4	운영자문위원회의 개최
	• 최영희 위원등 8명
12. 5	평택 관방유적 조사
	• 연화문 수막새편등 다수 유물 수습
12. 7	용인 첨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12. 10	박물관 홍보기사 - 중부일보 (도 박물관 문화학교로 오세요)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회암사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최
	• 황수영 위원등 8명
	주요단체 방문 관람 (수원여고등 2단체 1,050명)
	박물관 홍보기사 - 조선일보 (학예연구실장 이인숙 인터뷰)
12. 12	박물관 홍보기사 - 중부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양주 회암사지 유적 발굴)
12. 18	주요단체 방문 관람 (신갈고등학교등 2단체 650명)
	박물관 홍보기사 - 조선일보 (철책안 문화유산 사진으로 만난다)
12. 21	지정문화재 순례 II
	• 비무장지대 9개 지역 문화재 소개
	'97, '98 유물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민홍규 외 6명)
	연보 발간 및 배포
	박물관 홍보기사 - 경기일보 (신나는 겨울방학 박물관도 가보고)
	-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기일보 (민통선내 "잊혀진 유물" 전시)
12. 22	연행일록 발간 및 배포
12. 23	외국 교류 공무원 방문 (8명)
12. 31	종무식

2. 법 규

1)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1996. 6. 18] 조례 제2686호

개정 1998. 5. 18 조례 2811호

제1장 개관 및 관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및휴관) ①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제1호 및 제2호의 휴관일 이외에도 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3.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4.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관람권 매표시간 :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시로 한다.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관장은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98. 5. 18〉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18세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6.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에 있는 상이군경
7.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권) 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경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제1항의 관람권 구분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1998. 5. 18)
3. 청소년 : 1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98. 5. 18〉
4. 군경 :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단기사병,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20인이상 입장함을 말한다.

③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관람권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매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서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삭제 1998. 5. 18)

제9조(관람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 이상 자
3. 보호자 없는 유아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7.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12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①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계전문가·문화계·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 연구활동, 유물관리, 사회교육활동 및 홍보, 시설물 건립,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4조(회의) ①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관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3회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박물관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17조(수당과 여비)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유물의 감정

제18조(유물구입) ①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물의 구입은 신문공고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①박물관 전시 및 수장유물구입에 따른 유물감정을 위해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경기도문화재위원·박물관운영 자문위원, 사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에 대하여 고증, 평가, 감정을 하며 관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21조(유물의 감정) ①관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수장유물에 대하여 감정위원 2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유물감정결과를 감정위원이 자필서명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관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24조(수당과 여비) 유물감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람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체 (20인이상)	
어른	700원	550원	• 25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300원	250원	• 19세이상 24세이하 및 하사이하의 군인(단기사병, 경찰, 전투경찰, 경비교 포함)

2) 경기도직제규칙개정규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98. 9. 4

제4절 경기도박물관

제50조(관장)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박물관에 총무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이상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제52조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박물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
3. 예산·계획·용도 및 재산관리
4. 매표 및 안내
5. 자체방호에 관한 사항
6. 각종 전시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
7.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3조 ①학예연구실에 민속미술부와 유물관리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민속미술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사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 및 분석
2. 민속학·사회학 및 민족학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3. 고고학·인류학 및 자연사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4. 미술사학·건축·조각·회화 및 서예분야와 도자기공예·목칠공예·수집·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5. 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기자재 운영 및 관리
6. 기타 각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유물관리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2. 유물의 구입 및 대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운영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보존·복제 및 촬영
5. 유물의 전산처리 및 전산실 운영·관리
6. 제4호와 관련된 허가사항 처리
7. 문화재의 국외전시와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 및 문화교류

8. 무형문화재의 공연 및 연시
9. 관람안내 및 홍보
10. 전시실 및 전시기자재 운영 · 관리
11. 시청각 기자재 운영 · 관리
12. 사회교육관 운영 · 관리
13. 움직이는 박물관 운영 · 관리
14. 도정사료관 운영 · 관리
15. 전시공사에 대한 기획 및 공사감독

이 용 안 내

주 소 우편번호 : 449-900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전 화 (0331) 285-2011~4

팩시밀리 (0331) 285-2015,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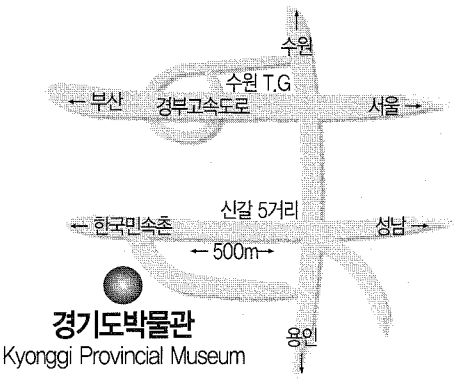
교 통 수원 TG 옆 신갈오거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 서울기점
  - 남부터미널에서 신갈행 직행버스(40분소요)
  - 서울 잠실 롯데월드 건너편에서 민속촌행 좌석버스(1001, 1002, 1116, 1시간 소요)
  - 동서울터미널에서 용인행 직행버스, 신갈하차(1시간 소요)
- 수원기점
  - 수원터미널에서 용인행 완행버스 50분 소요
  - 수원에서 용인행 좌석버스(600, 800), 일반버스(10, 10-1, 27, 37, 58, 66, 66-1)
- 분당기점
  - 분당선 미금역 민속촌행 버스(1001, 820, 1116)

개관시간 09:00~19:00
09:00~17:00
(11, 12, 1, 2월)

휴 관 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관 람 료 18세 미만-무료
18세~24세-300원
25세~64세-700원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관람료 무료



京畿道博物館年報

발행일 1999년 11월

발행처 경기도박물관

제 작 코아기획 (0331) 255 - 0224

449-900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경기도박물관 TEL(0331) 285 - 2011~4

Annual Bulletin of Kyonggi Provincial Museum Vol. 2

Contents

Foreward ..... Director, Chang Kyong-ho

I. Articles and Research Notes

1. Paek-che Hill-fortress of South Kyonggi Province I ..... Baek Jong-oh
2. An Analysis of Bronze Bowl Excavated from Bongeup-sa Temple Site. ..... Kim Sun-deok
3. On the Celadon Roof Tile Excavated from Ownhungri, Koyang City. ..... Kim Young-mi
4. On the List of Kyongju Kim's Clan in Kigockmyun, Yogin City, of the Late Chosŏn Dynasty. ..... Kim Sung-hwan
5. An Essay on the Inkstones ..... Jang Sea-hoon

II. Project Outlines

1. Exhibition
2. Research Activities
3. Collection Management
4. Education Programs
5. Publications
6. Advisory Committee

III. General affairs and Administration

IV. Appendix

Kyonggi Provincial Museum
('98. 1～'98. 12)